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7. 2. 9(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곽노봉, 김명규,
오용섭, 유창중, 이원복, 최웅천

목 차

【심의사항】 1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공개
2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
3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
4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꽃이	"
5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
6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
7	몽산화상범어약록(언해)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8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개
9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보존처리 현상변경	"
10	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 보존처리 현상변경	"
11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보존처리 현상변경	"
12	2017년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소위원회 구성·운영	"
13	2017년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국보 제120호, 보물 제986호, 보물 제422호, 보물 제513호 등 4건 보호구역 현상변경	"

【검토사항】 9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14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5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공개
16	최석정 초상	"
17	신여량 상가교서	"
18	신여량 밀부유서	"
19	구급간이방 권7	"
20	금강반야바라밀경	"
21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
22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

【보고사항】 5건

23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진행결과 보고	비공개
24	조선왕조실록 관리현황 보고	공개
25	국보 제32호 함천 해인사 고려목판 관련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보고	"
26	2017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계획 보고	비공개
27	2017년도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전번호 동산 2017-01-001

1.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金允謙 筆 嶺南紀行畫帖)

가. 심의사항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3.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6호(2004.10.4.지정)
- 명 칭: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金允謙 筆 嶺南紀行畫帖)
- 소유자(관리자): 동아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 량: 1점(14폭 화첩)
- 규격(cm): 27.3~31.1×21.1~47.6
- 재 질: 종이바탕에 수묵담채
- 형 식: 화첩
- 제작연대: 18세기 후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첫째, 김윤겸의 독자적(獨自的)인 화경(畵境) 즉 작품세계와 위상, 화격(畵格) 이해의 측면에서 이 화첩이 접하는 비중을 먼저 들게 된다. 김윤겸의 현존 유작을 살필 때 어떤 연유인지 대작(大作)은 매우 드물다. 대개가 화첩에 속한, 화첩에서 산란된 낱폭의 소품들이 주류이다. 이 화첩도 예외는 아니나 일정시기, 일정지역을 소재로 한 일괄화첩이다. 김윤겸에 있어서 개재 작품 수 14점은 아직까진 그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과 개성을 보이니 정형(定型)을 이룩한 노년의 완숙미(完熟美)를 잘 반영한 그림 됴됨이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

둘째, ‘조선의 화성(畵聖)’ 정선(鄭敼), 1676-1759)에 의해 이룩된 우리 회화사에서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진경산수이다. 그 흐름과 변천에 있어 김윤겸은 문인화가 중에서는 그 서두를 장식한다. 이 화첩을 통해 화면 구성과 공간처리 및 시점(視點) 등에서 정선의 영향이 선명히 보인다. 그와 동시대의 이인상(李麟祥, 1710-1760)과 강세황(姜世晃, 1713-1791)에 이어 정수영(鄭綏榮, 1743-1831) 등과 더불어 진경산수에서 문인화의 계보를 이룬다. 이는 최북(崔北, 1712-1786 이후) · 김희겸(金喜謙, 18세기 후반) · 강희언(姜熙彦, 1738-1781 이후) · 김응환(金應煥, 1742-1789) ·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 등 전업화가와는 다른 한 축을 이룬다.

셋째, 조선시대 감상화의 주류는 수묵담채(水墨淡彩)임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 수묵위주에 다채로운 채색을 기피하며 정선에 방불한 색채로 담청(淡靑)이 위주임이 돋보인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뭇의 특징과 색깔을 이 화첩을 통해 보다 선명히 드러낸다. 과감한 생략(省略)이 가미된 단순한 표현, 담청 중심의 해맞은 선염(渲染) 등 독자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며 조선말기 새로운 감각의 이색화풍(異色畵風)의 선구적인 면마저 감지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첫째,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화가 중의 한사람인 김윤겸의 개성적인 화풍이 가장 잘 드러난 그의 대표작으로서 의미가 높다. 이 <영남기행화첩>은 말년에 농익은 김윤겸 특유의 화풍이 유감없이 발휘된 가작이다. 대담한 구도, 윤곽선 위주의 간결한 경물 묘사, 담백하고 깔끔한 필치, 투명한 선염, 맑은 담채, 경물을 바라보는 예리하고 섬세한 시각 등에는 동 시기 다른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개성이 녹아 있다.

둘째, 김윤겸은 남종문인화풍의 관념산수화 외에 금강산, 지리산 등을 그린 적지 않은 진경산수화를 남겼다. 현전하는 경상도 지역의 실경산수화는 전라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교남명승첩(嶠南名勝帖)>과 일본 유현재 소장의 <영남명승35경도(嶺南名勝35景圖)>가 잘 알려져 있지만 <교남명승첩>은 정선의 손자 정황(鄭樞, 1735~?)의 작품으로 추정될 뿐 작가를 알 수 없으며 화격이 그리 높지 않다. 또 <영남명승35경도>는 작가미상의 19세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남기행화첩>은 18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의 실경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영남기행화첩>은 화가와 대략적인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경상도 지역 진경산수화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성있는 화풍, 높은 완성도, 뛰어난 화격 등은 작품 그 자체로서 매우 우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은 본관이 안동으로, 자는 극양(克讓), 호는 진재(眞宰)·산초(山樵)·묵초(默樵, 墨 초). 묵장(墨藏)노초 등이다. 문인화가이기도 한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서자로 부친의 그림 취미를 이어 개성적 화풍을 이루었다.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사대부로 현달하지는 못했으나 소촌 찰방을 지냈다. 아들 중 김용행(龍行, 1753-1778)도 그림에 능했으나 불행히 일찍 죽었다. 김윤겸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같이 활동하였으나, 화풍상 전혀 다른 개성을 보여준다. 그는 사물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간단하고 짧은 필선으로 묘사하고, 투명한 담채를 살짝 곁들여 추상미가 풍기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의 소재로는 진경산수화가 가장 많은데, 그가 평생 전국을 유람하며 실경의 감흥을 독특한 개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윤겸은 조선시대 문인화가 중 독특한 개성과 넓은 지역의 다양한 실경산수를 남겨 회화사상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김윤겸의 작품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영남기행화첩>은 주로 부산, 경남 일대의 지역을 그린 14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일부는 현재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으나 조선 후기 선비들의 여행과 시문서화 예술의 창작 상황을 잘 보여준다. 영남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14폭의 작품을 남겨, 지방자치 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작품 자체로도 김윤겸의 회화를 대표할 만한 높은 수준으로, 비록 원래화첩의 모습은 아니고, 일부 결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현상태로도 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인 이 화첩은 『영남명승기행사경첩(嶺南名勝紀行寫景帖)』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화첩은 소장 박물관에서 전시(展示)했고, 기 간행된 도록(圖錄) 등에 게재되어 회화사 관계학자들에겐 이미 잘 알려진 친숙한 그림에 든다. 하지만 처음 화첩으로 꾸며진 성첩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며, 하나가 아닌 산락되어 낱장으로 전해온 그림들을 함께 모은 것으로 사료 된다.

화첩을 펼쳐 일괄하면 화면 상태와 크기에 의해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같은 크기에 화면 중앙에 접힌 자국이 있는 것, 잡힌 자국이 화면 왼쪽에 치우친 것, 이들과 달리 절반 정도의 작은 크기로 나뉜다. 이는 전해오는 도중 훼손(毀損)에 의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에 처음부터 한 화첩으로 동시(同時)에 그려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를 그린 화가가 아닌, 후대 누군가가 새롭게 묶은 것으로 사료된다. 1960년대 초 새로 장황했으니 어쩌면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영남지방을 소재로 그린 진경산수(眞景山水)란 공통분모를 지니며, 지금까지 알려진 김윤겸의 화첩 중에는 한 화첩에 실린 작품 수가 14점으로 가장 많은 셈이다.

황색비단 표지에 써 붙인 ‘진재화첩(眞宰畫集)’란 화첩명과, 안표지의 ‘진재선생필(眞宰先生筆)’의 묵서는 필치(筆致)나 서풍(書風) 측면에서 평범해 쓴 인물을 비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화첩을 개장했을 때 쓴 것으로 사료된다. 주문방인(朱文方印) ‘동아대학교도서관장인(東亞大學校)’은 동아대학설립자인 석당(石堂) 정재환(鄭在煥, 1906-1977) 선생이 구입해 기증해 도서관에 보관되었던 것을 1964년 박물관에 이관(移管)된 것이다. 14점의 그림의 게재 순서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지 알기 힘들다.

○ 내용 및 특징

먼저 화첩의 그림 내용을 살펴보면, 화첩에 실린 순서대로 나열하면 <물운대(沒雲臺)> · <영가대(永嘉臺)> · <홍류동(紅流洞)> · <해인사(海印寺)> · <태종대(太宗臺)> · <송대(松臺)> · <가섭암(迦葉菴)> · <가섭동폭(迦葉洞瀑)> · <월연(月淵)> · <환아정(換鵝亭)> · <순암(蓴巖)> · <사담(蛇潭)> · <하룡유담(下龍游潭)> · <극락암(極樂菴)> 이다. 매 폭 예외 없이 장소를 밝힌 동일 서체의 묵서가 있어 이는 그대로 작품제목이 된다. 주문방인 ‘진재(眞宰)’는 14폭 중 6폭에는 없다. 부산 지역의 경우 해운대에만 도장이 있고 영가대와 태종대에는 없어 이 들이 별도의 한 화첩으로 태종대가 끝 폭임을 암시한다. 거창과 함양 지역은 4폭 중 2점

에만 있다. 이들 화면에 있는 작품제목인 묵서와 도장은 모두 나중에 쓰고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시사점도 없지 않다

이를 지역으로 나누면 거창(송대 · 가석암 · 가석동폭 · 순암)과 함양(월연 · 사담 · 화룡류담 · 극락암)이 각기 넷, 부산(물운대 · 영가대 · 태종대)이 셋, 합천(홍류동 · 해인사) 둘, 산청(환아정)이 한 곳이다. 네 지역에 걸친 이들 이름난 승경(勝景)을 김윤겸 자신이 직접 탐승(探勝)하고 옮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김윤겸이 60세 때 소촌도 찰방에 임용된 1770년(영조 46) 이후로 봄이 옳을 것이다.

○ 문헌자료

李泰浩, 「眞宰 金允謙의 眞景山水」, 『考古美術』 152, 한국미술사학회(1981)

○ 기 타

이 화첩과 더불어 현존하는 정선이 그린 금강산 화첩 중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岳圖帖)』, 서울 주변을 담은 간송미술관의 『경교명승첩 (京郊名勝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세황의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과 정수영의 『해산첩(海山帖)』 등 일련의 실경사생첩 등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 현상 및 내용

조사된 <영남기행화첩(嶺南紀行畫帖)>은 대학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박사가 구입하여 동아대학교도서관에 보관하던 것을 1964년 현재의 박물관이 이관 받아 소장 중이다. 이 작품은 진재 김윤겸(眞宰 金允謙, 1711-1775)이 합천, 거창, 함양, 산청과 부산(동래) 등 영남지역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14장의 화첩이다. 김윤겸은 1770년(영조 46) 소촌 찰방에 임용되었는데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판단된다.

화첩 내의 14폭 그림은 <물운대(沒雲臺)>(부산), <영가대(永嘉臺)>(부산), <홍류동(紅流洞)>(합천), <해인사(海印寺)>(합천), <태종대(太宗臺)>(부산), <송대(松臺)>(거창), <가섭암(迦葉菴)>(거창), <가섭동폭(迦葉洞瀑)>(거창), <월연(月淵)>(함양), <환아정(換鵝亭)>(산청), <순암(蓴巖)>(거창), <사담(蛇潭)>(함양), <하룡유담(下龍游潭)>(함양), <극락암(極樂菴)>(함양) 순으로 장첩되어 있다. 박물관으로 이관되기 전인 1963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장되었는데 그 배열이 어떤 근거에 의한 순서인지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표지에는 “眞宰畫集”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첫 장에는 “眞宰先生筆”의 묵서와 「동아대학교도서관장서」 도장이 찍혀 있는데 모두 개장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4폭 화면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은데, 작은 그림의 경우 잘려 나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저마다 다른 크기의 종이에 그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화면에는 제목이 한자로 쓰여 있으며 「眞宰」라는 주문방인이 몰운대, 홍류동, 해인사, 송대, 가섭동폭, 환아정, 사담, 극락암 등 8폭에만 찍혀 있다. 이 목서 제목과 도장은 모두 나중에 쓰고 찍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 현 상

‘眞宰畫集’이라고 표제가 된 화첩으로 새로 장황되어 있다. 황색비단으로 표지가 싸여져 있는데, 현대에 들어 새로 장황되었다. 안표지에도 ‘眞宰先生筆’이라고 적혀있고, ‘동아대학교도서관장인’ 주문방인이 찍혀있어 원래 도서관 소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지와 안표지의 제첩 글씨는 필자가 적혀 있지 않으며 평범한 서체이다. 다음으로 총 14면의 그림이 실려 있는데, 매폭의 가운데 세로로 접힌 자국이 있어 원래는 절반 크기의 화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순서도 위치를 볼 때 원래의 순서에서 흐트러진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김윤겸이 함천, 거창, 함양, 산청, 부산의 영남 지역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14장의 화첩으로 현재의 순서는 <몰운대沒雲臺> <영가대永嘉臺> <홍류동紅流洞> <해인사海印寺> <태종대太宗臺> <송대松臺> <가섭암迦葉菴> <가섭동폭迦葉洞瀑> <월연月淵> <환아정換鵝亭> <순암蓴巖> <사담蛇潭> <하룡유담下龍游潭> <극락암極樂菴>이다. 김윤겸은 1770년(영조 46) 소촌도 찰방에 임용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폭의 크기는 일정치 않으나 매폭 좌우측 상단에 제목이 적혀 있어 실경을 그렸음을 보여준다.

○ 기 타

1964년 동아대학교도서관으로부터 동아대박물관으로 이관된 유물로 2004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2.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靑磁 象嵌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承盤)

가. 심의사항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3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함
- 예고기간 중 지정명칭 재검토 요청이 접수(‘17.1.26)됨에 명칭 재검토를 포함하여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칭: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靑磁 象嵌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承盤)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량: 1건 3점
- 규격(cm): 전체높이 29.7, 최대지름 18.3 승반높이 8.8, 승반구경 18.3
- 재질: 도토(陶土)
- 제작연대: 고려시대(12~13세기)

라.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이견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지정 예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문화재 명칭 재검토 요청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8038(2016.12.28.)호 관련입니다.
2. 우리 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된 아래 문화재의 명칭 재검토 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문화재 지정에 앞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적합한 문화재 명칭 부여

나. 대 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품 2건 5점

문화재 명칭(현재 지정 예고된 명칭)		수량
1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1건 3점
2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1건 2점

다. 요청내용: 명칭 수정-적합한 문화재 명칭 부여(요청서 붙임)

붙임 문화재 명칭 재검토 요청서 1부, 끝.

국립중앙박물관장



학예연구사 박성원 학예연구관 오준영 유물관리부장 신대권
정일 2017. 1. 26.
합의자
사실 유물관리부-283 (2017. 1. 28.) 접수 유물문화재과-626 (2017. 1. 28.)
주 0438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8구 165-8) 국립중앙박물관 / www.museum.go.kr
관 유물관리부
전화번호 02-2077-9414 팩스번호 02-2077-9921 / muse@museum.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 명칭 재검토 요청서 >

☐ 내 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정예고품(보물)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

☐ 목 적: 적합한 문화재 명칭 부여

☐ 요 청 품: 1.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2.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 요청부분: 명칭 수정

☐ 요청내용

부분	변경 검토 요청 내용	내 용
명칭	(원 안) 1.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靑磁 象嵌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承盤 2.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 (수정 요청 안) 1. 청자 퇴화 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자 및 받침 靑磁 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托碗 2. 청자 죽순모양 주자	1. 원안 검토 -주전자는 물을 직접 끓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표현 검토 필요 -상감기법의 사용 관련 -승반의 용어 사용 문제 2. 수정 요청 안 -‘煎’은 끓이는 의미를 지닌 한자로 청자 주자는 끓이는 용도가 아님. 물을 따르는 혹은 물을 대는 것이라는 의미가 적절하여 한자도 注子로 표기. 따라서 한자 표기와 통일하여 우리말로 ‘주자’로 수정 필요 -상감 삭제: 이 문화재는 상감 기법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상감을 삭제하여야 함 -승반은 일본식 용어임 -우리말의 경우 주자를 데우고 받치는 용도를 고려하여 ‘승반’ 대신 ‘받침’으로 표기하여야 함.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승반의 우리말 표기를 받침으로 하고 있음 -한자표기 承盤은 ‘托碗’, ‘溫碗’ 등 적절한 대체 한자 명칭 검토 필요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청자는 퇴화(堆花) 기법으로 자유로운 필치의 초화문(草花文)이 장식된 주자와 승반으로, 과감한 장식 문양이 돋보이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표주박 모양의 주자와 뚜껑, 승반이 하나의 완전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이 청자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주자의 몸체는 공처럼 둥근 구형(球形)을 이루며, 구연이 외반된 승반은 안바닥을 넓고 편평하게 만들어 안정감을 더했다. 몸체에 부착된 주구(注口)는 흑과 백의 마름모꼴 도안을 통해 장식성을 더할 뿐 아니라 금속기의 잔영을 보이고 있다. 손잡이는 줄기를 꼬아 놓은 듯 하며, 뚜껑은 보주형(寶珠形)에 가까운 모양이다. 뚜껑과 손잡이 윗부분에 각각 작은 고리를 마련하여 끈으로 서로 묶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였다.

이 주자에서 가장 빼어난 부분은 퇴화 기법으로 나타낸 문양에 있다.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赭土泥)를 이용한 퇴화 기법은 자유로운 필치를 한껏 살려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초화문을 생동감있게 베풀었다. 또한 주자의 몸체 곳곳에 흑백의 문양을 번갈아 나타내며 대비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주자의 아랫박의 문양은 초화(草花)를 그린 백원문(白圓文)과 당초(唐草)를 음각한 백원문대(白圓文帶)의 두 개의 구획으로 나뉜다. 이들 문양의 바탕은 각각 구획한 것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바탕을 커다랗게 마련하고 각 문양 사이의 공간을 굵게 채워 여백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드문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세심하게 베풀 문양은 최고 수준의 퇴화 기법을 구사한 장인의 손길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 청자는 완전한 조합과 구성, 당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몸체, 자유로운 필치로 정성스럽게 그린 문양 등 세련된 퇴화 기법의 정화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례도 많지 않지만, 퇴화 기법을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자 퇴화 초화문 표형 주자·승반은 12세기 이후 새로운 주류 문화의 유행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기형으로 주자와 승반이 완벽하게 남은 것은 물론 흑백의 강렬한 대조를 강조한 장식 기법으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이다.

먼저 고려시대 청자 주자와 승반이 세트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간혹 유색이나 장식의 차이로 그 세트의 진위가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유물은 전체 장식과 유색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고려청자 주자와 승반의 세트 구성시 장식과 유색의 동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희소성을 지닌

다.

다음 표주박형 주자의 상하 표주박의 비례가 잘 이루어졌고 상태가 양호하며, 주구와 손잡이 등의 조각과 시유에서 커다란 흠을 잡기 어렵다는 것도 작품성의 장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백화장토와 산화철 안료를 이용한 흑백 대비의 초화문 시문은 상감청자를 제외한 다른 청자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식 기법으로, 상감이 아닌 붓의 필치와 화법으로 장식적 효과를 충분히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청자주자는 상감청자와는 다른 화장토와 퇴화 기법을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자주자와 승반은 다른 전세유물이 여러 점 전하고 있지만, 크기나 세부 형태, 장식, 보존상태 등에서 조사유물과 같이 뛰어난 예는 극히 드물다.

주자는 뚜껑과 주구, 손잡이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표주박 모양 몸체의 양감도 뛰어나다. 이 유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주자와 승반의 백토와 철안료 장식인데, 흑백의 대비가 좋으며 장식소재의 표현이 화려하고 구성이 독특하다.

작품의 보존상태도 좋고 유약의 색깔과 용융상태 등도 양호하며, 굽의 받침흔 적도 잘 남아 있다.

다른 유물들과 특징을 비교하며 연구하여 고려시대 청자주자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며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명칭은 ‘청자 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으로 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 전체적으로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다만 유약 층에서 부분적으로 빗결이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주자(덕수6236)는 표주박 모양이며, 몸체의 굴곡이 급하고 양감이 있다. 주자의 구연부(口緣部)는 외반(外反)하며 뚜껑을 끼우는 방식으로 조합된다. 승반은 하부에 무게 중심이 있으며 굽은 높고 밖으로 벌어진다. 문양은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赭土泥)를 이용한 퇴화(堆花) 기법으로 대담하게 장식하여 흑백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작은 뚜껑은 흑(黑)과 백(白)을 번갈아 세로줄을 긋고, 몸체의 윗박은 변형된 화관문(花瓣文)을 장식했다. 윗박과 아랫박이 만나는 목 부분에는 흑과 백의 가로줄을 돌렸다. 몸체의 아랫박 양면에는 자토로 초화(草花)를 그린 백원문(白圓文)을 중심으로 당초(唐草)를 음각한 백원문대(白圓文帶)를 돌렸다. 특히 초화문은 윤곽을 음각선으로 나타내어 강조하였다. 손잡이는 줄기를 꼬아 놓은 듯 한 모양이며 주구(注口)는 하단과 몸체 연결 부위에 걸쳐 마름모꼴로 백토를 바르고 자토로 윤곽선을 더했다. 승반은 주자의 몸체에 있는 것과 유사한 문양을 네 곳에 장식했다. 바탕흙인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치밀하다. 유약은 담록이 감도는 회청색이며 기물(器物) 전체에 고르게 입혀져 있다. 접지면(接地面)과 그 주변의 유약은 닦아내고 베이지색 계열의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

○ 현 상

전체적으로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다만 유층에서 일부 핀 홀과 빗결이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청자 퇴화 초화문 표형 주자·승반은 주자와 뚜껑, 승반으로 구성되었다. 주자는 작고 큰 두 개의 상하 표주박 모양으로, S자 형태의 몸체 윤곽선을 지니고 있다. 주자의 구연부는 외반(外反)하여 뚜껑을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승반은 구연부로 갈수록 밖으로 벌어진 완의 형태로 구연부는 도톰하게 말려있다. 승반의 굽은 높고 밖으로 날카롭게 벌어져 있다. 뚜껑은 반구형의 상부와 원통형으로 몸체에 끼우는 하부로 이루어졌다.

문양은 백화장토와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흑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먼저 뚜껑에는 백화장토와 철화 안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세로줄을 그었다. 몸체의 위 박에는 안으로 굽은 고리 모양의 화관문(花瓣文)을 장식했는데 백화장토를 굽게 칠한 후 산화철로 살짝 마무리하였다. 상하 표주박이 만나는 목 부분에는 백화장토와 철화안료로 가로줄을 시문하였다. 몸체 아래 박 양면에는 백화장토로 테두리를 굽게 칠하고 마른 후에 음각으로 당초문을 조각하였다. 한 가운데는 백화장토로 원을 그린 후 그 위에 산화철 안료로 절지된 초화(草花)문을 그렸는데 윤곽선을 조각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손잡이는 줄기를 꼬아 놓은 듯 한

모양이며 주구(注口)는 하단과 몸체 연결 부위에 걸쳐 백화장토를 굵게 칠하고 철화 안료로 윤곽선을 칠했다. 승반에는 주자와 세트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듯이 주자 몸체에 있는 것과 유사한 문양을 네 곳에 장식했다.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치밀하며 유색은 회청색으로 유약은 기물(器物) 전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접지면(接地面)에는 그 주변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

○ **현 상** : 유물은 주자와 승반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작품이다. 보존상태는 전체적으로 매우 뛰어나며, 전면에 병렬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주자는 표주박을 본뜬 모양으로 몸체의 위쪽과 아래쪽이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며 목부분의 길이가 짧고 홀쭉하여 전체적으로 양감이 좋다. 주자의 몸체 측면 두 곳에는 길게 솟아오른 주구와 반원형으로 식물줄기를 꼬아 만든 듯한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이러한 구조와 형태는 고려 중기와 후기에 제작된 청자주자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승반은 안바닥이 넓고 깊으며 굽이 높고 밖으로 벌어져 있어 금속기를 연상케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청자대접과는 전체의 형태나 굽의 모양에 차이가 있다.

표면의 장식은 백토(白土)와 철안료를 함께 사용하여 꽃과 다양한 모양의 곡선을 그려두었다. 전체적으로 백토와 검은색 철안료의 색대비가 뛰어나다. 주자에는 어깨에 꽃잎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문이 있고 몸체 중앙에는 원형의 백토장식 위에 철안료로 활짝 핀 꽃을 그려 장식하였다. 주전자 곳곳에 선문장식이 있다. 승반은 외면 중앙에 주자에 그려진 것과 유사한 원형의 그림장식이 있다.

태토는 잡물이 섞여 있지 않은 치밀질이며, 전면에 담록색의 유약을 고르게 씌워 구웠다. 굽바닥 가장자리의 유약을 닦아내고 미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구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3.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靑磁 竹筍形 注子)

가. 심의사항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3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함
- 예고기간 중 지정명칭 재검토 요청이 접수('17.1.26)됨에 명칭 재검토를 포함하여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靑磁 竹筍形 注子)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건 2점
- 규격(cm): 뚜껑- 높이 6.7,
몸체- 높이 19.2, 입지름 3.0 바닥지름 7.6
- 재 질: 도토(陶土)
- 제작연대: 고려시대 12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청자는 죽순(竹筍)을 형상화한 상형청자(象形靑磁)로, 여러 식물 모양 청자 가운데서도 조형과 장식, 유색(釉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이 주자의 너무 가늘지도 과하게 풍만하지도 않은 몸체의 세련된 비례는 우아함을 더하며, 뗏가지 등으로 나타낸 손잡이와 주구(注口)의 구성은 창의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죽순의 윤곽은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엽맥(葉脈)은 가느다란 음각선으로 섬세하게 나타내어 생동감을 더했다.

이 주자와 같은 상형청자는 사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입체적인 형상을 본떠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제 사물보다 강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이 주자의 창조성과 완성도는 동시대 중국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의 수준 높은 미감(美感)이 있는 그대로 투영된 수작(秀作)이다.

또한 맑고 투명한 비색계(翡色系)의 유약은 담록을 머금은 회청색을 보이는 동시에 고르게 유리질화되었는데, 환원염(還元焰) 소성(燒成)을 완벽히 이룬 고려의 요업(窯業) 기술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 주자는 세련된 비례와 조화로운 구성, 여기에 더한 섬세한 장식, 그리고 맑고 투명한 비색계의 유약과 은은한 광택이 한데 어우러진 명품 중의 명품이다.

현재 지정된 고려청자 가운데 상형청자가 제법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형청자가 다른 청자에 비해 창조성과 완성도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 주자는 현재 지정된 다른 상형청자에서 보기 힘든 죽순이라는 소재를 형상화했다는 점과 우아한 조형미와 빙렬(氷裂)이 거의 없고 은은한 광택의 유색 등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다른 지정 문화재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여, 최상급 상형청자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자 죽순형주자는 죽순(竹筍)을 형상화한 상형청자(象形靑磁)로, 고려 12세기 상형청자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디자인은 물론 성형과 조각, 유색(釉色)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소위 비색청자의 대표적인 예로 여겨진다.

고려청자 중 12세기 상형청자는 여러 모티프의 독창적인 채용과 적절한 비례와 섬세한 조각, 화륜점정의 유색이 더해져 당대 최고의 청자로 주목받았다. 이 주자의 경우 죽순을 주 모티프로 하고 뚜껑과 몸체, 손잡이, 주구에 이르기까지 죽순의 형상을 극대화하였다. 죽순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음각과 양각, 조각, 첩화 기법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조각 기술은 최고를 보여준다. 유색은 청록색에 가까우며 주자 전면에 골고루 잘 시유되었다.

일부 몸체의 균열이나 파손, 철분 등이 발견되나 전체적인 완성도와 완벽한 환원염 소성에 의한 비색에 가까운 유색은 동 시기 제작된 중국과 고려의 청자 주자 가운데 수작(秀作)이다.

결론적으로 죽순이라는 소재를 형상화하고 발군의 조각 솜씨와 비례, 은은한 광택과 비색의 유색 등으로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유물은 1건 2점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청자주자의 구성이며 형태의 비례와 양감, 세부 장식이 뛰어나다. 고려시대 중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다양한 모양의 상형청자 중에서도 죽순을 소재로 만든 독특한 예이며, 유사한 예도 드문 편이다. 나아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고려청자 중에서도 크기가 크고 형태와 세부의 표현이 뛰어나 대표적인 유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유물의 상태도 좋다.

장식소재를 채택한 안목, 장식구성, 양각과 음각의 장식기법의 수준도 최고라고 할 수 있으며, 표면의 유약도 고려중기에 제작된 질이 좋은 청자의 전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유례가 드문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낸 점이 더욱 돋보인다.

유사한 파편과 유색이 전라남도 강진의 청자가마터 등에서 확인되므로 여러 면에 있어서 고려청자 전성기의 특징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물들과 특징을 비교하며 연구하여 고려중기 청자주자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 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며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만 뚜껑 가장자리에 일부 파손 및 결손 흔적이 있다. 주구 주변의 유약층에서 부분적인 크랙이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주자(덕수4499)는 뚜껑과 몸체로 구성되어 서로 짝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죽순(竹筍) 모양으로 형상화한 특징을 보인다. 죽순 모양의 몸체에 가는 댓가지 두 개를 붙여 구부린 형태의 손잡이와 대나무를 구부린 형태의 주구(注口)가 붙어 있다. 죽순의 뾰족한 부분을 뚜껑으로 만들고, 뚜껑과 손잡이 윗부분에 각각 작은 고리를 마련하여 끈으로 서로 묶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죽순 사이의 경계는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죽순의 엽맥(葉脈)은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여 생동감을 더하였다. 바탕흙인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치밀하다. 맑고 투명한 유약은 담록을 머금은 회청색이며 뚜껑 안쪽 일부와 굽바닥을 제외한 전면에 매우 고르게 입혀져 있다. 굽과 안바닥은 전면에 걸쳐 시유되었으나, 접지면(接地面)과 그 주변의 유약은 닦아내고 여섯 군데에 걸쳐 모래 섞인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 현 상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뚜껑 하단 일부 파손 및 결손 흔적이 있으며, 몸체 표면 유층 일부 철분과 핀 홀이 발견되며, 유 표면의 자갈한 스크래치가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청자 죽순형주자는 뚜껑과 몸체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죽순(竹筍) 모양을 하고 있는 상형청자의 일종이다. 손잡이는 죽순 모양의 몸체에 가는 댓가지 두 개를 붙여 구부린 형태이며, 밖으로 뺀 대나무 형태의 주구(注口)가 붙어 있다. 죽순의 뾰족한 부분을 뚜껑으로 만들고, 뚜껑과 손잡이 윗부분에 각각 작은 고리를 마련하여 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죽순 사이의 경계는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하고 죽순의 엽맥(葉脈)은 음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불순물이 거의 없고 치밀하며 맑고 투명한 비색에 가까운 유약은 뚜껑 안쪽 일부와 굽바닥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몸체 굽과 안바닥은 전면에 걸쳐 시유되었으나, 접지면과 그 주변의 유약은 닦아내고 여섯 군데에 걸쳐 모래 섞인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 현 상

청자죽순형주자는 손잡이 및 주구가 달린 몸체와 뚜껑이 세트를 이루는 전형적인 구성이다. 주자는 전체적으로 죽순 모양이며 몸체 양측면에 각각 주구와 손잡이가 달려 있다. 뚜껑은 몸체에서 분리되며, 하단 한쪽과 손잡이 상단에 식물 줄기모양의 고리를 달아 서로 끈으로 연결하여 분실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전면에 양각과 음각기법으로 죽순의 잎이 중첩된 모양을 전면에 사실적인 모

양으로 장식하였다. 그 위에 광택이 좋고 투명한 유약이 씌워져 있다.

보존상태는 뚜껑 아래쪽 가장자리 한쪽이 조금 파손되었다. 손잡이 아랫부분의 발색이 살짝 고르지 못하고, 몸체의 저부 일부에 유색이 조금 어둡다.

○ 내용 및 특징

뚜껑과 몸체로 이루어진 고려청자 주자의 전형적인 구성이며, 몸체의 모습은 양감이 좋은 죽순의 모양을 한 것이 특징이다. 죽순의 뾰족한 상단을 주자의 뚜껑으로 만들었는데, 상단을 다듬은 모양새도 특이하다.

몸체 전면에 장식된 죽순 잎은 전체 형태와 세부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며 장식숨씨가 대단히 뛰어나다. 각각의 잎 가장자리를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경계를 표현하였으며 안쪽의 엽맥을 가는 음각선으로 정교하게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몸체의 형태 및 유색과 적절하게 조화되게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고 치밀한 연회색이며, 그 위에 맑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씌웠다. 일부에 발색이 고르지 못하거나 조금 어둡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 편이다.

굽과 굽안바닥 전면에 유약을 씌운 후, 접지면과 주변의 유약을 닦아내고 여섯 군데에 걸쳐 적갈색내화도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안전번호 동산 2017-01-004

4.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

가. 심의사항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3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건 1점
- 규격(cm): 높이 9.0, 길이 17.6, 너비 4.8
- 재 질: 도토(陶土)
- 제작연대: 고려시대(12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청자는 문방구 가운데 붓을 꽂아 보관하는 필가(筆架)이다. 고려청자 필가는 많은 예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묵호·연적 등 문방구들과 더불어 고급품이 많

다. 장방형의 몸체와 상형(象形)의 용두(龍頭) 장식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상형과 투각(透刻)의 두 가지 기법이 어우러져 밀도 있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푸른빛의 유색이 유달리 뛰어나다.

12~13세기 고려청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물이나 식물, 인물을 표현한 상형청자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형청자의 모티프는 크게 자연적 소재와 종교적 소재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종교적 소재는 고려시대 국교였던 불교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이 청자로 만들어졌고, 연꽃은 연판(蓮瓣)의 형태로 그릇의 내·외면을 장식했다. 연판은 향로나 향완 뿐 아니라 대접·접시와 같이 윗부분이 벌어지는 일상 용기에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연꽃잎이 활짝 벌어진 듯한 효과를 냈다. 특히 이 필가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승천(昇天)하는 두 마리의 용의 형상과 만개한 연꽃의 모습을 함께 나타내었다. 품격 있는 연꽃은 고려청자의 발달 배경에서 불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필가 역시 불교의 상징적인 의미를 깊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은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로서 왕실의 권위를 드러냈을 것이다.

한편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진 붓꽃이가 요삼채(遼三彩)로 제작되어 전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요삼채와 고려청자의 양식적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북송의 도자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요삼채의 일부 기형을 고려의 지배층이 선호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이 필가는 단순한 직사각형 몸체에 다양한 문양과 더불어 뛰어난 조형성이 가미되어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탄생하였다. 몸체의 양옆에 장식된 용두는 뿔, 수염, 송곳니, 비늘 등이 음·양각 기법으로 정밀하게 묘사되었다. 몸체는 화려한 연당초문(蓮唐草文)이 투각되고, 마치 대좌(臺座)와 같이 몸체를 받치고 있는 하부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용이 승천하는 듯 한 생동감을 주기에 적절하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이 작품은 당시 왕실이나 귀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필가는 희소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과 유색, 투각·음각·양각·철화 등의 다양한 장식기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상급의 청자이다. 따라서 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자 투각 연당초문 필가는 문방구로 고려시대 청자 필가로는 매우 희소한 예 중의 하나다. 몸체 상단에 세 개의 구멍이 투각되었고 양 옆에 용두를 별도 조각하여 첩화한 필가는 이미 중국 요대 삼채 필가에도 유사한 예가 보이지만 청자로 제작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과 연꽃, 장방형 필가라는 모티프와 형태의 유사성은 충분히 요대 도자의 영향으로 여길 수 있으나 섬세한 조각과 비색의 유색 등은 고려청자만의 독자성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먼저 성형의 경우 장방형의 몸체와 첩화된 상형(象形)의 용두(龍頭), 밖으로 살짝 벌어진 하단부 등은 각기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한 것으로 성형과 건조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다. 용의 머리와 수염, 어금니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조각과 몸체의 연당초문 투각에서 보여주는 섬세함은 고려청자 조각의 백미에 가깝다. 여기에 눈동자의 철화기법과 12세기 최고의 유색인 녹청색의 비색 유약 등은 수작 중의 수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용과 연꽃이라는 당대 공예품 등에 유행하던 도상을 채용하고 생동감 있는 용의 표현을 통해 실용미를 드러내었다. 장방형의 몸체와 연당초문 투각 등에 나타난 조각 솜씨와 맑은 유색과 소성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발색을 통해 귀족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자 투각 연당초문 필가는 그 작품성과 희소성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유물은 형태와 장식이 독특하고 유래가 극히 드문 희귀한 작품으로 이미 고려청자 문방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려시대 다양하게 제작된 상형장식을 비롯하여 장식소재와 뛰어난 장식구성, 세부를 정교하게 장식한 장식기법과 솜씨, 여기에 맑고 투명한 유약이 조화되어 고려중기에 제작된 전성기 청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 필가는 고려청자의 특징과 문방구류를 고찰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형태와 장식구성이 유사한 예로 요나라에서 제작된 삼채(三彩)가 알려져 있고, 두 유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영향관계를 추정하기도 하므로 고려중기 청자의 조형과 대외교류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유사한 장식과 유색의 청자파편들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등지에서 발견되므로 제작지의 추정도 가능하다. 형태와 장식, 유색 등 고려청자의 특징과 문방구류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다른 유물들과 특징을 비교하며 연구하여 고려중기 청자주자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며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만 필가 양쪽에 자리한 용두(龍頭)의 뿔 부분에 일부 파손 및 결손 흔적이 있다. 하단부에 번조시 터져 갈라진 흔적이 세 군데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필가(덕수3783)는 장방형의 몸체에 용두(龍頭)를 양쪽에 장식한 모습이다. 용두는 뿔과 수염을 비롯해 송곳니, 비늘까지 양각과 음각기법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눈동자는 산화철(酸化鐵) 안료를 찍어 생동감을 더했다. 양쪽의 용두를 이어주는 몸체의 윗면에 둥근 구멍이 3개 있어서 모필(毛筆)을 꽂도록 되어 있고 구멍 둘레에 화판(花瓣)이 음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몸체의 앞뒷면에 화려한 연당초문이 세련되게 투각되어 있다. 몸체를 받치고 있는 하부는 거친 파도를 나타낸 것으로 각 면에는 음각선을 더해 일렁이는 물결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바탕흙인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치밀하다. 유약은 담청이 감도는 회청색이며 기물(器物) 전체에 고르게 입혀져 있다. 그러나 몸체 하부에서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 묻쳐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접지면(接地面) 네 곳에 걸쳐 규석(珪石)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

○ 현 상 :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필가 양쪽 용두(龍頭)의 뿔 부분에 일부 파손 및 결손 흔적이 있으며 굽 부분에 번조시 터져 갈라진 흔적이 세 군데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청자 투각 연당초문 필가는 장방형의 몸체에 별도로 조각하여 첩화한 용두(龍頭)를 양쪽에 배치하고, 하단부는 능화형의 형태를 하였다. 용두는 뿔과 수염, 비늘, 송곳니까지 양각과 음각기법으로 세밀하게 조각하였고, 눈동자는 산화철(酸化鐵) 안료를 찍어 마치 화룡점정과 같은 생동감을 주고 있다. 장방형의 몸체 윗면에는 필을 꽂을 수 있는 3개의 구멍이 투각되었고, 둘레에는 화판(花瓣)이 음각되어 있다. 몸체의 좌우 측면에는 화려한 연당초문이 정교하게 투각되었다. 몸체를 받치고 있는 하단부는 마치 능화형 같은 형태에 음각으로 파도문을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며 두 개의 구멍이 투각되었는데 소성시 균열 방지와 미적인 장치로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불순물이 거의 없고 치밀하며 유약은 녹청에 가까운 소위 비색을 이루고 있으며 기물(器物) 전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접지면(接地面) 네 곳에 규석

(珪石)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

○ 현 상

청자투각연당초문필가는 높이가 낮은 사다리꼴이며 윗면 세 곳에 붓을 둘 수 있는 원형의 구멍이 있고, 위면 가장자리 양쪽에 각각 용두모양의 조각장식을 둔 독특하고 희귀한 유물이다.

용두는 상형이며 필가의 사면에 투각과 음각기법으로 연당초를 화려하고도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그 위에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다.

보존상태는 용두의 상단에 뿔이 두 곳 모두 파손되어 결손되었고, 하단부에 번조시 터져 갈라진 흔적이 세 곳에서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형태와 구조, 장식이 독특하여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작품이다. 몸체 양쪽 측면에 각각 용두(龍頭)를 장식하였는데, 비록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뿔과 수염은 물론, 뽀족하게 드러난 송곳니, 몸체 표면의 비늘까지 양각과 음각기법으로 정교하게 장식하였다. 고려의 다양한 상형청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눈에 철점(鐵點)을 찍어 장식하는 등 장식기법과 소재 등에서 고려중기의 전체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필가의 윗면을 편평하게 다듬고 세 곳에 둥근 구멍을 뚫어 붓을 꽂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주변에는 음각으로 꽃을 장식해 두었다. 몸체의 넓은 측면은 앞뒷면에 나란히 연당초문을 생동감 있게 구성한 후 투각기법으로 장식하였다. 필가를 받치고 있는 모양의 받침은 고려청자의 장식에서 용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파도를 받침대 모양으로 형태를 만든 후 음각하여 장식한 것으로, 장식선이 가늘고 세부의 표현이 뛰어나다.

태토에는 잡물이 발견되지 않는 치밀질이며 전면에 맑고 투명한 담청색의 유약을 약간 두껍게 씌웠다. 광택이 좋고 발색이 좋지만 몸체 아래쪽에 유약이 흘러 약간 고이기도 하였다. 바닥 네 곳에 규석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5.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

가. 심의사항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2005년)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1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불국사
- 수 량: 1폭
- 규격(cm): 전체 233.8×199.4, 그림 222.7×189.0
- 재 질: 삼베 바탕에 채색
- 형 식: 삼장보살도
- 제작연대: 1739년(영조 4)
- 제작자: 密機, 彩元, 瑞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화승 밀기가 수화승을 맡아 불화로서 전반에 걸쳐

바탕천 훼손 및 안료 박락이 거의 보이지 않아 보존상태가 양호 할 뿐 아니라, 세련된 필치로 표현해 낸 원만상의 존상 형태 및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 밝고 화사하면서도 안정된 분위기의 색채 선택 등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또한 적당한 신체 비례와 한 화폭에 천장·지지·지장 삼회를 나타내면서도 화면구성이 유기적이고 각 회상별 도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18세기 조성의 삼장보살도와외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것과 함께, 화면 구성상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북지역 화승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조선시대 삼장보살도 중 시기적으로 비교적 앞설 뿐 아니라, 독특한 화면 구성 및 경북지역 화승들간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건륭4년(1739)에 조성된 불화로, 현재 대웅전 중단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삼장보살도>는 죽은 영혼의 천도와 삼계육도(三界六道)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식용 불화이다. 화면 중앙의 천장보살과 왼쪽(향우측)의 지지보살, 그리고 오른쪽(향좌측)의 지장보살로 구성된 보살 3위를 중심으로, 각 보살의 주위에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같은 삼장보살의 도상구성은 천계·지상계·유명계로 이뤄진 삼계신앙의 구조를 지닌 것이다.

조선시대 삼장보살도는 16세기 일본 新長谷寺 소장 <삼장보살도> (조선 1550)를 비롯해 18세기에 이르러 상당수가 제작되었다. 불국사 <삼장보살도>(1739)는 18세기 전반에 속하는 작품으로, 화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주색과 녹색 착의에 장식된 소형 문양의 표현과 기법이 섬세하다.

불국사 <삼장보살도> 제작에 참여한 화승은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정(瑞澄)으로, 이들 모두 18세기 중반경 경북지역에서 작화 활동을 한 자들이다. 특히 수화승 밀기(密機)는 1731년 상주 정수사의 <석가설법도>(현, 의성 고운사 소장)와 <지장보살도> 조성에 수화승으로 활약하였고, 이어 8년후 1739년에 불국사 <삼장보살도>를 주관하였다. 익년 1740년에는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고, 1742년 수화승 뇌현(雷現)과 함께 포항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불회도>, 1744년 수화승 세관(世冠)과 함께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 중 <영산회도>와 <약사불회도>, <변성대왕도> 등에 보조화승으로 각각 활약하였다.

채원(彩元) 역시 18세기 중반경 경북지역에서 활약한 화승으로 보이나, 현재 불국사 본 작품에서만 확인된다. 서정(瑞澄)은 18세기 중후반 경북지역에서 활약

한 화승으로, 1739년 수화승 밀기(密機)와 함께 불국사 <삼장보살도>를 비롯하여 1741년에 수화승 세관(世冠)과 함께 상주 남장사 <아미타불회도>(2폭)와 <삼장보살도>, 1744년에 수화승 세관(世冠)과 보조화승 밀기(密機)와 함께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영산회도, 약사불회도), <변성대왕도> 등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불국사 <삼장보살도> (1739)는 현존 상태가 양호하며, 제작 시기 및 제작자가 뚜렷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18세기 전반 삼장보살도의 도상 및 화풍 연구에 귀중한 사례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密機, 彩元, 瑞澄 등이 경주 巨洞寺 五周庵에서 제작하여 불영사에 봉안하였다는 분명한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연구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천장보살이 지물을 들고 있다든가,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의 협시가 좌우 대칭을 이루며 무장형의 인물을 배치하였다는 하는 점은 이 삼장보살도가 『오종범음집』을 근거로 하여 제작하였고, 또한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삼존을 동일 선상에 수평으로 나란히 앉힌 구도는 시각적으로 안정을 구가하며, 인물의 세부 묘사력도 섬세하고 정취하다. 명도는 낮고 채도가 높은 붉은색과 녹색, 황색, 육색 계통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여 종교화가 지향하는 숭고함과 장엄함을 잘 표출하였다. 물론 앞선 시기의 담백한 담채풍의 맑고 명랑한 색채감에 비해서는 좀 더 짙고 탁해진 느낌은 있지만 이는 시대적 미의식과 작가의 취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사된 선묘는 주로 변화가 드문 가는 선을 사용하였으며, 머뭇거림 없는 붓질은 유려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강조색으로 사용된 백색은 색감이 또렷하게 돌출되어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점도 기법상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이 삼장보살도는 모든 면에서 18세기 전반기 불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며, 이 시기 화풍 및 삼장보살도의 도상 등 불화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여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불국사 대웅전 향우측 단에 모셔져있는 족자형식 불화로써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그림 뒷면에 1967년의 보수기록이 묵서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삼배바탕에 채색한 족자형식의 一幅式 그림으로 화면 중앙부의 天藏菩薩 무리(天藏會)를 중심으로 왼쪽(向右)에는 持地菩薩 무리(持地會)가 자리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地藏菩薩 무리(地藏會)가 배치되어 있다.

각 회상의 중심보살상은 하나로 이루어진 높은 수미단 연화좌 및 단 위에 각 기둥근 모양의 머리광배와 몸광배를 구비한 채 앉아 있으며, 하단과 주위로는 각 기의 권속들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한 화면을이룬다.

중앙부의 천장보살상은 청색 天衣에 적색 裙衣를 착용하고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쓴 채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으며, 두 손은 설법인 자세로 하복부쪽에 둔 왼손으로는 흰색의 경권을 잡고 있다. 권속들은 몸을 틀어 정면을 향하여 합장하고 있는 좌협시 眞珠菩薩과 우협시 大眞珠菩薩을 비롯하여 日月天衆 및 童子 등 모두 16위가 주위로 본존을 에워싸듯 빙 둘러져 있다.

천장회 좌측으로는 지지회가 배치되어 있다. 본존인 지지보살상의 경우 왼손에 청색 표지의 경권을 들고 백색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천장보살상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녹색 천의와 적색 군의를 착용하였다. 무릎 아래로는 冥府의 四直使者 중 장과 붓(책)을 들고 있는 2위의 사자상이 마치 협시보살처럼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로 13위의 권속들이 중심보살상을 호위하듯 빙 둘러 싸고 있다.

그리고 천장회 우측으로는 지지회와 대칭을 이루며 지장회가 그려져 있다. 본존은 僧形의 지장보살상으로 연화좌 없이 단 위에 걸터앉아 오른발을 누이고 왼발은 내려 연화를 딛고 있는 반가좌 모습으로, 石杖은 등 뒤에 두고 하복부 쪽의 왼손에는 寶珠를 들고 있다. 오른 손은 옆으로 들어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고 손가락을 구부리어 마치 잡고 있던 석장을 살짝 빼낸 것과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장보살상 하단에는 지지회와 대칭적으로 사직사자 중 화살과 검을 든 2위의 사자를 두었으며, 그 위 주위로는 좌우협시상 없이 10대왕과 判官 및 錄事와 鬼王 등 13위의 권속을 두었다.

불국사 삼장보살도의 화면구상의 특징으로는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1727, 보물 제1855호)와 여수 흥국사 삼장보살도(1741년, 전남 유형문화재 제299호),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1775년, 경북 유형문화재 제342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1776년, 보물 제1888호) 등과는 다르게 화면 하단에 협시상 대신 명부 사직사자를 일렬로 배치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삼장보살상 및 권속들의 표현을 보면 턱이 각지지 않은 둥근 형태의 얼굴에
 弧를 그리며 그려진 눈썹과 가늘게 반개한 눈, 적당하게 가늘어진 긴 코, 꼭 다
 문 작은 입으로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눈가 주위를 호분으로 두르고 피부
 색을 밝게 처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각 권속들의 표현 또한 섬세하고 치밀한 필치를 보여주어 생동감이 있
 으며, 각 회상마다 화면 상부에 蓮花形 天蓋를 두고 황색계열 구름을 배치한 하
 늘 공간을 둔 다음 중앙으로부터 뻗쳐 나가는 瑞氣를 표현하여 장엄스럽다.

전반적인 색조는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황색 및 갈색계열의 색
 채를 채택하여 안정감이 있다.

화면 하단으로는 중앙부와 좌우측에 조성내력과 本寺秩, 大施主秩을 밝혀주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다.

중앙부의화기내용중 ‘乾隆四年己未五月日慶尙左道慶州北嶺普賢山巨洞寺五周庵
 造成畢功安于江源道蔚珍顯西嶺天竺山佛影寺……書員密機 彩元 瑞澄……’ 이라는내
 용으로 보아 이 삼장보살도는 1739년 慶尙左道 慶州 北嶺 普賢山 巨洞寺 五周庵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 보현산 소재 거 동사 오주암)에서 조성하여 江源道 蔚珍
 顯 西嶺 天竺山 佛影寺(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천죽산 불영사)에 봉안하였으며,
 密機가 수화승을 맡고 彩元和 瑞澄이 참여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조성화승 가운데 참여화승 ‘瑞澄’은 2년 후인 1741년 ‘世官’이 수화승을 맡
 아 그린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보물 제1856호)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화승 ‘密
 機’ 또한 경상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이후 1742년 ‘雷現’이 수화원을 맡아
 조성한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홍색 바탕에 선묘)와 1744년 ‘世官’이 수화승
 을 맡아 조성한 김천 직지사 대웅전 봉안의 삼세불후불도(보물 제670호)에 참여
 하여 존상의 표현 및 안정감 있는 색채 사용 등에 있어 화풍상의 영향관계를 짐
 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불국사 삼장보살도 지장회 본존인 지장보살상의 반가자세
 와 오른 손 모습이 서봉사 지장시왕도 지장보살상과 유사한 점은 이를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좌측부 화기는 당시 本寺秩과 和尚, 三綱, 書記 등의 소임에 대한 내용
 이며, 우측부의 화기는 삼장보살도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 11명의 명단을 바탕시
 주와 일반시주로 구분하여 밝혀놓고 있다.

〔書記〕

〈중앙부〉

乾隆四年己未五月日 慶尙左道慶州北嶺普賢山巨洞寺五周庵
 造成畢功安于江源道蔚珍縣西嶺天竺山佛影寺

緣化秩
 證明 處澄
 持殿 雪元
 畫員 密機
 彩元
 瑞澄
 供養主 呂聰
 別座 彩元
 化主 信眼

〈좌측부〉

本寺秩
 山中老納 天玉
 普仁
 秀還
 圓俊
 尙雄
 時和尚 丑眼
 三 綱 淨訓
 處宗
 書 記 清眼

〈우측부〉

大施主秩
 婆幘施主 金丙戌 兩主
 施主 金成乞 兩主
 安順明 兩主
 崔天龍 兩主
 金命哲 兩主
 金任昌 兩主
 權召吏 保體
 金再煥 保體
 朴太常 保體
 金知衍 兩主

金□山 兩主

〔後面 補修記〕

緣化秩
補修一九六七年丁未九月
證 明 比丘 惠山宗硯
時住持 比丘 碧庵東日
聰 務 休然準教
院 主 一願赫俊
補修畫師 宝河知竹
施主秩
蔚珍邑邑內里二區
淸信士 石虎金容湜
淸信女 林功德華
沈古佛心

□

○ 화기 및 목서명

<화기>

화면 하단 3곳에 주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각각 마련하고, 그 안에 목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①향우측 화기(주색 바탕에 목서)

乾隆四年己未五月日「慶尙左道慶州北嶺」普賢山巨洞寺五周庵「造成畢功安于」江原道蔚珍縣西嶺天竺「山佛影寺」緣化秩「證明處澄」持殿雪元「畫員密機」彩元「瑞澄」供養主呂聰「別座彩元」化主信眼」

②중간 화기(주색 바탕에 목서)

本寺秩「山中老衲」天玉「普仁」秀還「圓俊」時和尚玉眼「三綱淨訓」處宗「書記淸眼」

③향좌측 화기(주색 바탕에 목서)

大施主秩「婆幘施主金丙戌」兩主「施主金戒乞」兩主「安順明兩主」崔天龍兩主「金命哲兩主」金任昌兩主「權召吏保休」金再煥保休「朴太常保休」金知衍兩主「金○山兩主」

<목서명>

족자 배면 하단에 후대에 첨가한 목서 수리기(1967년)가 있다.

①목서수리기(배면 하단부)

緣化秩」補修一九六七年丁未九月」證明比丘眞山宗硯」時住持比丘碧庵東 日」總務 休然準教」院主 一願赫俊」補修畫師 宝河知竹」施主秩」蔚珍邑邑內里二區」淸信士石虎金容湜」淸信女林功德萊」沈古佛心」

○ 현 상

대상 작품 〈삼장보살도〉는 불국사 대웅전 중단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삼배바탕에 채색을 배운 족자형식으로, 횡폭은 삼배 7매를 연결하여 한 화폭을 형성하였다. 화면은 전반적으로 백색이 뿌옇게 들뜬 상태이다. 안료의 박락 흔도 군데 군데 확인되고, 부분적으로는 두발 부분의 먹색과 보관의 백색 부분에 가채 흔이 보이나, 화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불화 배면의 하단에는 배를 덧대어, 그 위에 1967년에 실시한 보수기를 밝히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불국사 〈삼장보살도〉(1739년)는 화면 중앙의 천장보살, 왼쪽(향우측)의 지지보살, 그리고 오른쪽(향좌측)의 지장보살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여러 권속들이 에워싼 형태이다. 천장보살은 투명 두광을 갖춘 협시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을 비롯해 천부중을, 지지보살은 녹색 두광을 갖춘 신중상을 비롯해 역사상과 권속들을, 그리고 지장보살은 녹색 두광을 갖춘 신중상을 비롯해 시왕·관관·명부사자 등을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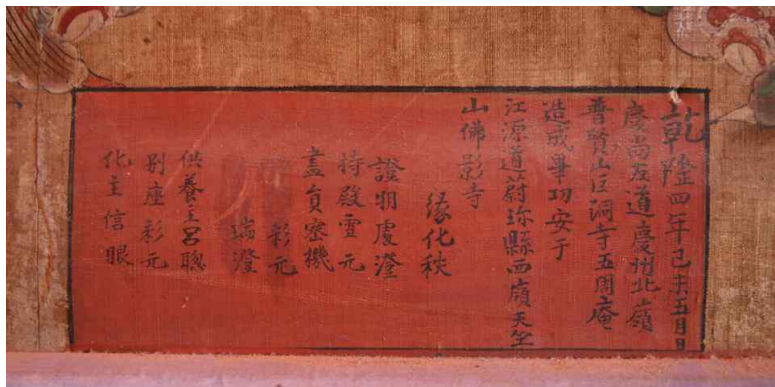
천장·지지·지장보살 3위 모두 높은 방형의 수미단 위의 연화좌에 정면향으로 결가좌하였다. 육신은 황색을 바르고, 육신선은 가는 먹선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보살상 3위의 양쪽 눈은 원 바탕 위에 백색을 살짝 덧바르고 먹선으로 위 눈꺼풀과 눈동자 윤곽을 다시 잡은 흔적이 보인다. 천장과 지지보살의 보관은 보주광염으로 장식하였고, 주색 바탕에 백색 선으로 윤곽을 잡아 화려하게 구사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백색선은 후대 보수시 가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협시를 비롯한 권속들의 육신은 백색 혹은 분홍색을 바르고, 육신선은 가는 먹선으로 잡았다. 보살의 법의와 협시 및 권속들의 착의에는 소형 문양을 흘뜨려 장식하였다. 전반적으로 녹색 두광과 착의, 주색 착의 등의 안료는 비교적 두텁게 발라져, 부분적으로 안료의 박락이 눈에 띈다.

화면 가장자리 네 변에는 붉은 궤선을 둘러 화면의 틀을 형성하였고, 그 외곽에는 청색띠를 둘러 마감하였다. 하단의 목서화기를 통해 건륭4년(1739)에 수화승 밀기(密機)를 비롯하여 채원(彩元), 서경(瑞澄)이 함께 조성하여 당시 율진현 불영사에 봉안된 불화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8세기 중반경 경북지역에서

활동한 화승들이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1739) 전도



삼장보살도(1739) 화기

□

○ 내용 및 특징

이 삼장보살도는 불국사 대웅전 중단에 걸려 있는 중단탱으로, 화기에 따르면 건륭 4년 기미 5월 불영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불화는 울이 굵은 삼베를 7폭을 이어붙어 화면을 만들었으며, 삼베가 주는 거친 질감에 전통 안료가 잘 어우러져 따뜻한 화취를 풍긴다. 장황은 족자식이며, 1967년 수리 때 상·하 축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삼장보살도가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50년에 그려진 일본 신장곡사(新長谷寺) 삼장보살도가 있기 때문에 16세기 무렵에는 삼장보살도의 도상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일본 등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남아 있는 작품 중 연대가 오래된 석탑사 삼장보살도(1699년)나 파계사 삼장보살도(1707)마저도 도난당하여 그 소재는 불명이다. 현재로서는 1727년에 그려진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와 이 보다 1년 후인 1728년에 그려진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가 국내에서는 이른 시기의 작품이며, 불국사 삼장보살도처럼 1730년대에서 제작된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몇 점 전한다.¹⁾ 한편, 불교조각으로는 1665년에 조성된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상이 있어 남아 있다.

삼장보살도는 천상과 지상, 지하를 관장하는 상계천주(上界天主)의 천장보살, 음부계주(陰府界主)의 지지보살, 유명교주(幽冥敎主)의 지장보살과 그들의 권속을 그린 불화이며, 신앙적 근거는 수록제와 관련이 있다. 삼장보살도의 도상적 근거는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69년 간행)나 『천지명양수록제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470년 간행), 그리고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1661년 간행), 『범음산보집(梵音刪補集)』(1709년 간행) 등을 들 수 있는데, 등장하는 권속의 명칭이나 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화면을 총 7폭으로 이어 붙인 삼베 바탕 위에 진채로 그린 불화이며, 장황은 족자 형태이다. 구도는 상·하 2단 구도로 상단에는 삼장보살과 권속을, 하단에는 각각 2구의 협시를 배치한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 삼존은 넓은 수미단 위에 나란히, 거의 대등하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나, 존격에 따라 불단의 문양이나 좌대 등에서 일말의 변화를 주었다.

1) 1730년대 제작된 삼장보살도는 고성 운흥사 삼장보살도(1730년), 수다사 삼장보살도(현 홍익대 소장, 1731년) 정도로 매우 드문 편이다.



우선 본존인 천장보살은 가장자리를 6~7빛의 색 띠를 돌린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었는데, 맨 가장자리에는 금박의 흔적이 남아 있다. 머리에는 새날 개 같이 펼쳐진 관식이 있는 화려한 보관을 썼고, 귀를 타고 어깨부터 허리까지 드리워진 긴 머리카락은 머리 결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이목구비는 전반적으로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는데, 둥그스름한 얼굴형에 풀잎 같이 흰 푸른 눈썹, 흰색으로 아이라인을 넣은 감성적인 눈매, 곧은 콧대와 둥글게 굴린 콧날, 앵두처럼 작고 붉은 입술이 잘 조화를 이루며 고상한 원만상을 자아낸다. 손톱이 유난히 긴 들어 올린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엄지 쪽을 향해 손가락을 구부려 설법인을 결하였고, 왼손으로는 경책같은 지물을 잡았다. 지물을 든 천장보살은 동시기 구미와 상주지역의 삼장보살도에서 보이는 도상이다. 단정한 신체에는 어두운 남색 계통의 천의와 붉은색 치마(裙衣)를 입었다. 표면에는 흰색으로 화문과 털이 달린 홀씨문양, 쇠기문을 시문하였다. 천장보살의 대좌에는 홍련과 백련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드문 사례로 생각된다. 아마도 1726년에 제작된 실상사 지장시왕도(동국대박물관)의 지장보살의 연화좌와 같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천장보살의 무릎 아래에는 黑甲紗 두광을 갖추고 소매가 풍성한 천의를 입고 합장한 보살형의 협시가 시립하고 있는데, 『오종범음집』에 등장하

는 ‘좌보천중(左補天衆)’과 ‘우보천중(右補天衆)’을 시각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오종범음집』 이후에 간행된 자료에서는 대진주보살(大眞珠菩薩)과 소진주보살(小眞珠菩薩), 또는 대진주보살과 진주보살이 협시로 등장하고 있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등장하는 지지보살의 협시가 아직 보살형이 아닌 무장형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오종범음집』의 내용을 도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천장보살을 향해 합장한 권속들 중 천녀(天人)·천동(天童)은 여러 천중(天衆)을, 선인의 모습을 한 인물은 오통선중(五通仙衆)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면의 좌측에는 지지보살이 팔각연화좌에 앉아 오른손으로 절첩본 형태의 경책(經冊)을 잡았다. 복식은 길은 녹색의 천의와 작은 화문이 촘촘히 시문된 군의(裙衣)를 입었다. 하단에는 무장형의 인물이 협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살형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오종범음집』의 ‘좌보공중(左補空衆)’과 ‘우보공중(右補空衆)’을 대표한다.²⁾ 지지보살 주위에는 아수라, 야차 등 호법신장(護法神將)과 천녀 등이 지지보살을 에워싸고 있다. 특히 해와 달을 들고 있는 삼면 아수라 도상은 후기 삼장보살도 중에서는 가장 이른 예이다.

화면의 우측에는 왼손으로 하얀 寶珠를 들었고, 오른손은 어깨 바깥으로 들었다. 육환장은 들거나 잡지 않고 오른쪽 등에 기대어 놓았다. 육환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1724년 정수사 조계암 지장시왕도(현 전남 여수 한산사 소장)와 1730년의 고성 운흥사 삼장보살도에서 볼 수 있다. 반가한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도명과 무독귀왕이라는 일반적인 양협시를 대신하여 화살과 보검을 든 무장형의 협시를 배치시킨 점이 특색이 있다. 이러한 점은 지지회상과 좌우 대칭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며, 조선 중기의 원칙이 되살아 난 것으로 이해된다. 상단에는 시왕(十王), 판관, 옥졸, 사자, 동자 등이 묘사하였다.

천장보살상의 머리에서 발한 빛은 채운이 가득 찬 천공을 가르며 법계를 두루 비추고 있으며, 권속들 사이의 빈공간과 천공(天空)에는 색의 변화를 준 길은 녹색과 황갈색 계통의 채운(彩雲)을 넣어 상서로운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바닥은 길은 황토색으로 말끔하게 처리하여 온화한 느낌을 준다.

이 그림의 수화승인 밀기는 직지사를 중심으로 18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화승으로 그의 작품은 정수사 영산회상도(1731년)³⁾를 비롯하여 정수사 지장시왕도(1731년)⁴⁾,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불도(1742년)⁵⁾,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도(1744년),⁶⁾ 직지사 시왕도(1744년)⁷⁾ 등이 전한다. 보조화원 瑞澄 또한 직지사를 중심으로

2) 범음산보집(梵音刪補集)에는 유동보살(儒童菩薩)과 용수보살(龍樹菩薩)로 나타나며, 1766년에 그려진 천은사 대웅전 삼장보살도의 화기에는 ‘좌보 용수보살(左補龍樹菩薩)’ ‘우보 다라니보살(右補 陀羅尼菩薩)’이 명기되어 있다.

3) 현 고운사 소장. 密機는 수화원으로 참여하여 仁坦, 哲眼을 이끌고 이 불화를 제작하였다.

4) 현 고운사 소장. 密機는 수화원으로 참여하여 仁坦, 哲眼을 이끌고 이 불화를 제작하였다.

5) 수화원은 雷現이며, 密機는 碩岑과 함께 보조화원으로 제작에 참여하였다.

6) 이 불화는 수화원 世冠을 비롯하여, 神覺 密機 三玉 月印 瑞澄 性贊 舜侃 魯慧 宇平 天柱 應岑 有香 自選 湏演 謹軒 등이 참여하였다. 세관과 서경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화원으로 등장하며, 소속사찰이 직지사로 되어 있다.

로 활약한 화승으로, 그의 작품은 남장사 영산회상도(1741), 남장사 아미타설법도(1741),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도(1744) 등이 남아 있다.

[화기]

- ① 乾隆四年己未五月日」慶尙左道慶州北嶺」普賢山巨洞寺五周庵」造成畢功安于」江源道蔚珍縣西嶺天竺」山佛影寺」緣化秩」證明處澄」持殿雪元」畫員密機」彩元」瑞澄」供養主呂聰」別座彩元」化主信眼」
- ② 本寺秩」山中老衲天玉」普仁」秀還」圓俊」尙雄」時和尚크眼」三綱淨訓」處宗」書記淸眼」
- ③ 大施主秩」婆幘施主金丙戌兩主」施主金戒乞兩主」安順明兩主」崔天龍兩主」金任昌兩主」權召吏保休」金再煥保休」朴太常保休」金知衍兩主」金○山兩主」

[배면 보수기]

緣化秩」補修一九六七年丁未九月」證明比丘惠山宗現」時住持比丘碧庵東日」總務休然準教」院主一願赫俊」補修畫師寶河知竹」施主秩」蔚珍邑呂內里二區」淸信士石虎金容湜」淸信女林功德華」沈古佛心」

○ 문헌자료

金廷恩, 「朝鮮時代三藏菩薩圖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論文, 2002

이용운, 「朝鮮後期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美術資料』 72·73, 國立中央博物館, 2005

탁현규, 『조선시대 삼장탱화 연구』, 신구문화사, 2011

안전번호 동산 2017-01-006

6.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가. 심의사항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2005년)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1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2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소유자(관리자): 도림사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도림사
- 수 량: 1폭
- 규격(cm): 전체크기 287x284
- 재 질: 삼베바탕에 채색
- 형 식: 아미타여래설법군도
- 제작연대: 1730년(영조 6)
- 제작자: 彩仁, 眞行, 卽心, 覺天, 策活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8세기의 대표적 화승인 의겸의 제자들이 조성한 아미타불회도로써, 1730년에 조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인물묘사가 뛰어나며 정취한 필선과 중간

7) 제6 변성대왕도를 世冠, 神覺, 密機, 三玉, 月印, 瑞澄, 性贊이 그렸다.

톤에 가까운 채색, 안정된 화면구성 등 화승의 뛰어난 역량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인물표현에 있어 둥근 얼굴에 가는 이목구비, 다소 침울한 표정 등은 1724년 송광사 응진전 석가모니불화, 1725년 송광사 영산회상도 등 의검이 그린 일련의 불화들과 공통점을 보여주며, 존상의 구성, 묘사, 색채 구사 등에서 의검이 주도하여 제작된 감사의 삼세불도와 유사함이 많다. 18세기 전반 호남 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자 의검의 화풍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도림사 아미타불회도는 18세기 전반 호남지역 불화의 양식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화면구성이 안정되어 있고 색채감이 뛰어난 것은 물론, 존상들의 묘사가 뛰어나고 정치한 필선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특히 18세기의 대표적 화승인 ‘의검’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각 존상의 신체비례 및 상호표현, 부드러운 색채 구사, 자연스럽고 사실감 있는 필선 등에 전성기 때의 의검화풍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도림사 아미타불회도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도림사 극락전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설법도로 1730년 철매의 증명 아래 채인, 진행, 즉심, 각천, 책활 등이 제작한 것이다. 적·녹색의 강한 대비와 백색, 황토, 양녹, 갈색 등 부드러운 중간 색조의 부드러운 설채법, 유려한 필선, 중후한 이목구비를 가진 상호 등에서 1724년 송광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1725년 송광사 영산회상도 등 당대의 최고의 畫僧義謙의 화풍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아미타여래 팔대보살, 사천왕상, 아난·가섭의 양대 존자, 제적·범천, 그리고 2구의 팔금강 등 등장인물을 간소화시켜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취하고 유려한 필선과 중간 톤의 안정된 색감을 통하여 우수한 화격을 보여준다.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들간의 교류를 통한 畫脈의 전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전남 곡성 도림사의 普光殿에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극락회상도로써, 1730년에 彩仁을 비롯하여 眞行, 卽心, 覺天, 策活 등이 함께 제작하였다. 세로 287cm, 가로 284c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삼배바탕에 그려졌는데, 하단부분의 채색이 많이 박락되고 전체적으로 채색이 퇴락되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근래 시행된 보존치리로 인해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그림은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아미타팔대보살, 사천왕, 범천과 제석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팔부중 일부를 묘사한 간단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키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니고 화면 중앙 높은 대좌 위에 걸가부좌하였는데, 본존의 머리 위로는 정상계주에서 나오는 광명이 길게 渦雲文을 형성하며 좌우로 뻗어나가고 있다. 나발의 머리에는 육계가 뽕족하게 솟아있고 머리 가운데에는 넓적한 中央髻珠, 정수리에는 원형의 頂上髻珠가 장식되었다. 이와 같은 키형 광배와 높이 솟은 육계는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의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불화 역시 시대양식을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굴은 이마가 평평하며 각진 편이지만 턱부분이 둥글어 원만한 느낌을 준다. 얼굴에는 가는 선으로 이목구비가 묘사되었으며, 입이 유난히 작은 편이다. 얼굴에 비해 신체는 장대하며 오른 발을 왼발 위에 얹은 吉祥坐를 걸하고 結跏趺坐하였는데, 무릎폭이 넓어서인지 좌세가 안정감을 준다. 상체에는 裙衣를 입고 양어깨에 붉은색의 大衣를 걸쳤으며, 수인은 오른손은 어깨부근까지 올려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아 엄지와 장지를 맞댄 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아미타불의 주위로는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하여 여덟 보살이 본존을 떠받들 듯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본존의 오른쪽에는 관음보살이 머리에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베일을 쓰고 아미타불을 향해 몸을 약간 튼 채 왼손을 아래로 내려 정병을 들고 있으며, 관음보살의 맞은편에는 대세지보살이 經冊을 엮은 연꽃을 비스듬히 든 채 시립하고 있다.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뒤로는 文殊菩薩과 普賢菩薩, 金剛藏菩薩과 除障礙菩薩, 彌勒菩薩과 地藏菩薩이 짝을 이루며 좌우 대칭으로 서있다. 이 보살들은 『八大菩薩曼荼羅經』에 등장하는 팔대보살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불화에서부터 팔대보살이 아미타불의 권속으로 표현되고 있어 이 불화의 본존이 아미타불임을 확실하게 해준다.

화면 하단 좌우에는 보관 또는 털 달린 보관을 쓴 사천왕이 외호하듯 서 있다. 사천왕은 향우측에 비파를 든 천왕과 긴 칼을 든 천왕, 향좌측에는 탐과 당을 든

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이 배치되었는데, 얼굴에는 능숙한 필치로 음영이 표현되었으며, 털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화승의 솜씨가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이 불화에서 처럼 긴 칼을 든 천왕이 털 달린 투구를 쓴 모습은 청곡사 남암 아미타불도(1759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를 비롯한 동시기 아미타불도에서도 볼 수 있다. 사천왕과 팔대보살 위로는 10대제자 중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배치되었으며, 그 옆에는 범천과 제석천 및 팔부중 2구가 배치되었다. 채색은 밝은 홍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하늘색과 백색, 황색 등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파스텔톤에 가까운 설채법으로 인해 화면이 한결 부드러워 보인다.

이 불화는 彩仁을 비롯하여 眞行 卽心 覺天 策活 등이 함께 조성하였다. 수화승인 채인은 18세기 전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하던 화승으로, 義謙畫派를 대표하는 화승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722년 진주 청곡사 패불 조성시 의검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하여 1723년 여수 홍곡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와 응진전 십육나한도, 1724년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25년 송광사 응진당 영산회상도 등을 함께 조성하였으며, 1730년에는 경남 고성 운흥사 대웅전 삼불회도(약사회도), 대웅전 관음보살도, 대웅전 감로왕도, 패불을 함께 조성하는 등 오랫동안 스승 의검을 따라 의검화파로 활동하였다. 채인과 함께 도립사 아미타불회도를 제작한 진행·즉심·각천·책활 또한 송광사·선암사·홍곡사의 불사에 함께 참여했던 화승들이다. 채인과 즉심은 1723년 홍곡사, 1724년과 1725년의 송광사 불화제작 때 의검을 수화사로 모시고 함께 작업을 하였으며, 眞行과 覺天은 1730년 운흥사 패불 조성에 참여하였다. 또 채인, 덕민, 지원, 각천, 책활 등은 같은 해(1730년) 갑사 삼세불도 조성시에도 의검과 함께 활동하였다.

[화기]

雍正八年庚戌二月日 谷城道寺法堂後佛彌陀幀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 衆生 皆共成佛道 大禪師慧察 寂明 暢益 縛鵬 山中老德 三訥 靈閑 淨肅 明勝 惠英 致堅 海均 大仁 緣化秩 證明哲梅 持殿懷晶 道海 畫員彩仁 眞行 卽心 覺天 策活 住持性一比丘 前住持灵贊 前住持天順 三綱秩 萬澄 順己 達初 供養主斗明 妙淳 尙云 俊海 別座演岑 化主禪悟 施主秩 佛像大施主呂聖觀 兩主 基布大施主比丘演岑 比丘太寔 供養大施主比丘神贊 化主幸元比丘性一 兩主 比丘海文 金○山 比丘智還 金尙立 比丘灵贊 徐正命 比丘天順 李漢長 大憲比丘 幻學柳 命佐 灵玄比丘 克燭比丘 體岑比丘 換敏比丘 太敏比丘 義岑比丘 忠彦比丘 比丘海澄 呂望 崔德才 朴再元 崔自萬 吳熙伯 徐漢柱 金上立 金振位 金氏良 呂德弼 李守昌 朴世初 崔祚石 李石文 氷萬珠 施主 金德輔 兩主 車豪傑 兩主

□

○ 현 상

보광전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으며 수년 전의 수해로 부분적인 손상흔적은 어느 정도 엿보이나, 최근의 보존처리로 현재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곡성 도립사 普光殿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회도로서, 세로 287cm 가로 284c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삼배마당에 그려졌다. 수년 전의 수해로 말미암아 하단부분의 채색 박락과 퇴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현재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화면 중앙부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위시한 팔대보살상, 사천왕상, 제석천과 범천상,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 팔금강 중 일부를 그린 군도형식으로서는 비교적 간단한 구성을 보인다.

본존불인 아미타불상은 키 모양의 머리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하고 높은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좌상으로, 머리 위쪽으로는 정상계주로부터 뻗어나오는 瑞氣를 渦雲紋을 형성하며 좌우로 길게 표현하였다. 머리에는 육계가 팽이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으며 이마 위쪽 머리 중앙부와 육계 정상에는 中央髻珠와 頂上髻珠가 마련되어 있다.

이 불화에서 보는 키 모양 광배와 팽이처럼 솟아 오른 육계는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의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양식특징으로, 도립사 아미타불회도 역시 이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얼굴은 턱이 각지지 않고 둥글어져 원만상으로 이목구비 묘사가 단정하였는데 입은 다소 작게 표현하였다. 오른 발을 왼 무릎 위에 얹은 吉祥坐로 結跏趺坐하였는데, 무릎이 넓어 안정감이 있다.

두 손 중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下品中生印을 지었다.

법의는 오른 팔이 드러난 변형된 우견편단 형의 적색 대의에 녹색 상의와 裙衣를 착용하였다.

연하늘색의 대의 단에는 연화당초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몸체에는 구름문양이 안쪽에 그려진 둥근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상의에는 문양이 남아 있지 않으나 군의 단에는 모란문이 흰 선으로 표현되었다.

본존불상 주위로는 좌우협시상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비롯하여 팔보살상이 본존을 에워싸듯 둥글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위 상단부로는 제석천과 범천상,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 2위의 팔금강상이 자리하고 있다. 8보살상 중 본존불 좌측의 관음보살상은 본존불을 향해 몸을 약간 틀쳐 化佛이 안치된 보관을 쓰고 왼손을 아래로 내려 정병을 들고 있으며 투명한 긴 베일을 쓰고 있다. 관음보살상과 대칭으로 우측에 서있는 대세지보살상은 위에 經冊을 얹은 연꽃가지를 오른 어깨에 비껴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 뒤로는

밀교계 경전인 『八大菩薩曼荼羅經』에 등장하는 팔대보살 중 文殊菩薩像과 普賢菩薩像, 金剛藏菩薩像과 除障礙菩薩像, 彌勒菩薩像과 地藏菩薩像 여섯 상이 좌우 대칭으로 서있다. 이들 팔대보살상은 고려 불화에서부터 아미타불상의 권속으로 표현되고 있어 이 불화의 본존불이 아미타불상임을 알게 해준다.

화면 하단으로는 좌우에 2위씩 사천왕상이 외호하고 있는데 좌측(향좌측)에는 비파(북방천왕)와 검(동방천왕)을 든 2위의 천왕상이 있으며, 우측(향좌측)에는 용과 여의주(남방천왕) 및 당과 탑(서방천왕)을 든 2위의 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얼굴에는 능숙한 필치의 음영법이 구사되어 있으며 정교하고 치밀한 세부 묘사로 화승의 솜씨가 돋보인다.

색채는 밝은 홍색과 연녹색이 주조색을 이루며 연하늘색과 갈색 등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화면을 연출하여 색채감이 뛰어난을 볼수 있다.

화기 중 ‘雍正八年庚戌二月日 谷城道寺法堂後佛彌陀幀…畫員 彩仁 眞行 卽心 覺天 策活…’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1730년 彩仁아 수화승을 맡아 ‘卽心 覺天 策活’을 참여시켜 조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채인’은 1722년 조정의 진주 청곡사 패불도를 시작으로 ‘義謙’과 함께 1723년의 여수 흥국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와 응진전 십육나한도, 1724년의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25년의 송광사 응진당 영산회상도, 1730년의 고성 운흥사 대웅전 삼불회도(약사회도), 대웅전 관음보살도, 감로왕도, 패불도 등을 조성하는 등 18세기 전반 전라도와 경상도를 주 무대로 활약하였던 義謙畫派의 대표 화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 화승으로 참여한 ‘진행, 즉심, 각친, 채활’ 또한 송광사·선암사·흥국사의 불사에 함께 참여했던 화승들이다. 이들 가운데 ‘즉심’은 ‘채인’과 함께 1723년 흥국사, 1724년과 1725년의 송광사 불화제작 때 참여하였으며, ‘진행’과 ‘각친’은 1730년 운흥사 패불도 조성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채인, 각친, 책활’은 1730년 공주 갑사 대웅전의 삼세불도 조성 시에도 ‘의겸’과 함께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書記】

雍正八年庚戌二月日 谷城道寺法堂後佛彌陀幀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大禪師 慧察 寂明 暢益 縛鵬
山中老德 三訥 靈閑 淨肅 明勝 惠英 致堅 海均 大仁
緣化秩
證明 哲梅
持殿 依晶 道海
畫員 彩仁 眞行 卽心 覺天 策活

住持 性一比丘

前住持 靈賛

前住持 天順

三綱秩 萬澄 順己 達初

供養主 斗明 妙淳 尙云 俊海

別座 演岑

化主 禪悟

施主秩

佛像大施主 呂聖觀 兩主

基布大施主 比丘演岑 比丘太寔

供養大施主 比丘神賛

化主 幸元 比丘性一

兩主 比丘海文

金說山 比丘智還

金尙立 比丘靈賛

徐正命 比丘天順

李漢長 大憲比丘

幼學 柳命佐 靈玄比丘

克燭比丘

體岑比丘

哲敏比丘

太敏比丘

義岑比丘

忠彦比丘

施主 金德輔 兩主

車豪傑 兩主

比丘海澄

呂聖望

崔德才

朴再元

崔自萬

吳熙伯

徐漢柱

金上立

金振位

金氏小良

呂德弼
李守昌
朴也初
崔補石
李石文
氷萬珠



○ 조사내용

1730년 도림사의 주범당인 보광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아미타여래설법도이며, 9폭의 삼베를 이어 붙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제작에는 山中老德 三訥, 證明 哲梅, 基布大施主 演岑, 化主 幸元, 등 많은 사부대중들이 緣化施主로 참여하였고, 모든 중생이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다. 畫員은 채인, 진행, 즉심, 각친, 책활 등 5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다. 장황의 형태는 액자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반달의 상축과 둥근 하축이 달려 있는 전통 족자형태의 장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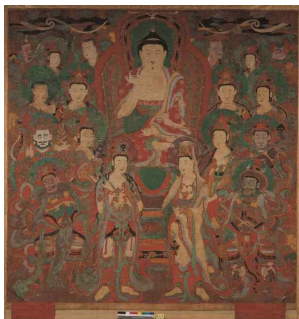


그림 1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그림 2 좌측부분



그림 3 우측부분

화면의 구성은 극락세계의 주존인 아미타여래를 화면 중앙에 크게 묘사하고, 그를 에워싸고 양대 협시보살을 비롯한 8대보살과 제석·범천, 아난·가섭, 사천왕상, 팔금강 중 2구를 배치하였다. 아미타여래는 붉은색 가사를 변형 편단우견식으로 걸쳐 입고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하였고, 등 뒤로는 꽃잎 두 장을 겹쳐 만든 키형 거신 광배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얼굴은 콧날이 큼직하여 중후한 인상이며, 뽕족하게 솟구친 육계 위에는 구슬 모양의 계주와 머리와 육계의 경계 부에는 초승달모양의 중앙계주를 나타내었다. 수인은 설법인을 지었으며, 붉은색 가사의 표면에는 구름을 그려 넣은 원문을, 옷깃에는 모란과 초화문 등을 시문하

여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전반적인 상호의 표현은 의겸의 화풍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존불의 무릎 바로 아래에는 양대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하였는데, 관음은 백의를 걸쳐 입은 백의관음으로 표현하였다. 관음의 보관에는 입상의 화불을 나타내었으며, 내린 왼손으로 정병을 잡았다. 대세지보살상은 연꽃을 들고 머리에는 보병을 나타내었다. 본존불의 주변으로는 좌우에 각각 3구의 보살상은 모두 화려한 관을 쓰고 녹색을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각자의 지물을 들었다. 최상단에 배치된 가섭과 아난은 서로 고개를 돌려 탄청을 피우듯 해학적 으로 표현되었으며, 질푸른 하늘에는 부처님의 계주에서 뻗어 나온 두 줄기 상서로운 빛이 彩雲을 가르고 있다. 회상을 옹호하는 사천왕상은 화면의 아래쪽 모퉁이에 각각 2구씩 상·하로 배치되었는데,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북·동·서·북으로 배치되었다. 북방 다문천왕은 비파를, 동방 지국천왕은 보검을, 남방 광목천왕은 용을, 서방 광목천왕은 보탑을 들어 조선시대 사천왕문의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표현된 본존불과 좌우협시, 사천왕상은 운홍사 아미타설법도(1730년), 갑사 삼세불도(아미타설법도, 1730)의 자세와 동세, 구도 등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의겸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속에, 갈색, 황토, 백색, 등 중간 톤의 색을 강조색과 간색으로 편안하게 사용하여 온화한 화취를 풍긴다. 인물은 대체로 살집이 많아 중후한 맛을 주며,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권속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한 구도는 흐트러짐 없이 짜임새가 있으며, 필선은 주저 없이 유려하여 세련된 선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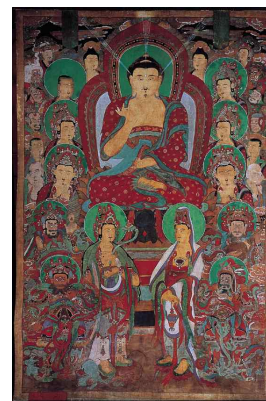


그림4 갑사 아미타설법도(1730)



그림 5 운홍사 아미타설법도(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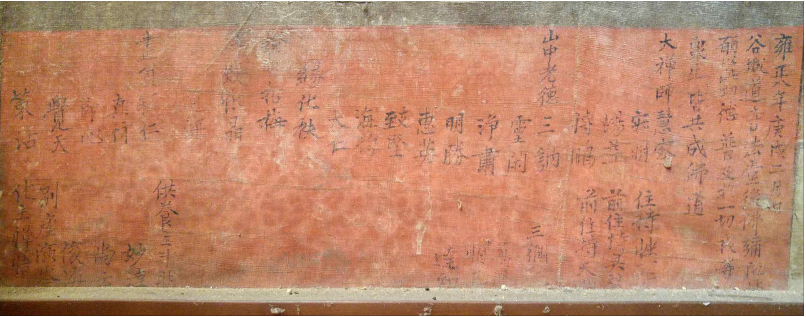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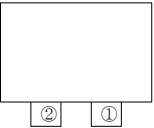
이 그림을 주도한 채인과 즉심은 1723년 홍국사와 1725년 송광사 불화 제작 때 의겸을 수화사로 모시고 함께 작업을 한 대표적인 의겸파 화원이며, 진행과

각천은 1730년 운흥사 괘불 조성 때 의검을 도와 참여하였다. 또한 의검을 비롯 해 채인, 덕민, 지원, 각천, 책활 등은 같은 해 갑사의 삼세불도를 함께 제작하였을 만큼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갑사의 삼세불도의 제작 의도와 달리 단독의 후불벽에 걸기 위해 조성된 불화로, 갑사의 삼세불도 보다 좌우 폭이 넓어졌으나, 인물의 표현이나 구성, 묘선, 색채, 문양 등 도상이나 양식의 면에서 의검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갑사의 삼세불도와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최고의 화승 의검의 화풍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승되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채인, 즉심 등도 의검 못지 않게 18세기 불화 화단에 무게감 있는 화승들임에 틀림없다.

谷城 道林寺 普光殿 阿彌陀後佛幀(1730.2)

* 2016.1.28. 古鏡 修正(金臺台 寫眞 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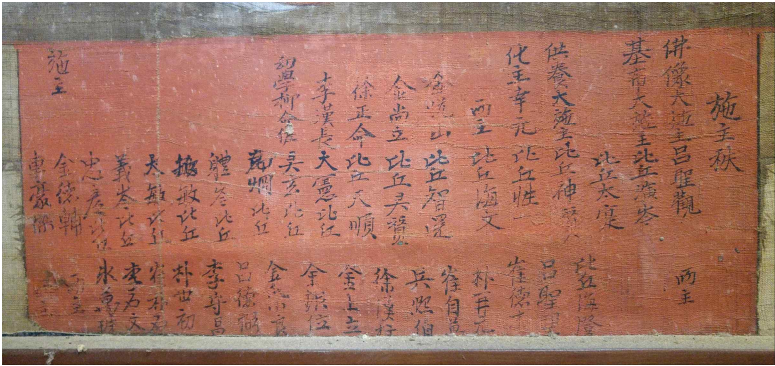
①



雍正八年庚戌二月日
 谷城道(林)寺法堂後佛彌陀幀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
 衆生 皆共成佛道
 大禪師慧察
 寂明 住持性一比丘

暢益	前往持灵簀
搏 ⁸⁾ 鵬 ⁹⁾	前往持天順
山中老德 三訥	三綱秩
靈閑	萬澄
淨肅	順己
明勝	達初
惠英	
致堅	
海均	
大仁	
緣化秩	
證明哲梅	
持殿依晶	
道海	供養主斗明
畫員彩仁	妙淳
眞行	尙云
卽心	俊海
覺天	別座演岑
策活	化主禪悟

②



8) 국립광주박물관, <국성군의 불교유적>(2003)에는 '縛'으로 표기. 조선대 안동교교수 조선대 이계표선생, 전남대 황호균실장은 '搏'으로 판독. '搏鵬' : <장자> 책에 나오는 '나래를 쳐서 구만리를 나르는 봉새처럼'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음(안동교교수)
 9) 전남대 황호균 실장은 '鵬'로 판독

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가. 심의사항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9.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2016년 6차 회의(12.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6.12.29~’17.1.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책(71장)
- 규격(cm): 半郭21.6×15.5(26.1×19.5)
- 재 질: 고정지(蒙精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線裝)
- 제작연대: 1467년(세조 1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施主秩	
佛像大施主呂聖觀	兩主
基布大施主比丘演岑	比丘海澄
比丘太寔	呂聖望 ¹⁰⁾
供養大施主比丘神簀	崔德才
化主幸元 比丘性一	朴再元
兩主 比丘海文	崔自萬
金悅 ¹¹⁾ 山 比丘智還	吳熙伯
金尙立 比丘灵簀	徐漢柱
徐正命 比丘天順	金上立
李漢長 大憲比丘	金振位
幼學柳命佐灵玄比丘	金氏小良
克燭比丘	呂德弼
體岑比丘	李守昌
哲敏比丘	朴也初
太敏比丘	崔补石
義岑比丘	李石文
忠彦比丘	氷萬珠
施主 金德輔	兩主
車豪傑	兩主

10) ‘閔’으로도 보이거나 인명은 ‘聖望’으로 보아야 함.
11) 국립광주박물관, <곡성군의 불교유적>(2003)에는 ‘□’으로 표기. 조선대 안동교교수와 전남대 황호균실장은 ‘愜’으로 판독

조사대상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조선 세조조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 불서의 하나이다. 이 책은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책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 불서의 하나이다. 간행당시 인출한 초인본인데다 원문이 손상되지 않고, 전장(全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 지정본과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훈민정음의 원형과 변화과정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諺解本) 불서가운데 하나이다. 초인본(初印本)으로 결락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사는 물론 국어사를 위한 연구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쓰여진 한글 글자의 자형은 사각형이고 필획의 기본 방향이 수직, 수평, 대칭 사항을 이루고 있고, 또한 순경을 ‘빙’이 사용되고 있어 초기 국어사 연구를 위한 중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 개장. 원문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함.

△ 書誌事項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德異(元) 著; [信眉(朝鮮)] 譯解

木板本(刊經都監). [世祖 13年(1467)]. 不分卷 1冊(71張) : 四周雙邊 半郭 21.6 × 15.5 cm, 有界, 8行17字, 內向黑魚尾 ; 26.1 × 19.5cm

版心題: 法語

○ 내용 및 특징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언해)은 원나라의 몽산화상(蒙山和尚)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인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은 우리말로 언해한 책이므로 한문본과 구분하여 보통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라고 부른다.

이 판본의 간행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은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의 법어인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충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6편이다. 이외에 권수제 아래의 “普濟尊者法語附”와 같이 고려 말의 승려인 나옹(懶翁)화상 혜근(惠勤:1320~1376)이 좌선 및 간화선 수행법을 설명한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를 덧붙이고 있다.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이 판본은 초기 한글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게 평가받아 현재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기 지정된 본은 간행당시 인출한 초인본과 5년 뒤인 성종 3년(1472)에 인출한 후인본 등으로 나뉜다. 후인본의 구분은 성종 3년(1472)에 간본인 후인본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기 지정본중 제767호·제768호·제1172호 등 3종은 세조 13년(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 김수온의 발문이 있는 제769호·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1472)년에 인출된 후인본이다. 따라서 발문이 달려있지 않은 조사 대상본은 세조 13년(1467)에 인출된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이 책을 역해한 신미는 본명이 김수성(金守省)으로 김수온(金守溫)의 친형이다. 1461년 6월에 간경도감이 설치된 후 훈민정음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이 책과 함께 《법화경》, 《반야심경》, 《영가집》 등을 언해하였고, 또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등을 교정하여 간행하는 등 佛典의 국역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 현 상 : 개장 배접되었으나 원문은 손상이 없음(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德異(元) 著; [信眉(朝鮮)] 譯解
木板本(刊經都監)
[世祖 13年(1467)]
不分卷 1冊(71張) : 四周雙邊 半郭 21.6 × 15.5 cm, 有界, 8行17字, 內向黑魚尾 ; 26.1 × 19.5cm
版心題: 法語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원나라의 몽산화상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인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권수제는 『몽산화상법어약록』으로 되어 있으나 이 판본은 우리말 역해본이기 때문에 한문본과 구분하여 보통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라고 일컫는다.

몽산화상 덕이는 임제종 계통의 승려로 그의 법어집뿐 아니라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 등도 우리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이후 그의 저술은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역해한 신미는 본명은 김수성(金守省)으로 유생이면서도 승불을 주장했던 김수온(金守溫)의 친형이다. 1461년 6월에 간경도감에 설치된 후 훈민정음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이 책과 함께 『법화경』, 『반야심경』, 『영가집』 등은 언해, 또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 등은 교정하여 간행하는 등 당시 불전의 국역과 유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승려이다.

이 판본의 간행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이 책을 역해한 신미가 이 책뿐 아니라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등도 역해하였는데, 이 『목우자수심결』이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이후 유점사(1521), 석륵암(1523), 심원사(1525), 중대사(1543), 고운사(1517), 빙발암(1535), 송광사(1577) 등에서 간행되는 등 언해본과 한문본을 합해 십 여종이 간행되었다.

내용은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의 법어인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충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6편이 있다. 이외에 권수제 아래의 “普濟尊者法語附”와 같이 고려 말의 승려인 나옹(懶翁) 화상 혜근(惠勤, 1320~1376)이 좌선 및 간화선 수행법을 설명한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를 덧붙여 놓았다.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이 판본은 초기 한글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여겨 <표1>과 같이 현재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5종은 다시 간행당시 인출한 초인본과 그 5년 뒤인 성종 3년(1472)에 인출한 후인본 등으로 구분된다. 초인본과 후인본의 구분은, 성종 3년(1472)에 인출된 후인본은 김수온의 발문이 권말에 붙어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수온 발문의 유무를 근거로 삼아, 제767호 · 제768호 · 제1172호 등 3종은 세조 13년(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 제769호 · 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1472)년에 인출된 후인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발문의 유무를 근거로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판본은 세조 13년(1467)에 인출된 초인본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김수온 발문의 유무 외에 초인본과 후인본의 구분은 <사진1>과 같이 권수제면의 역해자 표시의 유무도 있다. 곧 동일한 판본인데도 권수제면 제3행에는 “慧覺尊者信眉譯解”와 같은 역자표시가 있는 것이다. 이 역자표시는 성종 13년(1472)에 후인할 때 새로 삽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역자표시가 있었다면, 후인할 때 발문을 썼던 김수온의 친형이자 역해자인 신미를 일부러 없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처음 간행할 때 없었던 역해자 표시를 후인할 때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조 13년(1467)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우자수심결』의 제3행에 “慧覺尊者譯”이라는 역자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도 간행당시 없었던 역자표시를 후인할 때 제3행에 삽입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삽입 방식은 초인본의 해당부분에 역해자표시를 새겨 매목(埋木)을 하였거나 아니면 권수제면인 첫째 장만을 다시 새겨 편입하였을 것이다. 현재 사진으로 보면 후자의 방식, 곧 첫째 장만을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기 지정본들의 해당 면을 정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표1>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보물지정본과의 대비

구분	지정번호 (지정연월)	지정명칭	간행년	譯者 표시 유무	발문 유무	소유자(단체)
1	제767호 (1984.5.30)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	[세조 13년 (1467)]	유	무	동국대학교도서관
2	제768호 (1984.5.30)	상동	[세조 13년 (1467)]	무	무	한제원
3	제769호 (1984.5.30)	상동	성종 3년 (1472)	유	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	제1012호 (1989.8.1)	상동	성종 3년 (1472)	무	유	자비사
5	제1172호 (1993.9.10)	상동	[세조 13년 (1467)]	무	무	호림박물관
6	지정검토	상동	[세조 13년 (1467)]	무	무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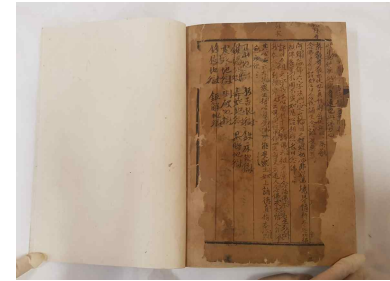
2003년에 송성문이 기증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 판본은 고정지에 인출되어 있는 등 세조 때의 인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전장(全張)이 배접되었고, 개장 중에 상하를 약간 절단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의 제 70-71장의 판심이 손상되었다는 흠결은 있다. 그러나 원문이 손상되지 않았고, 또 기 지정본에 비해 우등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1>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기 보물지정본의 권수제면의 역자표시

1	제767호		4	제1012호	
2	제768호		5	제1172호	
3	제769호		6	국박	

□

○ 현 상 : 표지는 새로 개장되었고, 본문도 전체 배접 처리되었다. 보존상태는 매우 좋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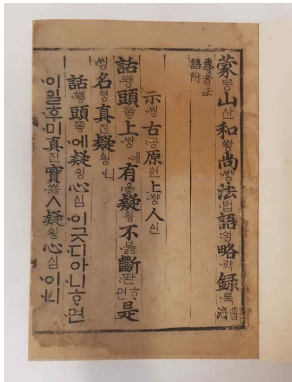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원나라의 몽산화상 덕이(德異, 1231~?)의 법어 중 고려 승려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가 초록한 6편의 법어와 보제존자 자신의 법어 1편을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한글로 구결을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의 승려로서 그의 저술은 우리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 초기이후 그의 저술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저술 가운데 하나인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六道普說)』은 현재 중국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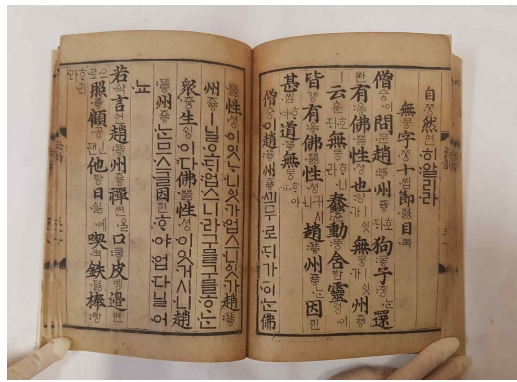
신미(信眉)는 조선 세조대 활동했던 스님으로 시호는 혜각존자(慧覺尊者)이다. 본명은 김수성(金守省)으로 본관은 영동(永同)이다. 아버지는 옥구진(沃溝鎭) 병사였던 김훈(金訓)이며, 동생은 김수온(金守溫)이다. 문종대에 선교도총섭(禪敎都摠攝)이 되었고, 세조대에는 해인사 대장경의 간행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1461년 6월에 왕명으로 설치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범화경』·『반야심경』·『영가집(永嘉集)』 등의 언해 그리고 함허(涵虛)의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교정 간행에도 참여하였다.

조사본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 3년(1472)에 인출된 후인본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권말에 붙어있는데 이 책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467년(세조13) 간행된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의 역해자로서 신미의 이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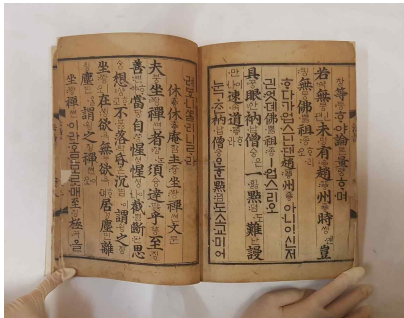
내용은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의 법어인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충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6편과 고려 말의 승려인 나옹 혜근(懶翁惠勤)의 좌선 및 간화선 수행법을 설명한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등 7편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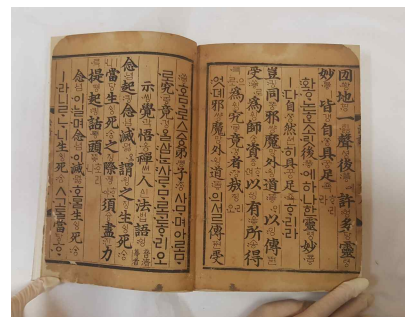
권수제



無字十節目



休休庵主坐禪文



示覺悟禪人法語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불교사는 물론 국어사를 위한 연구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쓰여진 한글 글자의 자형은 사각형이고 필획의 기본 방향이 수직, 수평, 대칭 사항을 이루고 있고, 또한 순경음 ‘ங’이 사용되고 있어 초기 국어사 연구를 위한 중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지정사해

- 보물 제767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동국대학교 도서관, 1984.05.30)
- 보물 제768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한제원, 1984.05.30)
- 보물 제769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05.30)
- 보물 제1012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자비사, 1989.08.01)
- 보물 제1172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호림박물관, 1993.09.10)

○ 문헌자료

- 김무봉,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의 국어사적(國語史的) 고찰(考察), 동악어문논집 제28집, 1993.12.
- 권화숙,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와 〈蒙山和尚六道普說諺解本〉의 비교 연구」, 언어와 언어학 35, 2005.2,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안전번호 동산 2017-01-008

8.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淳化)4년명 항아리’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237호 ‘순화 4년명 항아리’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5.2cm
- 재 질 : 도자기
- 제작연대 : 993년(고려 성종 12)
- 지 정 일 : 1963. 1. 21.
- 문화재내용 : 항아리 굽바닥에 「순화사년계사태묘제일실향기장최길회조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음각명(陰刻銘)이 있어 제작년도와 용도를 알 수 있는 고려 도자사의 중요한 편년 자료이다. 유약은 황록색의 회유(灰釉) 계통이며 태토는 회색이다. 1992년 황해남도 원산리 요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청자를 제작한 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고 「순화삼년淳化三年」명 등의 도편이 출토된 바 있어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라. 현 상태

구연과 동체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던 것을 과거에 보존처리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접착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보존 처리 당시 붙였던 항아리 내부의 테이프와 변색이 진행되고 있는 접착제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원형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우 희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며, 무르고 기벽이 얇은 편이어서 보존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237호 ‘순화 4년명 향아리’의 보존처리 및 복원 작업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며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물리적 파손 방지 및 원형 보존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구조적 진단 실시 (제원조사, 사진촬영, X-ray, 자외선 촬영 등)
 - 3D 실측을 통한 자료 기록
- 해체
 - 접착제 성분을 파악하고 용제 테스트 실시
 - 선택 용제를 사용한 편 해체 작업을 실시함
 - 모든 과정은 사진 및 기록으로 남김
- 세척
 - 편 가장자리의 먼지 등 오염물을 제거함
 - 유물의 표면 및 고착 오염물의 상태에 따른 세척 실시
- 편접합
 - 해체를 통해 분리된 편은 표면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접합
 - 접착제의 경화 시간을 고려하여 클램프 및 지지체로 고정
 - 접착제로는 내황변 에폭시를 사용함
- 결손부 복원
 - 파라핀 왁스로 곡면이 유사한 부분을 본 떠 틀을 만들
 - 왁스 틀을 결손부 부위에 덧대고 물리적 강도가 우수한 고점도 에폭시로 형태를 만들
- 색맞춤
 - 원표면과 유사하게 색맞춤을 함
 - 색맞춤 재료는 아크릴계 미디움과 무기안료를 조색함
- 보존처리 전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9.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49.5cm, 동경: 38cm
- 재 질 : 도자기
- 제작연대 : 고려시대
- 지정일 : 1965. 4. 1.
- 문화재내용 : 경기도 개성시 고려동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이다. 등나무로 엮은 의자 모양을 투각하여 실용할 수 있는 좌대를 만든 것으로, 당시 청자 소성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작이다. 윗면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부안 유천리 가마터와 진도 용장성, 보령 원산도 해저에서 이와 유사한 파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출토지가 분명하며 유사한 예가 드문 귀한 자료이다.

라. 현 상태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동체 중앙 활모양 투각대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파손된 부분의 파편은 없는 상태이며, 그 아래 국화문대의 일부 역시 파손되어 관리상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형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지가 분명하며 유사한 예가 드문 귀한 자료로서 보존 전문 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416호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보존처리 및 복원 작업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며 관리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물리적 파손 방지 및 원형 보존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구조적 진단 실시 (제원조사, 사진촬영, X-ray, 자외선 촬영 등)
 - 3D 실측을 통한 자료 기록
- 해체
 - 접착제 성분을 파악하고 용제 테스트 실시
 - 선택 용제를 사용한 편 해체 작업을 실시함
 - 모든 과정은 사진 및 기록으로 남김
- 세척
 - 편 가장자리의 먼지 등 오염물을 제거함
 - 유물의 표면 및 고착 오염물의 상태에 따른 세척 실시
- 편집합
 - 해체를 통해 분리된 편은 표면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집합
 - 접착제의 경화 시간을 고려하여 클램프 및 지지체로 고정
 - 접착제로는 내황변 에폭시를 사용함
- 결손부 복원
 - 3차원 실측 자료를 토대로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손부 역설계 실시
 - 역설계된 결손부는 3차원 프린트로 형태를 만든 후 2차 가공하여 복원함
- 색맞춤
 - 원표면과 유사하게 색맞춤을 함
 - 색맞춤 재료는 아크릴계 미디움과 무기안료를 조색함
- 보존처리 전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아대학교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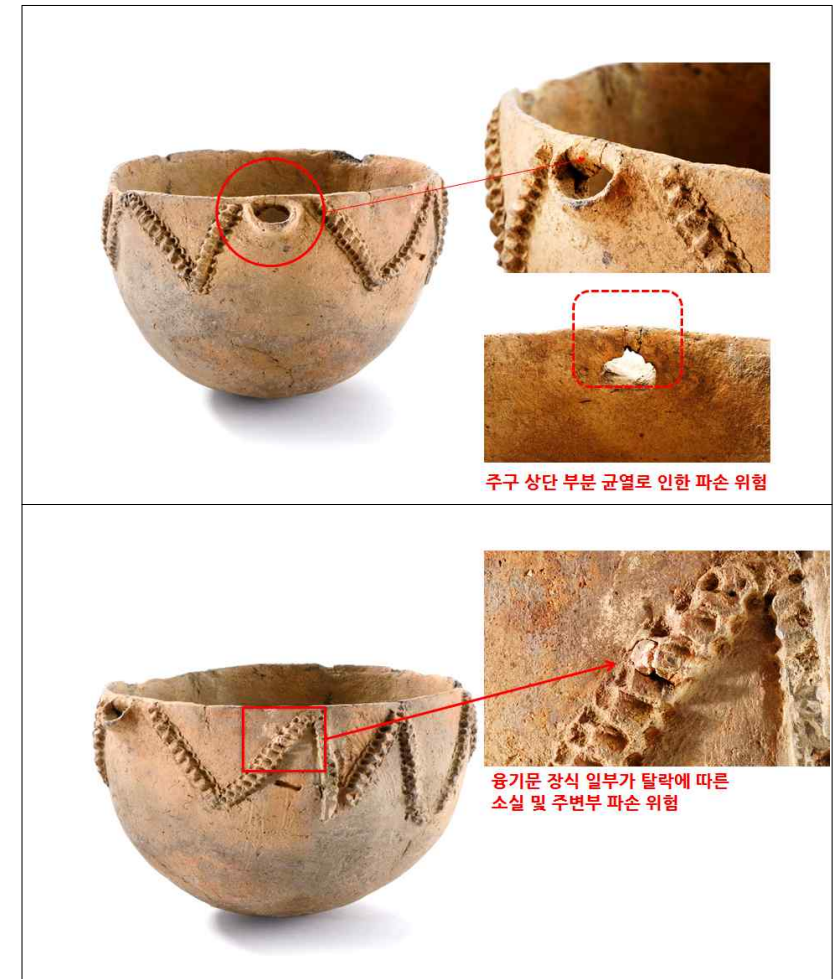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량 : 1점
- 규격 : 입지름 16.2cm, 높이 12.2cm
- 재질 : 토기
- 제작연대 : 선사시대(신석기시대)
- 지정일 : 1975. 5. 16.

○ 문화재내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패총(瀛仙洞貝塚) 유적에서 출토된 매우 특징 있는 토기이다. 이 토기의 특징은 아가리 한 쪽에 짧은 주구(注口)가 부착되어, 내용물을 담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아가리 밑으로 용기된 장식 무늬가 있다는 점이다. 장식무늬는 덧띠문(점토대)을 W자형으로 붙인 뒤, 이 덧띠문을 띠모양으로 눌러 눈금을 새겨 장식효과를 높이고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황갈색을 띠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검은색을 띤다.

라. 현 상태

주구부에 균열이 있고 용기문 장식 한 곳이 탈락되어 파손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존처리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보존 관리 시 파손 위험이 존재한다. 우선 주구 균열 부위와 용기문 장식 부분에 대해서 접착 및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우 희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며, 보존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의 보존처리 및 복원 작업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며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물리적 파손 방지 및 원형 보존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구조적 진단 실시
(제원조사, 사진촬영, X-ray, 자외선 촬영 등)
 - 3D 실측을 통한 자료 기록
- 편집합
 - 주구부 균열 편 및 용기문 장식 부분은 표면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접합
 - 접착제로는 가역성이 우수한 Paraloid B72를 사용
- 틈메움 복원 및 고색맞춤
 - 편 접합 후 틈메움은 단차 없이 복원하며 가역적 재료인 PolyFix를 사용
 - 색 맞춤은 아크릴계 미디움과 무기안료를 조색하여 원 표면과 유사하게 처리
- 보존처리 전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 11. 30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전번호 동산 2017-01-011

11.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균열 및 결손 등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립중앙박물관(국유)
- 수량 : 1구
- 규격 : 전체높이 80cm
- 재질 : 금동
- 제작연대 : 삼국시대(6세기 후반)
- 지정일 : 1962.12.20.
- 문화재내용 :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보살상의 모습이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한 것으로,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상으로 확립되었다.
머리에 쓰고 있는 화려하고 높은 관(冠)은 해와 초승달 모양이 결합된 특이한 형식으로 일월식보관(日月飾寶冠)이라고도 한다. 입가에는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반가좌의 자세, 몸 앞에서 교차된 천의자락과 허리 띠의 율동적인 흐름은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주조 기법은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식(中空式)이며, 금동불로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2~4mm에 지나지 않는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

라. 현 상태



그림 3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앞면 손상부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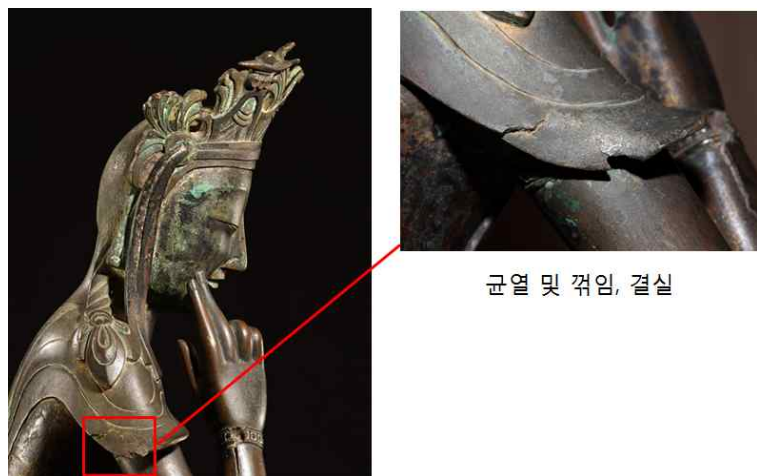


그림 3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오른쪽 어깨 손상부 세부

○ 과거 보존처리 이력

- 기간 : 2007년 8월 31일~11월 30일
- 보존처리 내용 : 좌우 하단 옷자락 두 곳의 복원, 분리된 좌측 옷자락 편 집합



그림 34. 복원부 및 집합부 현황

마. 현상변경 내용

- 보관부와 옷자락, 좌측 발받침 부위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부의 접합과 보강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과학적 조사를 통해 유물의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 이물질 제거 및 안정화처리
 - 표면 부식을 유발하는 부식물과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 부식진행 억제를 위한 금속의 안정화 처리 실시
- 균열부 안정화
 - 보관부와 우측 어깨 옷자락, 왼쪽 발받침 등의 취약한 균열부에 대한 접합과 보강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 5. 31.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안전번호 동산 2017-01-012

12. 2017년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의사항

2017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허가사항 심의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임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중 원형보존 등을 위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상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립니다
- 2) 또한 2017년 대상사업 개별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 및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등 54건[붙임 1]

2) 사업추진방법

- 문 화 재 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총액 4,207,621천원/ 국비 2,945,335천원, 지방비 1,262,286천원)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진행
- 해당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자문회의는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 개최)
- 사업계획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 후 사업 시행(소위원회 운영)
- 사업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추진

붙임 1.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1부

[붙임 1]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관악구	국보 151-1	조선왕조실록 정축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정축 산 사고본 및 기타 산엽본 보존관리 종 합조사연구(3년차)	140,000	60,000	200,000
2	서울 관악구	국보 303	승정원일기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168,000	72,000	240,000
3	서울 관악구	국보 306-2	삼국유사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41,860	17,940	59,800
4	서울 관악구	보물 1463-3	용비어천가 권1~2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19,040	8,160	27,200
5	서울 관악구	보물 849	곤여만국전도	보존처리 계획 수립 및 기록화사업	21,000	9,000	30,000
6	서울 서대문구	보물 1539	봉래유묵	보존처리, 보관상자 및 포갑 제작	17,500	7,500	25,000
7	서울 서대문구	보물 352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14,000	6,000	20,000
8	서울 성북구	국보 2491	동궐도	보존처리 계획수립 및 기록화사업	21,000	9,000	30,000
9	서울 은평구	보물 1580	서울 수국사 목조아 미타여래좌상 및 복 장유물	복장유물 종합학술 조사, 보존상태 진단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10	서울 종로구	보물 703-2	장승범수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11	서울 중구	국보 209	보협인석탑	석탑 기록화 및 학 술조사, 석탑 해체 복원 및 보존처리	29,680	12,720	42,400
12	서울 중구	국보 212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	보존처리, 보관상자 및 포갑 제작	41,720	17,880	59,600
13	서울 중구	보물 1009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보존처리, 골게말이축 및 보관상자 제작	9,310	3,990	13,300
14	서울 중구	보물 523-2	석보상절 권23, 24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15	서울 중구	보물 719	원각류해 권3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16	서울 중구	보물 720-1	금강반야경소론찬 요조현록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7	서울 중구	보물 740	감지은니보살선계경 권8	보존처리 계획수립 및 기록화사업	14,000	6,000	20,000
18	서울 중구	보물 741	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납석사리호	보존처리	5,020	2,151	7,171
19	서울 중구	보물 762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 권7, 8	보존처리, 보관상자 및 포갑 제작	14,000	6,000	20,000
20	서울 중구	보물 76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보존처리	10,500	4,500	15,000
21	서울 중구	보물 774-1	선종영가집(언해)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22	서울 중구	보물 895	제왕운기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23	서울 중구	보물 898	조흡 고신왕지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4,340	1,860	6,200
24	서울 중구	보물 899	조흡 사패왕지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4,270	1,830	6,100
25	서울 중구	보물 948-1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 권3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26	대구 달서구	보물 1802	대구 보성전원 목조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종합학술조사	56,000	24,000	80,000
27	대구 달서구	보물 1802	대구 보성전원 목조 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보존처리, 포갑 및 보관상자, 복제본 제작	105,000	45,000	150,000
28	경기 용인시	보물 1406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김종한 교지 보존처 리 및 보관상자 제작	11,550	4,950	16,500
29	경기 용인시	보물 1577	증급유방	증급유방보존처리, 포갑및보관함제작	15,400	6,600	22,000
30	강원 춘천시	보물 1479	유숙 초상 및 관련 교지	유숙 초상, 초상함, 관련 교지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58,240	24,960	83,200
31	전북 고창군	보물 290	고창 선운사 대웅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 상보존처리계획수립 및 기록화사업	84,000	36,000	120,000
32	전남 강진군	국보 313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및 백의관음도 보존 처리 계획 수립 및 기록화사업	56,000	24,000	80,000
33	전남 강진군	보물 1841	강진 고성사 청동보 살좌상	보존처리 및 복원품 제작	140,000	60,000	200,000
34	전남 곡성군	보물 1349	곡성 태안사 동종	보존처리	35,000	15,000	50,000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35	전남 구례군	보물 1889	구례 천은사 목조 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	보존처리 계획 수립 및 기록화 사업	56,000	24,000	80,000
36	전남 순천시	보물 15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 권1	보존처리, 영인본 및 보관함 제작	42,000	18,000	60,000
37	전남 순천시	보물 1554	순천 선암사 33조사 도	모사도 제작	140,000	60,000	200,000
38	경북 경주시	보물 1797	경주 불국사 영산회 상도 및 사천왕 벽화	영산회상도 굵게말이 축 및 보관함 제작	20,405	8,745	29,150
39	경북 경주시	보물 526-2	여주이씨옥산문중유 목 원조오갑,사산오대	원조오갑 및 사산오대 보존처리, 보관함 제작	168,000	72,000	240,000
40	경북 봉화군	보물 896	권별 종가 전적	보존처리 계획 수립 (전제) 및 기록화 사업	21,000	9,000	30,000
41	경북 안동시	보물 1018	광산김씨 예안파 종 가 고문서	고문서(2점) 보존처 리 및 보관상자 제작	21,000	9,000	30,000
42	경북 안동시	보물 1019	광산김씨 예안파 종 가 전적	전적(3권) 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35,000	15,000	50,000
43	경북 안동시	보물 1202	이현보 종가 문적	고문서(2점) 보존처 리 및 보관상자 제작	49,000	21,000	70,000
44	경북 안동시	보물 905	김성일 종가 전적	전적(2책)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38,500	16,500	55,000
45	경북 안동시	보물 906	김성일 종가 고문서	고문서(2점) 보존처리 및 굵게말이축 제작	21,000	9,000	30,000
46	경북 예천군	보물 9891	예천 용문사 목조아 미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47	경북 예천군	보물 9892	예천 용문사 목각아 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	140,000	60,000	200,000
48	경남 양산시	보물 738	문수사리보살좌상승 무생계경	보존처리	14,000	6,000	20,000
49	경남 양산시	보물 9652	육경합부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50	경남 창녕군	보물 1730	창녕 관룡사 목조석 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51	경남 통영시	보물 440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보관함 제작	49,000	21,000	70,000
52	경남 하동군	보물 925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영산회상도 및 쌍계사 감로도 모사도 제작	210,000	90,000	300,000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53	경남 합천군	국보 3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전체 기록화 장기사 업에 대한 연구방법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3D스캔 결과물 활용방안 포 함) 실시	140,000	60,000	200,000
54	제주 서귀포시	보물 547-2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보존처리 계획 수립 및 기록화 사업	21,000	9,000	30,000
	합 계				2,945,335	1,262,286	4,207,621

3) 2016년 소위원회 개최 결과

○ 회의개요

차수	회의날짜	회의내용	결과
제1차	‘16.6.2.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보존처리 등 7건	원안 가결
제2차	‘16.11.4.	보험인석탑 구조적 안전성 관련 계획 논의	원안 가결
제3차	‘16.12.19.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모사도 제작 등 3건	원안 가결

4) 2017년 소위원회(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구성·운영

- 기능 및 범위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안건(국고보조사업) 심의
 - ※ 사업 수행 보존처리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프리젠테이션 설명
- 위원회 구성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의 사전 검토 하에 소위원회 명단(인문 분야와 보존과학 분야 관계전문가) 구성
 - 관련근거

-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라. 2017년 제1차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 심의 대상 :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보물 1018호 광산김씨 예안과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등 17건[붙임 2]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2. 2017년도 제1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안) 1부

[붙임 2]

2017년도 제1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안)

(단위 : 천원)

연 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 (총액)	수행업체
1	충남 공주	보물 1651	공주 감사 석가여래 삼세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후불벽체 보강	300,000	고창문화재보존
2	대구 동구	보물 1610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3폭 모사도 제작	361,000	간척지류연구소, 동국대 불교미술 문화재조형연구소
3	경남 양산	보물 1351	통도사 괘불탱	보존처리	300,000	영산문화재연구소
4	전남 강진	보물 1843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처리	500,000	금강문화재
5	경북 봉화	보물 1666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장보살삼존상 보존처리	350,000	해성문화재
6	경남 통영	보물 440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팔사품 보존처리	120,000	경남문화재
7	경북 고령	보물 1725	김종직 종가 고문서	연차적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161,500	고창문화재보존
8	경북 고령	보물 1835	정종 적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20,000	고창문화재보존
9	경남 창원	보물 1737	몽산화상육도보설	보존처리 및 복제품, 보관함 제작	40,000	영산문화재연구소
10	경북 봉화	보물 896	권별 종가 전적	보존처리	142,500	보림문화재
11	경북 안동	보물 1018	광산김씨 예안과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30,000	경흥문화재연구소
12	경북 안동	보물 1019	광산김씨 예안과 종가 전적	보존처리	70,000	엔가드
13	경북 안동	보물 1202	이현보 종가 문적	보존처리	50,000	인디고문화재그룹
14	경북 안동	보물 1221	김진 초상	보존처리	80,000	아람문화재
15	경북 안동	보물 872	이현보 초상	보존처리	80,000	아람문화재
16	경북 안동	보물 905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66,500	간척지류연구소
17	경북 안동	보물 906	김성일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38,000	오원문화유산

13. 2017년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국보 제120호, 보물 제986호, 보물 제422호, 보물 제513호 등 4건 보호구역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2017년도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도 국보·보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보호구역이 있는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심의내용

- 2017년 보호구역이 있는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계	보호구역(면적)
경기 화성군	용주사 동종	나유타료 및 기단석축 보수	700,000	300,000	1,000,000	보호구역 (12,723.97㎡)
충남 청양군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요사채 개축	210,000	90,000	300,000	보호구역 (3,369㎡)
전북 남원시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화장실 신축	140,000	60,000	200,000	보호구역 (2,416.53㎡)
경북 영천시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	석축보수(L=72m) 보호각 단청(55.8㎡)	175,000	75,000	250,000	보호구역 (2,115.7㎡)
합 계			1,225,000	525,000	1,750,000	

(2)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집행

(3) 행정사항

- 2017년도 문화재보수(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중 보호구역이 있는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 사업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안전번호 동산 2017-01-014

14.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關係文書)

가. 검토사항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사 항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4.3.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보물 제575호 [불상 1구, 문서 4건(제575-1호~제575-4호) / 1973.12.31.지정]
- 명 칭: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關係文書)
- 소유자(관리자): 대승사
- 소재지: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대승사(전두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수량	1점	11건
규격(cm)	346.8×278.9	조사보고서 참조
재질	목조	저지(楮紙)
제작연대	1675년	1869~1876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탱화의 형식을 조각으로 표현한 ‘목각탱’으로, 총 10매의 판목을 조합하여 아미타극락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였다. 그동안 19세기 또는 17세기 후반 경의 작품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조사를 통해 강희14년, 즉 1675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현존하는 6점의 목각탱(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화기를 통해 이 목조설법상의 조성에 참여한 宗現이 9년 후 용문사 목각탱의 조성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목각탱이라는 새로운 도상의 과급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도상적으로는 고려~조선후기에 이르는 아미타게 불화의 도상을 기본으로 하여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 판화의 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러한 도상은 추후 다른 목각탱의 모본이 되었다. 아울러 함께 전해져 오는 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목각탱 이안을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후기 사찰 간의 聖寶의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처럼 대승사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는 현존하는 목조설법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일 뿐 아니라 목조설법상의 移安을 둘러싼 문서가 함께 전해오는 등 자료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목각아미타여래상은 화면의 최하단 부분에 기록해 놓은 조성기를 통해, 1675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현존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 최고·최대 작이며, 이후 제작되는 모든 목각설법상의 範本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화면의 구성과 도상은 고려시대 <관경16관변상도>나 아미타여래설법도의 전통적인 도상의 기반 아래, 16·17세기에 새롭게 간행·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 판화의 도상을 조선후기 조각승들이 접목하여 유례가 없는 새로운 불화형식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즉,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러한 형식의 불화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어서 중요하고, 여타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祖形이라는 점도 높히 평가해야 한다.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 과거 비바시불을 통해 불법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원륜 대좌를 통한 불교의 우주관을, 시간 상징하는 글자와 12개의 패를 통해 시공을 포괄하는 존재로서의 아미타여래를, 더 나아가 시방법계의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적으로나 도상적으로도 빈틈과 생략이 없어 그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최고의

작품이자 최대의 작품이며,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성과 상징성,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이안에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 문서이다. 불상 이안 등 불교관련 분쟁을 다룬 문서는 거의 유일한 예여서 당시 이 설법상이 갖는 가치에 대한 사찰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 (지정 가치 있음)

이상에서 보듯이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8세기말)’의 표현법과 양식을 비교해볼 때 단웅과 탁밀이 조성한 1675년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이 다른 설법상과 다른 점은 예배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방제란에 존상의 이름을 기재한다는 지 주제의 전달을 위해 구품왕생도 단계적으로 보여주어 다른 설법상의 함축적 의미 전달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다르다. 이는 불화의 도해적 설명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선구적 작품이며, 제상(諸像)들의 자연스러운 사실감과 입체감도 다른 설법상들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 이런 점에서 대승사아미타여래설법상은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며, 관련문서를 제외하더라도 보물이상의 승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관계문서>

○ (지정 가치 미흡)

목각탱의 소유를 둘러싸고 부석사와 대승사 간에 벌어진 송사에서 생산된 11종의 문서들은 조선후기 사찰의 제반 상황을 연구하는데 일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작성연대가 19세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화재 지정의 절대연대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목각탱의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문서를 국보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보물로 기 지정된 4종을 포함한 문서 11종은 목각탱이 대승사에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서이다. 그러나 이 소지류의 문서들은 시대적, 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찰간의 목각탱 이안(移安)에 한정된 것이며, 생산시기도 19세기 후기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서들은 보물급 문화재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서들은 목각탱의 국보승격과는 별도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11종은 19세기 후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대승사에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나, 사찰간 목각탱 이안(移安)에 한정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목각탱 일괄 비교조사 등 보완조사

조사보고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조사내용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대승사 대웅전 후불벽에 봉안된 설법상으로, 1675년에 조성되었다. 화면의 하단, 아미타불의 뒷부분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의하면 이 상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 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同治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大正元年(1912)에 金魚影雲敞律, 煥月尚休, 退耕相老, 龍船景玟, 海城昌旻, 梵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閑, 明洙, 景旰, 珠經 등이 개금했다고 한다.

목조설법상은 후불벽을 장엄하던 불화를 천이나 종이 등이 아니라 나무를 透彫 또는 浮彫기법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법은 조각이지만 용도는 후불탱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흔히 木刻幀으로 불린다. 모두 10개의 나무를 잇대어 만들었는데, 본존이 조각된 중앙의 판목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각각 3개씩의 판목이 세로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밑에 1개, 그리고 위에 2개의 판목이 이어져 있고 이것을 다시 상하좌우 4개의 외곽 틀로 결구하였다. 각 존상들은 환조에 가깝게 조각되었으며, 인물 및 장식문양 외의 부분들은 투각기법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상단과 중단, 하단의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도는 조선후기의 불화와 같이 군도식 구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단의 구별이 뚜렷하여 존상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채 3~4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상이 나무를 조각해서 각 존상을 표현해야 하는 목조설법상인 점에 기인하는데, 판목 1매 당 세로로 4구씩의 존상이 일렬로 서있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배치되었다. 먼저 상단은 2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다. 2매 중 아래 판목에는 과거칠불 중 첫 번째 부처인 第一毘婆

尸佛의 명칭이 적힌 원형의 장식을 중심으로 좌우에 구름을 타고 오는 6구의 타방불이 배치되었다. 비바시불의 이름이 적힌 원형의 장식은 리본으로 양옆을 묶은 화려한 寶蓋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양옆으로는 좌우에 각각 1구씩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와 瑞雲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표현된 7구의 부처는 과거7불인 비바시불과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단은 이 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범천 및 제석천, 10대제자, 사천왕 등 총 25구의 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총7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미타불을 조각한 중앙의 판목이 좌우 6개의 판목보다 너비가 조금 넓다. 존상들은 대부분 3~4등신 정도의 짧은 체구에 방형에 가까운 정도로 넓적한 얼굴, 각진 콧날이 특징적이며, 옷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되었다. 각 존상의 옆에는 각각 명칭이 적혀있어 존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의 중앙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하고, 하단 좌우측에는 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상 4구, 그 위 좌우측에는 관음·대세지보살, 금강장·제장애보살, 가섭·아난존자, 그 위 좌우에는 미륵·지장보살, 사리불·목건련존자, 대범천·제석천을, 그 위 좌우측에는 부루나존자·수보리존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을 좌우대칭으로 배열하였다. 8대보살은 모두 지물을 들고 있는데,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인 아미타불을 모셨으며 손에는 정병이 올려진 연꽃을 들고 있다. 대세지보살은 경책이 놓여있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는 희미하게 정병의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문수보살은 如意, 보현보살은 연봉우리, 미륵보살은 왼손에 연잎으로 감싼 연꽃, 오른손에 보주,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석장,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다. 금강장보살은 지물이 없어져서 확인할 수 없으며, 제장애보살은 오른손에 칼,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물은 고려~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8대보살의 지물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목각설법상의 도상이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불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단은 활짝 핀 9송이의 연꽃과 연잎, 연봉우리로 장식된 아미타불의 蓮池를 나타내고 있다. 9송이의 연꽃은 중앙에 上品上이라고 쓰인 연꽃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씩 배치되었는데, 8개의 연꽃에는 上品中에서부터 下品下라고 적혀있어, <觀無量壽經>의 제14관인 上輩生想에서 제16관인 下輩生想까지를 연꽃으로 표현한 九品蓮池에서의 왕생장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꽃에 인물이 직접 극락세계로 化生하는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본존불의 대좌 좌우에 마련된 꽃병에서 활짝 핀 둥근 연꽃 안에 上品上生에서 下品下生에 이르기까지의 九品化生을 문자로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중단에 아미타8대보살을 배치하고 하단에 구품연지를 배치한 이와 같은 구성은, 등장하는 권속의 수가 많고 왕생장면을 문자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16·17세기에 간행·유통된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와 유사한 것으

로 주목받아 왔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관무량수경과 아미타여래설법도 등의 도상에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집목해서 새롭게 도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이 상은 조성연대가 밝혀지지 않아서 막연하게 19세기 또는 1684년의 용문사 목각탱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7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화기가 발견되었는데, 화면 하단 아미타불 뒷부분에는 “○○初造成○○ 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佛母比丘 禪宗」 緣化比丘 清徹」大施主 金就遠」黃金施主 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라고 적혀있어, 강희14년인 167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화기에는 증명비구로 宗現이라는 승려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용문사 목조설법상의 화기에서도 볼 수 있어 두 작품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중현은 대승사 및 용문사 목조설법상 외에도 용문사 금당 목조아미타불좌상, 상주 용흥사 삼세불괘불도(1684),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1687), 제천 정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1689), 상주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1689) 중수 등에도 참여하였다. 화기에는 조각승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방형의 넓적한 얼굴 형태와 가늘고 긴 눈 높고 각진 매부리코, 입술모양, 끝이 휘어진 귀의 형태, 어깨로 흘러내리는 보발의 형태 뿐 아니라 이중으로 장식된 보관의 형태와 화문장식, 존상 뒤에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배치하여 두광을 표현하는 듯한 방식이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端應과 卓密이 조성한 용문사 목조설법상(1684)의 양식과 흡사하여, 대승사 목조설법상 또한 단웅과 탁밀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승사에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관련된 문서가 11건 전해온다. 이 문서들은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移安을 둘러싸고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所志로, 대승사와 부석사의 승려들이 官府에 올린 上書와 等狀, 完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에 의하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인데, 1862년 대승사에 화제가 나서 범당과 승방이 모두 소실됨에 대승사의 승도들이 새로 범당을 중수하였으나 불상을 조성할 형편이 되지 않자 부석사에 있던 목조설법상을 옮겨왔다고 한다. 그러다 6년 뒤인 1875년에 부석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여 시비가 일게 되었는데, 1876년에 대승사에서 부석사 조사전의 수리비 250냥을 주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문서를 통해 목조설법상이 처음에는 부석사의 金色殿이라는 전각 안에 봉안되었다가 후에 무량수전으로 이안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조성기>

○○初造成○○」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佛母比丘 禪宗」 緣化比丘

清徹」大施主 金就遠」黃金施主 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 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 慧翁利有」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玟」奉齋」侑宗」金魚」影雲徹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玟」海城昌旰」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鎮閒」明洙」景旰」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垵」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 仁默」次子 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 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 八十二員」

○ 문헌자료

김은정, 「대승사 대웅전의 목각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0.

이용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

○ 조사내용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아미타여래가 주재하는 극락세계를 회화적 기법과 조각적 기법을 절충하여 조성한 불화이며, 17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창안되어 등장하는 불화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설법상은 대승사를 비롯하여 예천 용문사(1684년),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169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1782년) 등 6점이 전하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선 설법상은 대화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크게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밑에 1개의 판을 가로질러 기초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세로로 된 7판의 나무판을 세우고, 두 개의 가로 판재와 외곽 틀을 야무지게 결구시켜 마무리하였다.

등장하는 존상들은 본존인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 10대 제자, 사천왕상, 용왕 등의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오와 열을 맞추어 질서 있게 구성되었다. 존상들은 방형에 가까 정도로 넓적한 얼굴에, 각진 콧날과 평범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 정감이 있고 대중적이다. 옷 주름은 특출한 기교 없이 간결하고 힘 있는 선묘를 보인 가운데, 본존불은 연화대좌 위로 옷자락을 늘어 뜨려 율동감을 부여하였다. 존상들은 대체로 3-4등신의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은 17세기 후반 충청·강원,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조각승 단웅과 탁밀의 작품과 닮은 점이 많고, 설법상의 제작시기와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지역 등이 같아 이들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존상의 세부 배치를 살펴보면, 화면의 상단에는 하늘에 떠 있는 천개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타방불 등이 표현되었다. 천개에는 과거칠불 중 첫 번째 과거불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을 적어 놓았다. 화면의 중앙에 꽃잎형 광배를 등지고 높은 수미좌에 앉은 아미타여래를 두었고, 화면의 하단 좌우측에는 문수·보현보살, 사천왕상 4구(좌측에서 북동남서 순으로 배치)를, 그 위 좌우측에는 관음·대세지보살, 금강장·제장애보살, 가섭·아난존자, 그 위 좌우에는 미륵·지장보살, 사리불·목건련존자, 대범천·제석천을, 그 위 좌우측에는 부루나존자·수보리존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을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배열하였다. 제 존상들은 합장을 하거나 존상의 상징물을 든 모습이다. 본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존상들은 화면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원근감 없이 좌상이나 입상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정한 크기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권속들의 자세는 입상과 좌상 그리고 궤상 등 3가지 모습이 등장하며, 다른 예에서 드물게 본존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는 존상들을 대거 배치시킨 점이 이채롭다. 각 존상의 옆에는 붉은색 바탕의 명패를 마련하고 그곳에 금색으로 존명을 적어 두어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구도는 화면의 최상단에 제일 과거불인 비바시불이 주악천녀와 타방불을 이끌고 도량으로 강림하는 장면을 배치하고, 최하단에는 구품 연못에서 연화 왕생하는 장면을 두어, 위·아래에서 흐트러짐 없이 설법장면을 탄탄히 받쳐주는 짜임새 있는 구도이다. 하단의 구품왕생 장면은 본존불의 대좌 좌우에 마련된 꽃병에서 피어난 아홉 개의 연꽃에 구품연지의 상징성을 담았는데, 연꽃에 인물이 직접 극락세계로 化生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활짝 핀 둥근 연꽃 안에 상품상생에서 하품하생에 이르기까지의 구품화생을 문자로 단순화시켜 그 상징성만 담았다.

이와 같이 구품왕생과 아미타여래 팔대보살이 한 화면에 가득 표현되는 사례는 고려시대 <관경16관변상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특히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유사하게 도설한 사례는 조선 16·17세기에 간행·유통된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이다. 다만 <근수정업왕생첩경도변상도>와의 차이점은 등장하는 권속의 수가 많고, 왕생장면을 문자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전통적인 <관경16관변상도>이나 <아미타여래설법도>를 기반으로 해서 16세기부터 17세기에 개관·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크게 접목해서 장안해 낸 불화로 판단된다.

아미타여래의 여래의 대좌는 원륜과 팔각, 연꽃, 등 다층 구조를 하고 있으며, 각 단마다 방위와 시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연화대좌를 받치고 있는 방형의 단에는 午地를 중심으로 좌우에 巳地和 未地가 있으며, 단 위에는 구품왕생의 上品上을 상징하는 연꽃을 새겨 놓았고, 이는 구품왕생의 중심이 되고 있

다. 연화대좌는 복련과 앙련의 연화좌 사이에 타원형의 받침대와 연꽃받침대를 중첩하여 쌓아 올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에는 木方, 赤方, 水方 이란 명문이, 다시 그 위에는 地輪, 火輪, 水輪이 있으며, 맨 위에 辰時, 巳時, 午時, 未時, 申時 등이 적혀 있다. 지륜, 화륜, 수륜은 풍륜 공륜과 함께 수미산을 지지하는 오류이며, 목방, 적방, 수방은 동서남북 중 동방, 남방, 북방을 가리키며, 진사에서 감시까지는 12간지 중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를 뜻한다. 한편 아미타불의 대좌에 새겨진 방위와 시간의 개념은 화면을 넘어 틀에 새겨져 있는卦와 연결된다. 현재 좌우 틀이 사라졌지만 20세기 초 사진에는 좌우측에도 패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의 형태는 팔괘를 중첩한 육십사괘이며, 이곳에는 『주역』의 육십사괘에서 12개의 괘를 뽑아 사방에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미타불을 중심에 두고 상단에 과거불 비바시불을 통해 佛法의 끝임 없는 영속성을, 아래의 연화대좌의 지륜, 화륜, 수륜을 새겨 불교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화대좌에 새긴 방위와 시간, 외곽 틀에 새긴 12개의 괘는 시공을 초월한 아미타불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신앙체계를 갖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용문사 목가아미타여래설법상을 거치면서 존상 중심으로 간략해지고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는 구품왕생 장면은 생략되고 설법장면만 강조되었다.¹²⁾

관계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移安에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과 관련된 문서이다. 조선 후기 소송은 주로 山訟으로 불상과 관련된 소송문서로서는 거의 유일한 예이다.

[조성기]

○○初造成○○」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佛母比丘 禪宗」緣化比丘 清徹」大施主 金就遠」黃金施主 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稔有」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敝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旻」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鎮閒」明洙」景旻」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垕」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 仁默」次子 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 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 八十二員」

12) 이용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문경시, 제)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p.122-123.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문경시·제)불교 문화재연구소, 2011



그림 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75년, 346.9x278.9



그림 2 X-RAY 촬영

□

위치 배열순(안①→밖③)	존명 규격단위(cm)	상높이	최대폭
중앙	아미타여래	62.6	46.1
좌1단①	문수보살	61.0	26.4
우1단①	보현보살	61.3	21.5
좌1단②	동방제두회천왕	61.0	33.9
우1단②	남방비루룩차천왕	57.6	33.9
좌1단③	북방비사문천왕	63.0	39.1
우1단③	서방비루박차천왕	60.3	28.6
좌2단①	관세음보살	51.0	35.5

우2단①	세지보살	55.3	36.1
좌2단②	금강장보살	66.2	27.1
우2단②	제장애보살	67.8	33.9
좌2단③	가섭존자	59.0	33.9
우2단③	아난존자	51.7	28.6
좌3단①	미륵보살	63.0	30.8
우3단①	지장보살	56.9	36.3
좌3단②	사리불존자	50.0	29.5
우3단②	목건련존자	55.8	29.9
좌3단③	대법천왕	54.7	34.6
우3단③	제석천왕	60.2	27.0
좌4단①	부루나존자	54.2	30.8
우4단①	수보리존자	52.8	33.6
좌4단②	일광천자	49.2	24.1
우4단②	월광천자	56.1	26.8
좌4단③	난타용왕	58.2	33.9
우4단③	발난타용왕	47.6	27.7

畵記欄: 백록색의 외곽틀 상·하단에 3개의 괘와 근자, 움자를 그리고, 아래 틀에는 붉은 색으로 일부를 덧칠해 그 위에 불상의 제작시기, 개금불사와 이안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덧칠해 적은 화기 아래에 또 또 다른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1】

○ 현상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대웅전에는 가운데 높은 불단 위 삼존상 뒤에 액자형식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봉안되어 있다. 후불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존상들은 높은 부조(浮彫)로 조각되어 있다. 화면은 크게 상중하의 3부분으로, 맨 아래는 9품 연지의 구품왕생장면을 나타내었고, 중단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제보살과 청중들이, 상단은 천공을 표현하였다. 그중에서도 중단의 불보살과 청중들은 가운데 본존을 중심으로 양측 각각 3인씩 4단으로 서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다. 불보살과 청중들은 본존을 향해 앉았으며, 시점이 본존으로 모아지는 구도로 공간의 깊이감이 느껴진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각 존상 옆에 방제란(傍題欄)을 두고 존명을 적어 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의 내용을 보면 화면 중앙부는 맨 아래 9품 연지(蓮池)로 부터 쭉 뻗어 올라온 연화대좌 위에 아미타여래가 결가부좌의 자세로 하품중생인을 결하여 앉아 있다. 본존 곁에는 8명의 팔대보살이 둘러싸고 있는데 본존 좌우에는 연화좌에 앉아 연 가지를 든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다(좌2단①, 우2단①). 관음보살은 정병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대세지보살은 보협인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의 각각 아래에 문수보살(좌1단①)과 보현보살(우1단①)이 여의와 연봉 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좌2단①)과 대세지보살(우2단①) 옆에는 금강장보살(좌2단②)과 제장애보살(우2단②)이 있는데 금강장보살은 오른손에 지물인 금강검을 잡고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으며, 제장애보살은 지물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배 좌우에 서 있는 보살은 미륵보살(좌3단①)과 지장보살(우3단①)이다. 미륵보살은 왼손에 연꽃, 오른손에 구슬을 쥐고 있으며, 대칭되는 위치의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석장을 잡고 왼손은 보주를 쥐고 있다. 팔대보살 중 본존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2구만 좌상이며, 그외 보살은 입상으로 조성되어 아미타삼존의 도상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대보살 주변에는 십대제자 중 여섯 제자가 본존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있다. 노인 모습의 가섭은 정수리가 높이 솟아 있으며, 왼쪽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모아 권 손을 가슴 앞에 들고 있다(좌2단③), 이와 대칭 위치의 아난은 젊은 승려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 두 손을 합장하였다(우2단③). 미륵보살 곁의 사리불존자(좌3단②)와 지장보살 곁의 목건련존자(우3단②)는 양손에 불자를 들고 있으며 상단에 있는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는 합장을 하고 있다(좌4단①, 우4단①).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 좌우에는 천의를 솔처럼 걸친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이 합장을 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좌3단③, 우3단③).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 옆에는 원류관을 쓴 제왕 모습의 인물이 서 있는데 이중 복숭아 가지를 든 인물이 월광천자이며(우4단②), 명문이 없는 화반을 든 인물은 일광천자로 추정된다(좌4단②). 일광과 월광 천자 옆으로는 각각 용을 타고 있는 난타용왕(좌4단③)과 여의주를 든 발난타용왕이 있다(우4단③). 설법회 장면 하단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곁으로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왼편에는 검을 든 동방제두뢰천왕(좌1단②)과 존명이 없지만 비파를 든 북방비사문천왕이(좌1단③), 오른편에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비루룩차천왕(우1단②)과 당과 보주를 든 서방비루박차천이 서있다(우1단③).

화면의 최상단은 천공, 하단은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천공은 장엄의 공간으로 천개아래에는 과거불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이 적혀있고, 악기를 든 주악천,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타방불과 과거칠불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은 극락세계에 구품왕생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미타여래가 앉은 9층의 연화대좌는 화병으로 부터 뻗어 나온 연 가지와 그 끝에 만개한 연

꽃이 하나씩 피어 있는데 가운데의 ‘상품상(上品上)’을 중심으로 좌우의 바깥으로부터 ‘하품하(下品下)’, ‘하품중(下品中)’, ‘하품상(下品上)’, ‘중품하(中品下)’, ‘중품중(中品中)’, ‘상품하(上品下)’, ‘상품중(上品中)’의 구품왕생을 상징하는 글자가 적혀있다. 아미타여래의 대좌는 그 외에도 시간과 방위를 의미하는 명문도 보이는데 맨 아래 방형 기단의 안상에는 가운데 ‘오지(午地)’와 좌우로는 ‘사지(巳地)’와 ‘미지(未地)’가 적혀 있으며, 그 위로는 좌(향우)로부터 우(향좌)로 ‘목방(木方)’, ‘적방(赤方)’, ‘수방(水方)’ 다시 그 위로 ‘지륜(地輪)’, ‘화륜(火輪)’, ‘수륜(水輪)’, 맨 위에 ‘진시(辰時)’, ‘사시(巳時)’, ‘오시(午時)’, ‘미시(未時)’, ‘갑시(甲時)’가 적혀 있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의 제상들은 얼굴, 신체비례 등의 표현이 대동소이하다. 본존의 아미타여래좌상은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여 아래를 굽어보는 모습으로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다. 방형의 작은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이마로부터 돌출된 듯한 오목한 코, 좁은 인중선, 가늘고 긴 입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인상은 독특한데 이 얼굴은 1684년 단웅과 탁밀이 조성한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닮았다. 오른쪽 어깨에는 내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대의를 돌려 입었으며, 끝단은 물결모양으로 처리되어 있다. 가슴아래 입은 승각기는 접혀진 곳이 볼록하게 올라와 입체적으로 보이며, 배 앞으로는 두 개의 대칭되는 옷자락의 아래가 넓게 벌어져 W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탁밀의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살상(1694)의 표현과도 닮아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이 유파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대좌를 덮어 상현좌 형식을 이루며, 가운데와 양측은 길고 뾰족한 삼각형의 구불구불한 옷자락으로 모양을 낸 것도 특징적이다.

입상은 좌상과 신체 높이가 거의 비슷하며, 머리가 크고 신체가 짧은 단구형으로 이는 조선후기 입상의 보편적인 표현방법이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무릎을 꿇어앉은 좌상의 표현이 매우 좋은 편인데 안쪽 상보다 바깥 쪽 상의 무릎 높이를 좀 더 높였으며, 자세와 방향도 유연하고 자유로와 사실감과 공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외곽틀에 적힌 화기에는 康熙14年(1675) 조성연대만 기록되어 있지만 얼굴표현과 독특한 인상, 배 앞에 W자형으로 벌어진 옷자락과 상현좌를 이루는 3개의 뾰족하고 구불구불한 옷자락 역시 단웅과 탁밀이 조성한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에서도 보인다. 또한 증명을 맡은 중현(宗現) 역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조성에서 증명을 맡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 외에도 두 번의 화재로 불타 없어졌지만 이전의 외곽틀은 좌우 기둥에 각 3개의 패 사이에 각각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도 예전의 자료로 확인되어 대승사 목각아미타설법상의 조성자가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조성자 같은 유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단응과 탁밀은 1665년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조성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사례이며, 1692년 서귀포 영조사(永照寺) 목조아미타삼존불감조성까지 두 조각승의 활동은 이어졌다.

표1. 단응·탁밀의 불상조성활동

봉안처	연대	참여화승
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坐像	1665년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1675년	端應, 卓密, …
禮泉 龍門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木造阿彌陀幀	1684년	端應, 卓密, 學崙,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安東 鳳凰寺 木造三方佛坐像	1692년	丹應, 卓密, 德崙, 寶雄, 裕特, 尙念, 就英, 就選, 坦玉, 進念, 宗印, 瑞端, 道允, 琢璘, 廣什
西歸浦 永照寺 木造阿彌陀三尊佛龕	1692년	端應, 卓密, 普雄, 宗印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단웅과 탁발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 이들 유파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8세기 말)과 비교하여 사실감과 입체감 등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불보살과 청중 곁에 방제란을 두어 알기 쉽게 도해하여 조각으로서 후불화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단웅과 탁발의 실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참고 1】

〈적외선 촬영의 명문〉	〈개금불사와 이안기〉
「□□初造成□□ 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 佛母比丘 禪宗 緣化比丘 清徹 大施主 金就遠 黃金施主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興郡太白山浮石 □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改金佛事緣起 大正元年壬子八 月二十二日(陰曆 七月十日)改金于 慶尙北道聞慶郡 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祿有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聞慶郡大乘寺」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般景玟
	奉齋	侑宗
	金魚	影雲敞律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般景玟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昨
		珠經
	鍾頭	敬照
		昌奎
	茶甬	景舜
		南植
	供司	蓮秀
		慧照
	別供	明宣
		性林
		有變
淨人	張鳳漢	
明埜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別座	侑眞	
都監	月波兌永	
獨辦大施主	乾命朴廷澤	
	坤命孔氏	
	長子仁默	
	次子元默	
化主清信女	李氏福德月	
時住持	退耕相老	

	山中時住 大衆 共八十二員」
--	-------------------

<관계문서>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大乘寺)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관계문서 중의 문서는 모두 11종이다. 내용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浮石寺)와 대승사간에 소송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문서 들이다.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부석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안(移安)하기 위한 소송 문서(1869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되찾기 위한 부석사와 대승사간의 소송문서(1875-6년),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합의문서(1876년) 등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 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 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 보물 제575-3호), 완의(完議 : 보물 제575-4호) 등 4종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나머지 7종은 비지정 문화재이다. 이들 11종을 <표1>로 정리하고, 문서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관계문서

연 번	文書名稱	年代	指定與否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1869.2	보물 제575-1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1876.1	보물 제575-2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1876.1	보물 제575-3
4	완의(完議)	1876.3	보물 제575-4호
5	금물제(勿禁帖)	1869.1	비지정
6	전령(傳令) 1	1869.3	비지정
7	전령(傳令) 2	1869.3	비지정
8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1	1875.4	비지정
9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2	1875.4	비지정
10	순흥부석사등도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1875.1 2	비지정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1876.1	비지정

①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二月 日, 題辭: 初八日.

부석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을 대승사로 이안(移安)하려는 시도에 따른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 김용사, 혜국사, 남장사 등 25곳의 사찰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이안을 청원한 문서이다. 이에 대해 순흥대도호부사는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치는 부석사보다 건물을 새롭게 고친 대승사에 모셔져 섬김을 받는 것만 하겠는가?”라며 이를 허락하는 내용이다.

②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丙子(1876)正月 日. 題辭: 十七日.

대승사(大乘寺)에서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영조 어필을 봉안한 대승사는 임술년(1862) 화재 이후 새로 중건하였으나 불상이 없으니 피폐한 순흥 부석사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부석사에서 승려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을 법률에 따라 벌을 주어 후환을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월 17일에 내린 제사에서 “감영에 보고한 뒤 처결”하라 하였다.

③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丙子(1876)正月 日. 題辭: 二十日.

대승사에서 경상도 순찰사에게 1869년의 순흥부 상서와 함께 순흥부의 전령을 첨부하여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는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대승사는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는데 1869년 2월 이후 불상을 대승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가 우리 측에서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하므로 이후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20일에 내린 제사에서는 “이미 관청이 처분이 있었다.”고 하였다.

④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大清 光緒二年 丙子(1876)三月 日.

부석사에서 대승사에 발급한 문서이다.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는데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하겠다는 정성에 감사하며 합의한다는 것이다. 대승사에서 부석사에 250냥을 지원함으로써 불상의 이안에 대한 문제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⑤ 물금채(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正月日勿禁.

기사년(1869) 정월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이 없던 대승사가 부석사의 목각탱을 모셔가려 하므로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다.

⑥ 전령(傳令) 1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 三月初九日.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이전에 “지금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공의(公議)하고 등소(等訴)하므로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라.”는 것이다.

⑦ 전령(傳令) 2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 三月初九日.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을 모셔 가는데 “인근 동네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이 막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⑧ 부석사승도등장1(浮石寺僧徒等狀 1)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代: 乙亥(1875) 四月 日.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소장을 보내 대승사가 강탈해간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다.

⑨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12年(1875)

年代: 乙亥(1875)四月 日. 題辭: 十七日.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하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감영의 지시가 없었다.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임을 온 고을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⑩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代: 乙亥(1875)十二月 日. 題辭: 廿四日.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려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⑪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光緒二(1876)年正月十八日. 題辭: 丙子正月十九日.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감영(監營)의 제사는 “터무니없이 무고한 부석사의 승려는 천주사에서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중의 관계문서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와 대승사간에 소송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문서 11종이다. 이 문서들은 부석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안하기 위한 소송 문서(1869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되찾기 위한 부석사와 대승사간의 소송문서(1875-6년),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합의문서(1876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보물 제575-3호), 「완의」(보물 제575-4호) 등 4종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7종은 비지정 문화재이다. <표1>의 문서 11종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구분	年紀	문서제목	지정현황
1	1869.2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	보물 제575-1호
2	1876.1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	보물 제575-2호
3	1876.1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	보물 제575-3호
4	1876.3	완의	보물 제575-4호
5	1869.1	물금체	비지정
6	1869.3	전령 1	비지정
7	1869.3	전령 2	비지정
8	1875.4	부석사승도등장1	비지정
9	1875.4	부석사승도등장2	비지정
10	1875.12	순흥부석사승도등장	비지정
11	1876.1	영남도총섭서목	비지정

-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1869년 정월에 대승사로의 이안시도가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 김용사, 해국사, 남장사 등 25곳의 사찰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부석사 목각탱의 대승사 이안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전령으로 알리시어 불상을 새 절에 봉안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흥대도호부사는 2월 8일에 내린 제사에서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이치는 부석사보다 건물을 새롭게 고친 대승사에 모셔져 섬김을 받는 것만 하겠는가?”라며 이를 허락하였다.

-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1876년 정월에 대승사에서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영조 어필을 봉안한 대승사는 임술년(1862) 화재 이후 새로 중건하였으나 불상이 없으니 피폐한 순흥의 부석사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부석사에서 승려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을 법률에 따라 벌을 주어 후환을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17일에 내린 제사에서 “감영에 보고한 뒤 처벌”하라고 하였다.

-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二十日).

대승사에서 경상도 순찰사에게 1869년의 순흥부 상서와 함께 순흥부의 전령을 첨부하여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는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대승사는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는데 1869년 2월 이후 불상을 대승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가 우리 측에서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하므로 이후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20일에 내린 제사에서는 “이미 관청이 처분이 있었다.”고 하였다.

- (4)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발급한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을 수리 하는데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하겠다는 참된 정성”에 감사하며 합의한다는 것이다. 아마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함으로써 불상의 이안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기사년(1869) 정월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이 없던 대승사가 부석사의 목각탱을 모셔가려 하므로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다.

(6) 「전령」 1(傳令 1)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이전에 “지금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공의(公議)하고 등소(等訴)하므로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라.”는 것이다.

(7) 「전령」 2(傳令 2)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을 모셔 가는데 “인근 동네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이 막지 말도록”한 것이다.

(8) 「부석사승도등장」 1 (浮石寺僧徒等狀 1)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四月 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소장을 순흥도도호부사에게 보내 1869년에 대승사에서 강탈한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浮石寺僧明學等”이라는 제명으로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에 대해 제사에서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9)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四月 日. 題辭(十七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도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앞선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오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4월 17일의 제사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감영의 지시가 없었다.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임을 온 고을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고 하였다.

(10)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1875년 12월에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의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리시어 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24일의 제사에서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였다.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光緒二(1876)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1876년 정월 18일에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현재는 순흥 부석사(浮石寺)와 상주 대승사의 승도들이 목각탱 분쟁사실의 조사사실과 관청의 제사만 남아 있다. 아마 조사사실이 수록된 별도의 보고서가 있었을 것이나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정월 19일의 감영(監營)의 제사에서는 “터무니없이 무고한 부석사의 승려는 천주사에서 벌을 주라.”고 하였다.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중의 고문서 11점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와 대승사간에 소송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문서는 고종 6년(1869) 1월부터 3월 9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대승사 관련 문서, 고종 12년(1875)~고종 13년(1876) 사이에 작성된 대승사와 부석사 간 소송 문서, 고종 13년(1876) 대승사와 부석사의 합의문서 등이다.

그 중 보물 제575호로 지정된 문서는 다음의 4점이다.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4)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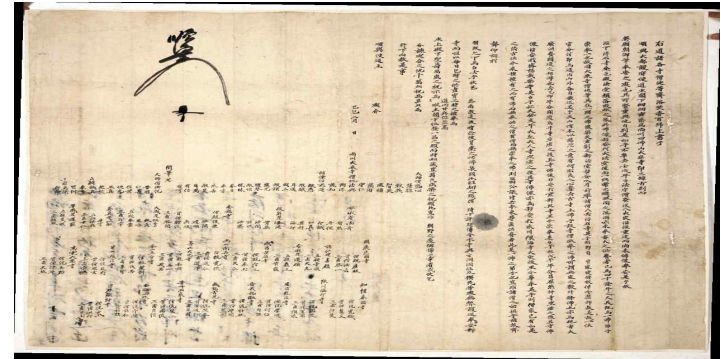
각 문서별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1869년 정월에 부석사 목각탱의 대승사 이안이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大乘寺), 윤필암(潤筆菴), 묘적암(妙寂菴), 반야암(般若菴), 김룡사(金龍寺), 혜국사(惠國寺), 남장사(南長寺) 등 많은 사암(寺菴)의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불상의 이안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右道諸各寺僧徒等齋浴焚香百拜上書于順興大都護府使道主閣下細細垂察焉。 尙州四佛山大乘寺卽三韓古刹而英廟御筆奉安之處也。 其所緊重與他自別是如乎, 不幸去壬戌年分法宇僧寮沒入火僅僅重建而尙未佛像奉安是乎故, 治下浮石寺金色殿堂頽落毀撤之後其佛像移安於大法堂後面一隅, 常不避風雨之滲漏亦未奉香火之供養者已爲四十餘年之久矣。 既爲一佛弟子崇奉一也。 故同大乘寺僧徒等其在一隅之佛像渠矣重創之新法堂移安次月前率諸僧入去浮石寺是乎則, 卽自官家定將校傳令禁斷敎是故一依官分付卽爲退出山外各自散送是乎矣, 山僧本以慈悲之意有何不良之心奪去古寺主佛乎。 該寺僧欲奉之佛可謂無家之數外餘佛也, 亦爲絕香火廢供養閑遣之朽佛也。 去乙卯年分間慶烏井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京新興寺至今崇奉是白乎□, 戊午年分昌原熊神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密陽載藥寺是白乎□, 又癸亥年大丘夫人寺空虛之後其寺佛像亦爲移安於永川銀海寺火後至今尊奉是乎則, 僧家已有如是之法古往今來種種有之, 而有佛而無奉供之僧有僧而無崇奉之佛則互相公議侍去奉來尊崇供養者此是一佛之弟子也, 豈非諸僧之始祖乎。 茲敢齊聲仰訴於明政之下爲白去乎, 伏乞參商敎是後特念彼冒塵之朽佛哀閔此經劫之殘僧特下許題傳令本寺與方洞洞任及□民等處

無弊護送奉安新寺。 而恒以每日巳時之供晝宵三時之禮奉爲主上殿下聖壽萬歲之祝，亦爲道內甘兵位益高城主閣下位登一品之願， 而時和歲豐萬民咸樂之祝願， 此豈非朝野之慶儒釋之幸者哉。 伏乞分諫處分之地千萬血祝爲是1)只爲行下向教是事。

順興使道主處分

己巳二月日

順興使【押】

경상우도(慶尙右道) 여러 절 승도(僧徒)들의 상서(上書)

경상우도 여러 절의 승도(僧徒)들은 목욕제게하고 향 사르어 백 번 절하며 순흥 대도호부(順興大都護府) 사또님 합하(閣下)께 상서(上書)하오니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상주(尙州)의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는 삼한시대의 고찰이자 영조 임금의 어필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 요긴하고 소중함이 다른 곳과 저절로 구별되더니, 불행히도 지난 임술년(1862) 즈음 범우(法宇)와 승료(僧寮) 등이 화재를 당해 근근히 증건하였으나 아직도 불상을 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부석사(浮石寺)의 금색전(金色殿) 범당이 퇴락, 훼손된 뒤 그곳에 있던 불상을 큰법당 뒤 한쪽 구석에 옮겨두었는데, 항상 비바람이 들이침을 피하지 못하옵고, 또한 향화를 받들지 못한 지가 이미 4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일불제자(一佛弟子)가 되었으니 존승해 받드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대승사 승도들은 한쪽 구석에 옮겨둔 그 불상을 저희가 중창한 새 법당에 옮겨 모시려고 한 달쯤 전에 여러 승려들을 거느리고 부석사에 들어갔사온데, 관가(官家)에서 장교(將校)를 보내 전령(傳令)으로 금지하셨기에 한결같이 관가의 분부에 따라 즉각 산 밖으로 물러나 각자 흩어져 돌아왔습니다. 산승들이 본디 자비로운 뜻에서 한 일이지 무슨 불량한 마음으로 옛절의 주불(主佛)을 빼앗으려 했겠습니까? 저희 사찰의 승려들이 받들고자 하는 부처님은 가히 집 없는, 숫자 밖의 여벌 불상이며, 또한 향화가 끊기고 공양이 그친, 민망히 버려진 낡은 부처님입니다. 지난 을묘년 무렵 문경(聞慶)의 오정사(烏井寺)가 비게 된 뒤 그 절의 불상을 서울의 신흥사(新興寺)로 이안(移安)하여 지금까지 귀하게 받들고 있사오며, 무오년 무렵에 창원(昌原)의 웅신사(熊神寺)가 비게 된 뒤에는 그 절의 불상을 밀양(密陽)의 재약사(載藥寺)로 이안하였사옵고, 또한 계해년에 대구(大丘)의 부인사(夫人寺)가 비게 된 뒤로는 그 절의 불상을 역시 화재 뒤의 영천(永川) 은해사(銀海寺)로 이안하여 지금까지 존승하여 받들고 있사옵니다. 그러한즉 절집에 이미 이와 같은 법도가 예전부터 종종 있었사오니, 부처님은 있되 받들어 모실 스님네가 없거나 스님네는 있되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다면 서로 의논하여 모셔가고 받들어와 존승, 공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일불제자의 도리이니, (불상은) 어찌 모든 스님네의 시조(始祖)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우러러 밝은 다스림을 펼치시는 사또께 호소하오니, 엇드려 청하건대 잘 참

작하신 뒤 특별히 저 먼지를 무릅쓰고 있는 낡은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액운을 겪은 잔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내리시되 본사와 방동(方洞)의 동임(洞任)및 계민 등에게 전령으로 알리시어 호송하여 새 절에 봉안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 사시(巳時)의 공양과 밤낮 세때의 예불을 올릴 때마다 주상전하의 성수만세를 발원토록 하며, 또한 도내 감병(甘兵)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성주(城主) 합하께서는 일품(一品)의 지위에 오르도록 기원드리며, 시절은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즐겁도록 축원한다면 이것이 어찌 조야의 경사가 아니겠으며 유가와 불가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엇드려 청하건대, 잘 분간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분부하옵실 일.

순흥사또님 처분

기사년(1869) 2월 일

순흥사(順興使)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1876년 정월에 대승사에서 가산장수(架山將帥)에게 보낸 문서이다. 대승사에서 순흥 관가에 등장(等狀)을 올려 허락을 받은 이후 목불탱을 옮겨 봉안하였으나, 부석사에서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이 수백냥의 돈을 요구하자 이를 처벌하여 달라 청원하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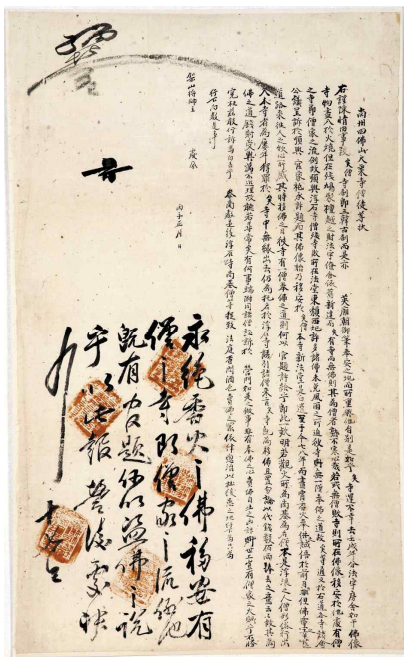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寫本. 1張. 104×58.8cm. 紙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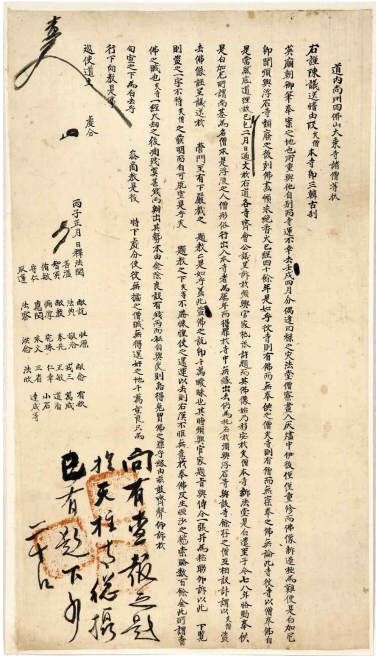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 正月 日. 題辭(二十日).

대승사에서 1869년에 순흥 관아에서 내린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제사(題辭)를 첨부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의 내용과 같이 관의 허락을 받고 목불탱을 옮겨 봉안하였으나, 부석사에서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이 수백냥의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청원이다.



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右謹陳議送情由段矣僧本寺卽三韓古刹。英廟朝御筆奉案之地也。所重與他自別而寺運不幸去壬戌四月分偶逢回祿之法堂僧寮盡入灰燼中。伊後僅僅重修而佛像新造極爲難便是白加尼。卽聞順興浮石寺顏廢之後刻佛畫幀永絕香火已經四十餘年是如乎。彼寺

則有佛而無奉供之僧矣寺則有僧而無崇奉之佛。無論此寺彼寺以僧奉佛自是當然底道理。故己巳二月日通文於右道各寺齊會公議呈訴於順興官家祇承許題而其佛像始乃移安於矣僧本寺新法堂是白遣至于今七八年恪勤奉供」是白加尼，所謂尙基爲名僧本是浮浪之人僧形俗行。入本寺者爲屢年而得罪於寺中無緣出去仍爲托名於順興浮石寺與該寺餘存之僧互相設計謂以矣僧盜」去佛像誣呈議送於營門至有下嚴截之題教教是如

乎，蓋此盜佛之說卽千萬曖昧也。其時順興官家題旨與傳令一張并爲粘聯，仰訴以此下覽」則盜之一字不待矣僧之發明而自可脫空是乎矣。教之下矣等不勝悚惶使之還運以去則右漢不惟無意於奉佛反生恒沙之慾索賂數百餘金，此所謂賣」佛之賊也。矣寺一經火劫之後凋殘莫甚錢兩辦出其勢末由口除良，有錢兩而私自與受則烏得免買佛之罪乎。緣由茲敢齊聲仰訴於」旬宣之下爲白去乎，商教是後特下處分使彼無據之僧賊無得逞奸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丙子正月日

삼가 의송(議送)하는 사정은 저희들의 본사(本寺)는 삼한의 고찰로서 영조임금의 어필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 소중함이 다른 절과 저절로 구별되더니, 절의 운수가 불행하여 지난 임술년(1862) 4월 즈음 우연히 불이 나는 재앙을 만나 범당과 승료(僧寮)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뒤 겨우겨우 중수를 하였으나 불상을 새로 조성하는 일은 극히 어렵더니, 순흥(順興)의 부석사(浮石寺)가 퇴락해진 뒤 각 불화탱(刻佛畫幀)에 향화가 끊긴 지 이미 40여 년이 지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절은 부처님은 계신데 만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저희 절은 승려는 있는데 만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습니다. 이 절이니 저 절이니를 막론하고 승려로서 부처님을 만들어 모심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사년(己巳年, 1869) 2월 아무날 경상우도의 각 사찰로 통문을 띄워 함께 모여 공의로 순흥 관가에 등장(等狀)을 올려 삼가 허락하는 관제(官題)를 만들어 그 불상을 비로소 저희들 본사의 새 범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7~8년 동안 근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른바 상기(尙基)라고 이름하는 승려는 본디 부랑자로서 길모습은 승려이나 행실은 속인이옵니다. 본사에 드나든지 여러 해이온데, 저희 사중(寺中)에 죄를 지어 인연을 끊고 떠나더니 그 길로 순흥 부석사에 이름을 의탁하고는 그곳에 남아 있는 승려들과 일을 꾸며 저희들이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誣告)로써 영문(營門)에 의송(議送)을 올려 마침내 엄중한 제교(題敎)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이 부처님을 흠챌다는 말은 대단히 애매한 일입니다. 그때 순흥 관가의 제지(題旨)가 전령(傳令)한 장과 함께 첨부되었사오니, 우러러 호소하건대 이것을 살펴보시면 훔챌다는 '도(盜)' 한 글자는 저희들의 발명(發明)을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억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교(題敎)가 내려오자 저희들은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들에게 되가져 가도록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자는 부처님을 만들어 모실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끝없는 욕심을 내어 수백 금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부처님을 팔아먹는 도적입니다. 저희 절은 한번 화재를 겪은 뒤 쇠락함이 참으로 심해 돈을 마련해 내놓을 형편이 못 될 뿐더러,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사로이 주고받는다면 어찌 부처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죄를 면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이에 감히 목소리를 함하여 왕명에 따

라 다스리시는 순사또께 우러러 호소하오니 참작하신 뒤 특별히 처분을 내리셔서 저 불일 데 없는 승려 도적으로 하여금 멋대로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천만 바라옵니다. 이를 위해 분부하옵실 일.

순사또님 처분
병자년(1876) 정월 일

(4) 완의(完議)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完議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발급한 문서이다. 대청 광서2년 병자(大清光緒二年丙子, 1876) 삼월(三月)에 이루어진 대승사와 부석사의 합의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일은 귀 대승사(大乘寺)와 저희 부석사(浮石寺)는 서로 백 리 밖에 떨어져 있으나 모두 같은 도에 있는 옛 가람인데, 총림(叢林)의 흥망

完議

右完議事段貴大乘社與鄙浮石寺相距百里之外然俱爲一道古伽藍，而叢林盛衰興廢理數常然者也。近古以來寺運不塞大衆渙散之餘金色殿頽圯難緝，故諸佛幀像移安於無量壽殿多年矣。貴寺火後新建之際造像極艱仍謀鄙寺木凋佛像之意則皆爲佛子同袍之道難拒懇誠。故不得固留而移安間撓弄彼此妄舉也。鄙寺」方欲修補祖師殿之舉矣。貴寺貳佰伍拾兩助修之義出於盡誠相好事也。豈可」無一言證後之遺蹟乎。茲以完議爲去乎日後觀今者愈久愈厚表裏修好之地千萬」幸甚。

大清光緒二年丙子三月日
慶尙左道順興浮石寺

성쇠는 이치로나 운수로나 늘 있는 일입니다. 근자에 절의 운세가 부새(否塞)하여 대중들이 흩어진 나머지 금색전(金色殿)이 퇴락하고 기울었으나 수리조차 어려워 제불탱상(諸佛幀像)을 무량수전(無量壽殿)으로 옮겨 모신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귀사貴寺는 화재 뒤 건물을 새로 세울 즈음 불상을 조성하기가 극히 어려워 저희 절의 목조불상(木彫佛像)을 도모하려는 뜻이 있었으니, 같은 불자 동포의 도리로는 간절한 정성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묵혀 두지 않고 옮겨 모시도록 했으니, 그 사이 소란이 생기면 피차간에 잘못된 망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절은 마야흐로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려 합니다. 귀사에서 250냥으로 수리를 돕겠다는 뜻은 참된 정성에서 우러난 것으로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어찌 한마디 말로써 뒷날의 증거가 되는 유적(遺蹟)을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합의하오니 오늘 이후 이 일을 살펴 날이 갈수록 우의를 두터이 하여 안팎으로 정의(情誼)가 돈독해진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대청 광서(光緒) 2년 병자(丙子, 1876) 3월 일“

이상 보물로 기지정된 문서 외의 7점의 문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물금채(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관부문서의 하나인 물금채(勿禁帖)로서 관아에서 금한 일을 특정인에게 특별히 허가하여 준 사실을 적은 문서이다. 기사(己巳, 1869) 정월(正月)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물금채

慶尙左道奉化縣太白山城覺華寺」
塔源實錄兩閣守護兼藝文館僧風糾」正都摠攝爲勿禁護送事」即者順興浮石寺今者僧殘寺敗佛宇頽圯佛像頽壞之餘一佛世界一佛弟子」頽圯之像見者既歎之久矣。不意今者」尙州大乘寺灰堆年久寺勢凋殘永無」佛像。故浮石寺木幀佛陪去奉供之意今」爲侍去爲去乎所到諸處勿爲煩說之」次茲以勿禁護送爲去乎所經各處」無護送幸甚幸甚。

己巳正月日勿禁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경상좌도 봉화현 태백산성 각화사(覺華寺)의 선원각(璿源閣)과 실록각(實錄閣) 수호 겸 예문관 승풍 규정 도충섭은 물금호송할 일 이제 순흥(順興) 부석사(浮石寺)가 근자에는 승려는 줄어들고 절은 폐쇄해졌으며 건물들은 퇴락하고 불상은 넘어져 무너지니, 같은 부처님 세계의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 쇠락한 모양을 보며 안타까워한 지 오래입니다. 뜻하지 않게 근래에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는 (화재를 당해) 잿더미가 된 지 여러 해여서 사세(寺勢)가 쇠미하고 오래도록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석사의 목탱불(木幀佛)을 모셔다 받들려는 뜻으로 이제 모셔가려 하므로, 이르는 곳마다 번다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게 하니, 경유하는 곳마다 탈 없이 호송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기사년(1869) 정월 일 “

(2) 전령(傳令)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기사(己巳, 1869) 삼월초구일(三月初九日)에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傳令

傳令鳳陽面浮石寺僧徒及近洞頭民洞長爲惕念舉行事。 月前大乘寺僧徒以浮石寺佛尊移奉次一齊來到而不告于官自下擅便者事甚未妥。 故至有逐送之舉是加尼， 今則道內諸僧會同公議有此列名等訴。 故不得已許施爲去乎移奉之際毋論僧俗更不必岐貳而所經各處各別護送是矣， 如或有浮浪之輩橫出作拏則懲礪次捉上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押〕

“봉양면(鳳陽面) 부석사(浮石寺) 승도(僧徒)및 인근 동의 두민(頭民)과 동장(洞長)에게 보내는 전령(傳令)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행할 일. 한 달쯤 전 대승사(大乘寺)의 승도들이 부석사의 불존(佛尊)을 옮겨 모시려고 일제히 들이닥쳐 관가에 고하지도 않고서 아래에서 멋대로 처리한 것은 그 일이 심히 타당하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쫓아 보내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더니, 지금은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모여 공의(公議)로써 이처럼 이름을 나열하여 등소(等訴)하였다. 그러므로 부득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옮겨 모실 때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다시는 의논이 나뉘지 않도록 하여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되, 만일 부랑배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징려(懲礪)키 위해 잡아 올릴 일.

기사년(1869) 3월 초아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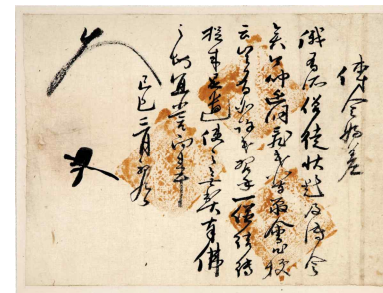
(3) 전령(傳令)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령

傳令將差

俄有所僧徒狀題及傳令矣。 今聞近洞亂民輩聚會作梗云豈有如許民習乎。 一併結縛捉來是遣使之契無奉佛之地宜當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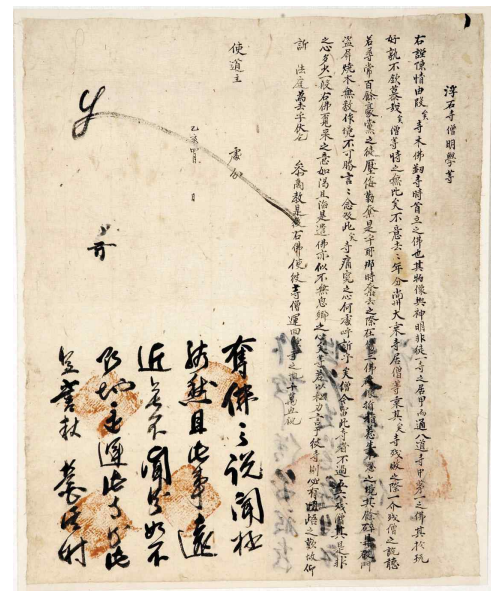
“장차(將差)에게 내리는 전령(傳令)

지난번 승도(僧徒)들의 장제(狀題)및 전령(傳令)이 있었다. 이제 듣자니 인근 동네의 난민(亂民)들이 모여서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어찌 이 같은 민간의 습속이 있겠는가? 모조리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모셔가는 일을 막

지 말도록 마땅히 거행할 일.
기사년(1869) 3월 초아흐레”

(4)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 四月 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소장을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1869년에 대승사에서 강탈한 불상을 반환하도록 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부석사 승 명학등(浮石寺僧明學等)”이라는 제명으로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의송(議送)이다.



浮石寺僧徒等狀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석사(浮石寺)의 승려 명학(明學) 등이 삼가 아뢰올 사정은 저희 절의 목불(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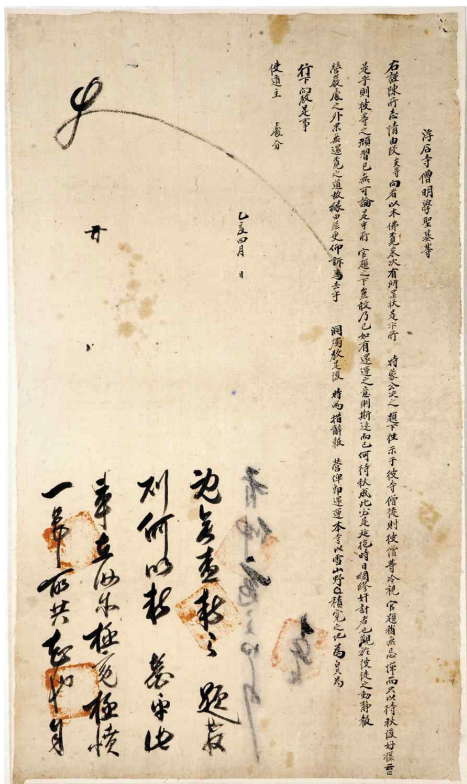
佛)은 절을 창건할 때 처음 세운 부처님입니다. 그 물상(物像)과 신명(神明)함은 비단 한 절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팔도(八道)의 절을 통틀어서도 제일가는 불상이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 누구인들 흠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비할 바 없이 자랑스러워하는 바이온데, 뜻하지 않게 지지난해 즈음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에 살고 있는 승려들이 저희 절이 쇠락함을 틈타 일개 못된 승려의 말을 듣고 마치 심상한 일인 양 백여 명의 거친 무리들을 동원해 모욕을 가하고 늑탈(勒奪)하온 바, 그 당시 빼앗아 갈 때 곁에 있던 세 불상 또한 형상을 파괴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킴이 차마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술을 깨트리고 문을 부수며, 병풍을 훔치고 나무에 불을 내는 등 무수한 사단을 일으킴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침에 저희 절의 원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요즈음 이 절에 머무는 저희는 불과 대여섯에 지나지 않지만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이야 매일반이오니, 앞에 말씀드린 불상을 되찾아 오려는 뜻은 마치 목마른 듯, 큰물이 넘치듯 하옵고 부처님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사적으로 저쪽 절에 이야기 한다면 반드시 저어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법정(法庭)에 호소하오니 엎드려 청하건대 잘 참작하신 뒤 말씀드린 부처님을 저쪽 절의 승려들로 하여금 저희 절로 되돌려주도록 하옵시길 천만 번 소원하옵니다.

사또님 처분
을해년(1875) 4월 일 사”

이에 대해 제사에서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하였다.

(5)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 四月 日. 題辭(十七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앞선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오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浮石寺僧徒等狀

(6)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1875년 12월에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의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리시어 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24일의 제사에서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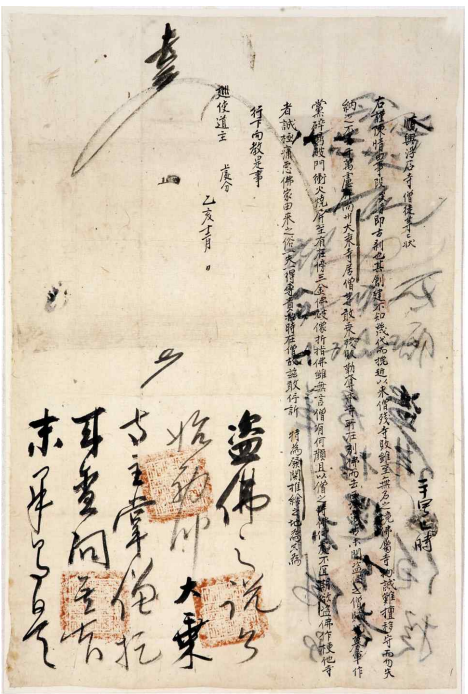
浮石寺僧明學聖基等

右謹陳所志情由段矣等向者以木佛覺來次有所呈狀是乎所特蒙公決之題下往示于彼寺僧徒則彼僧等冷視官題稍無忌憚而只以待秋後好樣云云是乎則彼等之頑習已無可論是乎所官題之下豈敢乃已. 如有還運之意則斯速而已何待秋成.此必是延拖時日綢繆奸計者也. 觀於彼徒之動靜報」營嚴處之外果無還覺之道. 故緣由茲更仰訴爲去乎洞燭教是後特爲措辭報營即還運本寺以雪山野積寬之地爲白只爲行下向教是事.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押〕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7)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光緒二(1876) 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1876년 정월 18일에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순흥 부석사(浮石寺)와 상주 대승사의 승도들이 목각탱 분장사실의 조사 사실과 관청의 제사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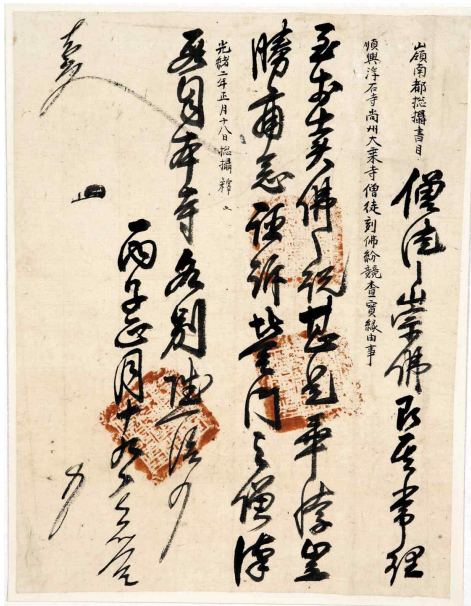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右謹陳情由事段矣寺即古刹也. 其創建不知幾代而挽近以來僧殘寺敗雖至無名之境佛屬寺物誠難擅移守而勿失」納之不去. 千萬慮外尙州大乘寺居僧等敢乘殘敗勒奪本寺所在刻佛而去. 西域萬古未聞盜佛之僧賊, 況募軍作」黨碎鼎破門衝火燒屏至有在傍三金佛破像折指, 佛雖無言僧有何顏. 且以僧之侍佛何處不宜期欲盜佛作梗他寺」者誠極痛惡. 佛家由來之俗一失一得專責於時在僧. 故茲敢仰訴特爲發關推給之地爲只爲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處分

乙亥十二月日

都巡使〔押〕



嶺南都摠攝書目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順興浮石寺尙州大乘寺僧徒刻佛紛競
查實緣由事.

光緒二年正月十八日攝釋[手決]

순흥 부석사와 상주 대승사 승도들
의 각불 분쟁의 연유를 사실대로 조
사한 일.

僧徒之崇佛即其常理.」至於賣佛之說
甚是乖悖豈」勝痛念. 認訴營門之僧
漢」段自本寺各別懲治事.

丙子正月十九日在營

都巡使 [押]

승도들이 부처님을 존송하는 것은
멋뻐한 이치이다. 부처님을 팔아먹는
다는 말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니 어
찌 애통한 마음을 가눌 수 있겠는
가? 영문에 터무니없이 무고한 승려
는 본사에서 각별히 정치할 일.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전번호 동산 2017-01-015

15.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立像)

가. 검토사항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
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8.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
(‘15.12.1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석조여래삼존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1982.12.17지정)
석조여래입상 - 비지정
- 명 칭: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立像)
- 소유자(관리자): 공유(청주시)
-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 수 량: 2건 2점
- 규격(cm): 석조여래삼존상 170×206,
불상 높이 115, 어깨폭 57 / 우협시 보살상 전체높이 116, 높이 87
석조여래입상 높이 144, 상높이 150.5, 어깨 48
- 재 질: 화강석
- 형 식: 삼존, 독존

- 제작연대: 삼국시대(6세기 중엽)
- 제 작 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상에서 논의했다시피 비중리 석조 삼존불좌상과 석조여래입상은 5세기 내지 6세기 전반의 독점금동불좌상이나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에 원류를 두고 있으면서도 형태나 U형 옷주름, 세겹두광배 등 도상특징에서 6세기 3/4분기에 속하는 불상양식으로 판단된다.

청주 비중리 일대는 원래 백제에 속했으나 고구려의 남하로 5세기부터는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6세기 후반기의 청주 비중리 일대는 나제동맹으로 551년 전후부터 신라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비중리불상들은 6세기 후반기(3/4분기)의 불상양식이므로 국적은 신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갖 이 지역을 접수했기 때문에 문화환경은 백제와 고구려에 기반을 두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구려는 1세기 이상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 등의 예에서 보다시피 고구려적 기질이 농후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비중리불상이 고구려양식적 요소에 일부 백제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이 불상은 신라국적에 고구려, 백제적 요소 이른바 3국의 복합적 문화요소가 조화되어 조성된 불상이 바로 비중리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상은 복잡했던 삼국의 정세가 잘 반영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의미심장한 불상으로 높이 평가되며, 삼국시대의 가장 귀중한 초기석불상(石佛像)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고대시기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그 희귀성과 역사적, 미술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조각이 분명하므로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을 함께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지정 가치 있음)

삼국시대의 불상일 경우 발견되는 장소에 따라 제작 국가와 그에 따른 역사적·시대적·미술사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고대의 불상일수록 이동이 용이한 소형의 금동불상이 많이 남아 있고, 대형의 석조불상이나 금동불상은 드문 편이다. 이 여래삼존상과 여래입

상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대형의 석조불상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분위기를 읽는데 절대적인 자료이다. 이 불상이 자리하고 있는 충북지역은 삼국의 국경이 서로 마주대하던 지역으로, 삼국이 영토 확장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불상이 편년되는 시기에 따라 이 불상의 국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늘 품고 있다. 이곳은 6세기 전반기(2/4분기) 이전은 고구려가 50여 년간 점령했던 지역이며, 6세기 중엽 이후는 신라 영토였고 7세기 초에는 백제와의 국경지대였을 만큼 복잡했다. 6세기 전반기로 불상을 편년할 경우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고구려 불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경우 신라시대 불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 만한 역사적·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고구려가 점령하던 시절에 제작된 불상이라면 현존하는 유일의 고구려 석조불상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조각사적 무게를 지니며, 신라·백제 불상이라고 해도 가장 고식을 떠는 신라시대 불상이라는 점에서 대등한 조각사적 무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불상의 국적이 삼국 어느 나라이건, 6세기 중·후반은 삼국이 모두 상호 교류와 경쟁을 통해 문화발전을 이룩해 나가던 시기였고, 국경지대는 그 전초기지였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과 문화교류가 공존하던 공간에 조성된 이 불상은 삼국의 복합적인 문화적 양상이 함께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불상은 삼국시대 문화교류의 양상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비록 오랜 세월동안 역사의 상흔과 세월의 고난을 겪으며 파손과 마멸이 있지만, 그 역사적·조각사적 의의를 따져볼 때 마땅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1) 조사경위

충북대학교 이용조교수에게 과제로 제출된 석조 삼존불좌상과 석불입상 그리고 광배 등 비중리 석불상들의 내용을 토대로 동국대 문명대 교수와 충북대 이용조교수가 1979년 3월 4일에 조사, 삼국시대 고구려 양식 계통의 석불상으로 확인한 후 충청일보 등 지방신문과 중앙일간지에 널리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발견된지 3년 후인 1982년에 불교학보(문명대 「청원 비종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 (동국대, 1982.9))에 게재되어 학계에 정식 보고되었다. 여기서는 삼국시대 불상이지만 여러 조건으로 보아 고신라시대의 고구려 불상 양식을 계승한 고구려식 신라불상으로 논의한 바 있다.

2) 역사적 배경

고구려가 백제수도 한산을 점령한 475년 이후 고구려는 계속 남하하여 서쪽으로는 아산만에서 조령, 죽령을 넘어 한때는 경북 영주, 봉화에서 충북 괴산, 청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고구려의 위협적인 남하에 대항해서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이라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고구려를 압박하여 마침내 551년부터 한강유역까지 진출하게 된다. 신라는 551년 이전인 525년경에 청주(당시 西京), 옥천(당시 管山), 진천(당시 母山)까지 진출하고 550년에는 도살성과 금현성(현 全義)을 공략한 후 551년에는 진흥왕이 친히 현 청주 북이면의 낭성(娘城)에 순수하여 충주에 있던 대 음악가 우륵까지 불러 북진을 현창하는 큰 연회를 베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550년경까지는 이 청주 비종리 일대는 신라영토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종리 석불상들이 550년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불상의 제작국은 신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II. 석조삼존불좌상

석조삼존불좌상은 발견 당시 본존 어깨 이상과 어깨 이하 그리고 오른쪽(向左) 협시보살상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파손상태로 있었는데 이들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세 쪽을 붙여 하나의 석불상으로 복원해 놓았다.

발견 당시 왼쪽(向右) 협시보살상 부분은 찾을 수 없었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일찍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이처럼 삼존불좌상(三尊佛坐像)은 완전복원하면 한 돌에 본존불좌상과 좌우협시보살입상 등 삼존불상과 함께 광배, 대좌 등을 모두 조각한 석조 일광삼존불상(石造一光三尊佛像)이 되는 셈이다. 특히 측면과 뒷면 등도 잘 다듬고 조각까지 하고 있어서 원각적인 기법도 나타내고 있다.

본존불좌상은 삼원광(三圓光)의 두광을 배경으로 높은 부조(高浮彫)로 머리부분을 조각했지만 현재 깨어져 얼굴의 형태는 알 수 없고 윤곽만 확인될 뿐이다. 상체는 뚝섬출토 금동불좌상이나 군수리탑출토 납석불좌상처럼 삼각형에 가깝게 어깨가 좁고 팔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며 가슴 등은 볼륨감이 뚜렷하지 않고 상현좌에 덮여있는 무릎은 높지만 상체에 비해서 넓지 않은 편이다. 얼굴에서 깨어진

부분이 가슴부위까지 내려와 어깨와 가슴의 표면 부분이 탈락되었지만 양감은 크게 손상되지 않아 상체가 거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무릎은 비교적 크고 높은 편이지만 U형의 좁다란 주름을 이루는 상현좌가 무릎을 덮고 대좌로 내려가고 있어서 양감은 뚜렷하지 않다.

오른손은 무릎위에서 바로 들어 올려 손바닥을 보이는 시무외인을 짓고 있고 왼손은 무릎위로 걸치고 있는데 이 손은 신체에 비해 상당히 큼직한 편이어서 고식(古式) 불상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형태는 연가7년명 금동불입상(479년 또는 539년)에서 유래하지만 이보다 더 진전된 양식으로 군수리탑 납석불좌상과 현재로서는 가장 유사한 편이며, 좁고 긴 U형 옷주름의 상현좌는 고구려 평양토성리출토 소조불상 범(范)과 유사한 편이다.

특히 3중 두광배의 층단식 형식은 물론 좌우 5화불의 특징은 중국 동서위(東西魏) 내지 제주(濟州) 양식과 근사한 편이며, 이와 연관된 계미명(癸未銘=563년) 금동불입상 및 경(景) 4년(571년) 금동불입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상현좌 아래 중앙 본존불과 좌우협시3존상은 풍화가 심하며, 3존불 좌우 사자상도 오른쪽(向左) 상은 불분명하지만 활달한 꼬리가 뚜렷하고, 왼쪽(向右)상은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런 대좌의 부조상들은 인도의 마투라상은 물론 남북조시대 중국불상에서 크게 유행한 형식인데, 삼국시대 불상에는 확실한 예가 없지만 뚝섬 불상의 사자상이 있는 대좌나 장천 1호묘 불상대좌의 사자상 등에 다소 비슷한 형식의 도상이 있는데 3존과 사자상의 조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예로 크게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좌우 협시보살상 중 오른쪽 보살상만 남아있는데 3중 광배, 좌우로 내려진 머리칼 형태, 하체의 평행 세로 옷주름선과 한 줄의 X자의습선 등은 중국 동위나 제주양식 보살상의 영향을 받은 계미명삼존불이나 경4년명금동삼존불의 협시보살상과 유사하고 군수리 금동보살입상과도 근사하지만 좁고 단순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와 대좌 하대(下臺)의 부조상 등은 고구려연가7년명불상이나 뚝섬불상에 원류를 두고 있으나 3중 층단 두광이나 옷주름, 보살상의 머리칼이나 X자의문 등에서 계미명금동불입상이나 군수리탑 석불좌상과 금동보살상으로 이어지는 양식계열이므로 6세기 후반 특히 6세기 3/4분기에 가까운 불상으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II. 석조여래입상

석조삼존불상 옆에는 석주(石柱)에 새겨진 석불입상이 서있다. 즉 이 불상은 돌기둥의 앞면을 짝차게 석불입상을 부조로 새긴 것이다.

돌기둥 상단부 테두리를 따라 O형의 두광이 둘러있고 두광 안에는 머리부분이 부조되었으나 표면이 탈락되어 윤곽만 남아있다. 이 윤곽으로 유추해보면 머리와

얼굴이 긴편으로 생각되는데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의 얼굴이나 계미년(563년)명 얼굴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통주형의 체구는 양감이 거의 없는 짧은 단신형(單身形)인데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與願印)을 한 두 손은 유난히 큼직하여 신체에 비해서 거의 1/3보다 더 큰 편이어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유난히 큰 손은 연가7년명금동불 입상이나 계미명금동불상에 가까운 고식에 속하는 손 크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하체에 형성된 층단 U자형 옷주름은 역시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에서 유래하여 계미명불상으로 이어지는 형식의 옷주름인데, 군수리탑 납석불좌상에 까지 계승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형태는 연가7년명불상에서 유래하지만 좌우 날개형 옷깃이 없고 동형(童形)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등 563년 계미명불상에 가까운 6세기 후반기(3/4분기 이후)에 속하는 불상으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

문명대, 「청원 비종리 삼국시대 석불상 연구」 『불교학보』 1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2.9)

「청원 비종리 석불상」 『삼국시대 불교조각사연구』 (예경, 2003.9) 제수록.

외 논문다수 있음, (첨부)

□

○ 현 상

1979년 처음 조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석조삼존불상과 석불입상은 지금의 초정약수터에서 2km 떨어진 지점으로 이 일대의 시굴결과 조선시대까지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당초에 삼존불상은 깨어진 채 언덕 기슭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를 모아서 지금은 보호각 안에 보존하고 있으며 석조여래입상은 보호각 앞에 놓여있다.

석조삼존불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불상, 대좌가 거의 환조(丸彫)에 가깝게 고부조로 조각되었는데, 현재 좌협시 보살상은 잃은 상태이다. 본존불은 머리 부분을 비롯해서 가슴부위까지 깨어져 상체부분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어깨는 둥글었던 듯하다. 오른손은 들어서 시무외인을 결하고,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놓았는데, 여원인의 손바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무릎을 덮은 본존상의 옷자락은 중앙에 3~4개의 긴 타원형의 U자형 주름을 이루고 그 좌우는 옷자락이 일정한 간격으로 아래로 늘어졌으며 향우측(向右側)의 옷자락 끝단은 오희 옷주름을 이루고 있다. 그 아래로 방형대좌의 중앙에는 여래좌상과 좌우 협시상이 양각되어 있고 대좌 좌우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오른쪽 사자만 희미하게 몸통 일부의 윤곽과 꼬리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광배는 원형의 두광 주위로 삼중의 동심원이 새겨져 있고 신광부분에도 역시 둥근 곡선의 윤곽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부에 문양은 없다. 두광과 신광의 좌우로 각각 5구의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으며 그 형태는 고식(古式)의 선정인 불좌상으로 정상이 뾰족한 광배를 가지고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얼굴과 머리 부분의 훼손이 심하긴 하지만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다. 세 겹의 탐스러운 머리다발이 어깨위로 늘어지고 목에는 끝이 뾰족한 침관형 목걸이 혹은 둥근 구슬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으며, 가슴에는 사선으로 두꺼운 내의(內衣)가 표현되어 있다. 천의(天衣)는 양 어깨에서 아래로 늘어져 X자형으로 교차되었으며 양 팔에는 두꺼운 천의자락이 걸쳐져 있고, 하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잡힌 치마[裙]를 입고 있다. 또한 머리 뒤에는 가장자리가 돌출한 원형의 두광이 새겨져 있다.

일광삼존불좌상의 보호각 앞 뜰에 세워져 있는 석조여래입상은 얼굴이 훼손되어 상호를 알아볼 수 없으나 머리 뒤에 광배가 보이며, 어깨는 각이 지고, 시무외·여원인의 통인을 결한 큼직한 손과 왼쪽 손목위에 걸쳐진 가사자락, U자형의 옷주름이 새겨진 대의 아래에 주름이 지어진 치마가 표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삼존불상이 하나의 광배에 함께 표현되는 ‘일광삼존불상’의 형식은 고구려 금동불상에서는 경4년 신묘명 금동여래삼존상(571년)을 비롯해서 몇 점이 전해오고 있는데, 비종리 삼존불상은 석조로 일광삼존불상을 새긴 가장 이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존불상의 대좌 좌우에 새겨진 사자상(獅子像)은 집안(集安)에 있는 장천 1호묘 벽화 불좌상의 대좌에 보이는 사자상과 비교될 수 있고, 광배에 새겨진 10구의 화불(化佛)은 고구려 불교조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봉화 북지리 마애불좌상의 광배 화불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비종리 삼존불상이 고구려 조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불상의 제작국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비종리 삼존불상이 위치한 지점은 고대의 주요 교통로상이라는 점으로서 신라 진흥왕대의 북진로(北進路)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항성에서 경주로 통하는 대당 교통로가 통과하던 지점이기도 하므로 이 불상이 조성된 배경은 6세기 후반에 청주지역에 진출한 신라의 지배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비종리 삼존불상의 제작국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475년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고구려의 불교조각의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에서 볼 때, 신라의 지배가 시작된 6세기 중엽에서 후반 무렵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구려계 장인(匠人)에 의한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비종리 석조여래입상 역시 삼존불상과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생각되며 수인과 옷주름, 전체적인 조형감에서 판단할 때, 삼국시대 6세기 불상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진홍섭,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동화출판공사, 1976.

문명대, 「淸原飛中里 三國時代 石佛像의 研究」, 『佛敎學報』 19, 1982.

한국고원대학교박물관, 『飛中里 一光三尊石佛 復元調査 및 原位置探索調査報告書』, 1992.

徐榮一, 「6世紀 新羅의 北進路와 淸原 飛中里 石佛」, 『史學志』 30, 1997.

김춘실, 「청주 비중리 석조불상의 연구 - 조성 국가의 파악과 관련하여 -」, 『美術史學研究』 290·291, 2016.

□

○ 조사내용

이 석조삼존상은 1979년 비중리 초입에 있는 작은 동산 주변에 파손된 채 발견되어 따로 보존되어 왔던 것인데, 이후 편들을 조립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고 1987년에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석조여래입상은 삼존상이 있는 남쪽 전방에 석조광배와 함께 나란히 서 있다. 석조여래삼존상은 좌상의 본존과 입상의 좌우 협시로 구성되었을 것이나 현재 좌협시 보살상은 결실되었고, 우협시도 탈락되어 있던 것을 수습하여 지금과 같이 복원한 것이다. 삼존상은 하나의 광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부 모퉁이의 모를 둥글게 죽인 방형의 광배에 좌우협시를 덧댄 독특한 삼존형식을 띠고 있다. 광배의 상부는 흠을 파터를 이루게 했는데, 상면에 지붕과 같은 어떤 장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일광삼존형식은 중국의 경우 6세기 초부터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563년으로 추정되는 ‘금동계미명여래삼존상’ 등 주로 금동불상에서 확인되고, 석조불상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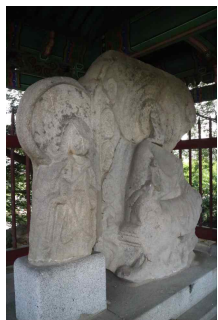


그림 1 석조여래삼존상 전경



그림 2 본존 여래좌상



그림 3 우협시 보살입상

방형의 거신광배를 등지고 앉은 본존상은 머리가 파손되었고, 아무런 문양을

남지 않은 4겹의 동심원을 머리 주변으로 돌려 두광을 나타내었고, 두광과 연결된 신광도 佛身을 따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외연을 불꽃문으로 처리한 점에서 다르지만 동심원대를 반복하여 표현한 두·신광의 표현은 北魏 熙平元年(516)명 금동보살입상이나 北魏 熙平 3년(518)명 금동이불병좌상 등 6세기 초반 북위시대의 불상 광배와 비교할 수 있다.

머리의 중심부에는 구멍(지름 3cm, 깊이 5.5cm)이 뚫려 있는데, 제작 당시부터 머리를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기 위해 뚫은 것인지 후대 보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멍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머리만을 별도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후대 보수 과정에서 생긴 구멍으로 추정된다. 대의는 통견으로 걸쳤으며, 가슴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內衣의 착용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무릎 앞으로는 대의자락이 U자형으로 중첩시켜 흘러내린 것이 인상적인데, 480~490년경으로 추정되는 大和文和館所藏의 금동여래좌상과 북위 太和 13년(489)명 금동이불병좌상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확인되지만, 완전히 漢化된 착의형식과 주름의 표현은 동위 天平 2년(535년)명 석조여래좌상에 훨씬 근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산 연동리에서 보다 정돈되고 정형화된 모습의 U자형 주름이 등장하는데, 이 석불은 이 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手印은 마멸이 심하지만 북위 연흥 2년(472)명 석불좌상과 같이 오른손은 들어 施無畏印을, 왼손은 내려 與願印을 결한 것으로 추정되며,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형의 대좌는 중앙에 향로를 두고 좌우에 사자를 배치한 獅子座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형식의 방형 사자좌는 중국에서도 3세기 말의 미국 포그미술관 소장 금동여래입상을 시작으로 後趙 建武 4년(338)명 금동여래좌상, 그리고 523년의 운강석굴 빈양중동 본존상 등 4~6세기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古式의 대좌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세기경 중국 전래품으로 추정되는 독섬출토 금동여래좌상과 5세기 후반의 集安 長川里 1호분 전실 동측 받침 천정에 보이는 禮佛圖 정도로 확인될 만큼 매우 드물며, 석불로서는 이 삼존상이 거의 유일한 예이다. 특히, 이 불상은 장천 1호분 예불도와 마찬가지로 대의자락이 대좌를 덮어 내리지 않은 非裳懸座 형식이어서 古式 중에서 고식을 띤다. 두·신광의 좌우 측면에는 연화좌에 앉아 선정인을 결한 5구의 化佛을 각각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우측에 5구, 좌측 상단에 1구만 남아 있다. 화불은 꽃잎형의 광배를 갖추고 연화좌에 앉아 선정인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10구를 표현한 것은 시방계불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광배의 외연을 따라 상승하듯이 표현한 점은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의 화불 표현방식과도 유사하지만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이어서 시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불신에 비해 큰 둥근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이목구비는 마멸이 심하여 확인할 수 없다. 보관도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보발은 두 가닥을 서로 교차시켜 엮었지만, 寶髻는 만들지 않았다. 얼굴 양측으로는

보관의 관식이 무겁게 늘어졌으며, 목에는 心葉形의 두터운 영락장식 내지 구슬이 장식이 붙은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천의는 허벅지에서 X자형으로 교차시켜 팔목으로 두텁게 걸쳐는데, 표현방식이 매우 도식적이다. 수직 주름으로 처리한 치마를 입었다. 오른손은 어깨에 들었고, 왼손은 허리춤에서 지물을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위에는 천의를 고정하는 원형의 장식이 표현되었다. 관대의 표현과 X자형의 천의, 심엽형의 장식, 그리고 지물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북위 熙平 3년(518)명 금동보살입상이나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과 양식적으로 상통하지만, 天衣의 표현이 도식화되고 좌우 뺄침이 완화된 등 양식적 변화도 관찰된다.



그림 4 석조여래입상



그림 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그림 6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밖에 서 있는 독존의 여래입상은 아래 부분은 넓고 윗부분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의 돌에, 불상도 그에 상응하게 좁은 어깨와 넓은 하체를 가진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얼굴은 마멸되어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며, 왼쪽 팔뚝으로 걸쳐 넘긴 통견식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施無畏與願印을 결하고 있다. 대의 주름은 U자형으로 입체적으로 흘러 내렸으며, 裙衣는 일정한 간격의 수직주름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태안마애삼존불이나 서산마애여래삼존상 등 6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석조여래삼존상은 삼국시대 제작된 일광삼존상으로 금동불상에서 그 예가 많이 보이지만 석조불상으로는 유일한 예로서 귀중하다. 본존불의 광배가 배 모양 또는 꽃잎모양이 아닌 네모난 형태로 본존과 협시가 한 광배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존불의 광배 옆에 겹달아 내어 오묘한 조형감각을 연출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발견 당시부터 삼국시대 6세기 중반 작으로 한국조각사에서 중요시 다루어진 불상이다. 불상은 향로와 사자가 표현된 방형의 사자좌를 보이며, 단순한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광배, U자형으로 짧게 드리운 비상현좌

의 주름표현, 보살상은 X자형으로 교차한 주름과 심엽형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5-6세기에 유행한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동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등 6세기 전반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강한 뺄침의 대의자락이 이곳에는 거의 표현되지 않아 이 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인 6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문명대, 「청원 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 1982(同著, 『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재수록)

서영일, 「6세기 신라의 북진로와 청원 비중리 석불」, 『사학지』 30, 단국사학회, 1997

김준실, 「청주 비중리 석조불상 연구 - 조성 국가의 파악과 관련하여」, 『미술사학연구』 290·291, 한국미술사학회, 2016

16. 최석정 초상(崔錫鼎 肖像)

가. 검토사항

‘최석정 초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5.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9.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최석정 초상(崔錫鼎 肖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초상 1폭, 함 1점
- 규격(cm): 173.0×90.0
- 재 질: 비단에 채색
- 형 식: 족자
- 제작연대: 조선후기(18세기 초)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전래가 많지 않은 18세기 초 초상으로 엇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개인과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으로 正面像인 <南九萬(1629-1711)肖像>과 1720년 완성된 耆社契帖(보물 제638호)에 속한 <申鉉(1639-1695)肖像>과 친연성이 크다. 같은 시기 제작된 신임의 평상복 반신상과 전신상 등과 안면 처리며 세부묘사 등 화풍에서 동 시대성 등 친연성이 커 제작 시기는 18세기 초로 사료되면 이를 제작한 화가도 이들 화원 중 하나로 사료된다.

○(지정 가치 있음)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최석정이 사망하기 전에 초본이 제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정본이 만들어졌으므로 그의 사망 전후인 18세기 초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7세기 공신도상에서 보이는 다소 경직되고 껍채감이 두드러지는 신체표현에서 벗어나 좀더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18세기 초엽 초상화의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학자로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최석정이란 인물의 초상으로 중요한 작품이다.

초본, 영정함 등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초상을 싸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지, 보자기 등도 추가 조사를 통해 함께 지정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지정 가치 있음)

<최석정 초상화>는 17세기 이전의 공신도상의 특징에서 한 단계 벗어나 있으며, 18세기 초에 나타나는 초상화의 형태와 묘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1700년을 전후한 사대부 초상화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아울러 18세기 초 사대부 초상화의 유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숙종 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고위관료인 최석정의 역사적 지명도를 고려할 때 <최석정 초상화>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명칭은 ‘최석정 초상 및 함’으로 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된 이 초상화는 2004년 기탁 이전에 개장했다. 일부 화면 내 오염이 보이거나 초상을 살필 때는 문제가 없다. 원 장황을 견지한 상태임. 현존하는 18세기 전반 초상들과 비교할 때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에 든다. 다만 자세히 살필 때 가로, 세로로 평치며 말면서 난 크랙이 적지 않으며 단령 왼쪽 가슴 위와 흉배 아래 부분 탈락 부분도 보인다. 녹색 단령은 검푸른 색조로 변색되었다.

○ 내용 및 특징

崔錫鼎(1646-1715)은 수학·陽明學·音韻學 등 다방면에 관심을 지닌 융합형 지식인으로 이조판서·우의정·영의정을 두루 역임한 문장과 文臣이며 學者이다. 그의 저술 중 하나로 수학책인 九數略에선 서양 수학의 거두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보다 반세기 이상 앞서 현대 수학 조합이론(Combinatorial Mathematics)의 선구자임도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졌다.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겉으로는 온화한 外柔內剛으로 감정의 기복을 잘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정치적 浮沈 속에서도 소신 있는 관료로, 의리나 명분론에 집착하지 않고 백성의 어려움과 정치적 폐단을 제거하려 애썼다. 黨爭의 화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애쓴 정치가로 평가되는 등 역사적 足跡이 선명하다.

본관은 全州, 초명은 錫萬, 자는 汝時·汝和, 호는 存窩·明谷 등이다. 수락起南(1559-1619)의 증손이며, 부친은 한성좌윤 後亮(1616-1693)으로 영의정 鳴吉(1586-1647)에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안헌징(安獻徵)의 딸이다. 석정 또한 後尙(1631-1680)에게 입양되었다.

석정은 9세에 詩經·書經을 암송했으며 12세에 周易을 도해하는 등 神童으로 지칭되었다. 南九萬(1629-1711)과 李慶億(1620-1673) 등의 문인이고, 朴世采(1631-1695)를 좇아 더불어 사귀면서 학문을 닦았다. 17세에 監試 초시에 장원, 21세 진사시에 장원과 동시에 생원시도 했고 16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槐院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承文院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초상은 얼굴 묘사에서 특히 정면과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니 빛을 의식한 듯 정면은 밝으나 측면은 바람에 의한 선염으로 확연한 입체감을 보인다. 안면의 이목구비는 굵기를 달리한 갈색 선묘로 얼굴과 잔주름을 나타냈고, 丹頂 雙鶴과 호피의 세부 묘사에 섬세함과 흉배 내 五方色 彩雲은 화사함을 더한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드문 현존하는 최석정의 스승이기도 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개인소장 등 正面像인 南九萬과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1720년 완성된 보물 제638호인 耆社契帖 내 좌안칠분인 申鉞(1639-1725) 초상과 같은 초본에 의해 동 시대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반신상과 전신상 등 필치와 화풍에서 친연성이 크다. 제작시기 및 제작자에 대한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계첩 제작에 참여한 金振汝, 張泰興, 朴東普, 張得萬, 許倣 등 畫員 중 한 사람이 그렸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 문헌자료

조선미, 초상화연구, 초상화 초상화론(문예출판사, 2007)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돌베개, 2009)

최석정, 九數略 乾(교우사, 2006)

김용운, 김용운, 한국수학사(산림, 2009)

□

○ 현 상

한 폭 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면에 얼룩이 남아 있고, 단령의 색이 바랬으며 부분적으로 결손되었다. 2004년 박물관에 기탁되기 이전에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태는 양호하며, 장황은 원래의 상태를 거의 유지했다. 상축에는 원환, 배묵, 국화동장식으로 구성된 고리가 특이하게 3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붉은색 끈에 붉은색 술이 달린 유소가 끼워져 있다(유소는 일부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함). 하축의 마구리는 목재로 만들어 부착했다. 초상화는 결봉 없는 한 폭의 비단에 그려졌다.

○ 내용 및 특징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여시(汝時), 여화(汝和), 호는 존窩(存窩), 명곡(明谷)이다. 16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남인을 비판하다가 삭직이 되기도 했는데 1680년 경신환국 이후 여러 높은 관직을 역임하고 1686년과 1687년에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후 영의정으로 여러차례 지냈다. 특히 말년에는 수학에 몰두하여 큰 업적을 내기도 했다.

이 작품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모아 잡은 채 교의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배경은 생략되었으며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다. 교의에는 표피가 덮여 있고, 두 발은 족좌 위에 놓았다. 쌍학흉배와 서대를 착용하고 있다. 얼굴을 비롯한 세부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전체적으로 정교함이 두드러진다.

얼굴은 열고 굵은 선으로 윤곽을 표현하고 가는 선으로 주름을 나타냈으며 명암으로 굴곡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왼쪽 눈 위에는 붉은 점 같은 것이 있고 왼쪽 뺨에도 검버섯 자국이 여러 개 있다. 인물의 생김새와 인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한 것이 역력하다.

초록색 단령은 일정한 굵기의 먹선으로 윤곽선과 옷주름선을 간략하게 그렸으며 부분적으로 명암을 표현했다. 단령의 구름문양은 의복의 굴곡과 상관없이 평면적으로 묘사했으며 트임 사이로는 청색 철릭과 안감이 드러난다. 흉배는 단정학과 오색구름을 세밀하게 그렸으며 일부 금니를 사용했다. 교의에 덮인 호피는 터럭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표현했다.

초상과 더불어 목재 영정함, 유지초본, 초상을 맡았던 한지 여러 장, 초상을 썼던 보자기 등이 함께 전하고 있다. 최석정의 아들인 최창대(崔昌大, 1669-1720)의 반신상 초상 2점도 함께 전한다.

초본은 이번에 실사하지 못했으나 유지에 그려졌고 방건을 쓴 모습이다. 좌측 상단에 “初本”이라고 목서가 적혀있다. 얼굴 묘사가 최석정 초상과 거의 동일하여 이 초상을 그리기 위한 초본임이 분명하다. 보존상태는 좋지 않아 하단에 꺾임이 있고 결손부가 있다.

영정함은 주칠이 되어 있고 금구가 붙어 있으며 현재 자물쇠가 전한다. 내부는 너문 바탕에 초록색 풀 문양이 있는 흰 종이가 붙어 있는데, 조선시대 종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흥미롭게도 안쪽에는 둥근 흠이 두 개씩 파인 칸막이가 2개 붙어 있어 족자 2개를 넣도록 되어 있다. 최창대의 초상 2점을 보관했던 주칠 영정함도 함께 전하는데 금구가 붙어 있고 내부는 붉은 주칠에 역시 흠이 두 개씩 파인 칸막이 2개가 붙어 있다.

한지에는 “明谷公像”이라고 목서가 쓰여있는 것이 2장, “昆侖像草本三”, “像〇本一又三”,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이 1장으로 총 5장인데 근래의 것은 아니다.

보자기는 청색으로 무늬가 있는 비단 2겹으로 만들었다.

□

○ 조사내용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본관은 전주. 초명은 석만(錫萬). 자는 여화(汝和), 호는 명곡(明谷)·존와(存窩). 남구만(南九萬)과 박세채(朴世采)의 제자이다. 최석정은 윤증(尹拯), 남구만 등과 함께 소론(少論)의 영수로 활약하면서 모두 8차례의 영의정을 지내며 정계와 사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부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양명학(陽明學)을 공부한 관계로 이 시기 노론의 경직된 학문 풍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전개시킬 수 있었다. 또한 최석정은 정치적 부침을 겪을 때면 충북 진천에 내려와 지냈으며, 사후 청주 북이면 대율리 선영에 묻혔다. 그의 위패는 진천의 지산서원(芝山書院)에 모셔져 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문집으로 『명곡집』을 남겼다.

○ 현상

오사모(烏紗帽)에 녹색 관복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이다. 얼굴은 오른쪽으로 약간 돌린 좌안 8분면의 방향을 취했다. 오사모는 두정과 모정부분에 변화가 드러나지 않지만, 양 쪽의 각은 윤곽선은 짙게 하고 얇은 담묵으로 무늬를 넣어 섬세한 특징을 살렸다. 의자에는 표범가죽을 걸쳤고, 화문석이 깔린 족좌대(足座臺)에 흑피혜(黑皮鞋)를 신은 두 발을 올렸다. 쌍학흉배(雙鶴胸背)에 정1품의 품계를 지닌 관료만이 댈 수 있는 서대(犀帶)를 착용했다. 안면부는 선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그린 뒤, 선묘에 붙여 미세한 색감을 가미하는 선염법으로 채색하였다. 미간과 이마에 간략한 주름이 있고, 눈 주위에도 주름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얼굴은 정면과 측면의 경계인 이마에서 볼과 턱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미세한 명암의 톤을 주어 입체감을 강조했다. 수염은 성근 편인데, 아래쪽 수염 부분에는 살색조의 색감이 깔려 있다.

관복은 일정한 두께의 선으로 윤곽과 주름을 규정지었으나 짙은 채색에 묻혀 선조가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선묘 옆에 음영을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단령의 주름 선에 따라 명암과 굴곡이 들어가 있으나 운문(雲文)과 칠보문(七寶文)으로 구성된 문양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확립적으로 그려져 있다. 족좌대와 좌우에 드리워진 표범 가죽의 묘사는 매우 정교하다. 얼굴 원편으로 세 군데 오염된 흔적이 보이며, 단령의 왼쪽 팔 부분에 비단이 박락된 흔적이 노출되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하지만, 얼굴과 흉배 등에는 손상이 없어 유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작시기

그림의 제작시기는 우선 쌍학흉배와 서대를 착용한 정1품의 품계에 오른 이후임이 분명하다. 최석정은 52세 되던 1697년(숙종 23)에 정1품 우의정에 올랐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최석정의 52세 이후 사망한 70세(1715년) 사이에 그려진 것이 된다. 외모의 연령대로 볼 때 1700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한다면, 18세기 초에 해당하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남구만 초상화>와 비교할 수 있다. 얼굴 묘사에 있어 주름을 그린 선묘에 선염법을 붙여 구사하여 입체감을 내는 묘사법과 흉배의 형식으로 볼 때, <최석정 초상화>는 <남구만 초상화>와 유사성이 있어 보이며, 두 점의 초상화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 특징

선묘는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선염에는 서양화법에서 유래된 음영법이 적용되어 있다. 안면 묘사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초에 그린 <이덕성(李德成) 초상화>와도 공유되는 특징이 있지만, <이덕성 초상화>는 고식적인 교의자의 형태를 취한 점이 다라 <최석정 초상화>보다 뒤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최석정 초상화>는 구체적으로 1720년대 기년작 초상화인 <유수(柳綏) 초상화>(1726), <오명항(吳命恒) 초상화>(1728), <박문수(朴文秀) 초상화>(1728)에 나타난 형식 보다 이전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1720년대의 초상화에 비해 팔과 무릎 부분의 돌출감과 단축적인 표현 등 신체의 입체감을 드러내는 데에는 다소 완성도가 높지 못하다. 이는 묘사력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제작 시기에 따른 초상화 표현양식의 한계로도 설명될 수 있다.

<최석정 초상화>에서 1720년대 이전 형식을 보여주는 특징으로는 우선 족좌대에 평행투시법이 들어가 있지만, 뒤편의 교의좌 다리 바닥면의 묘사에 족좌대와는 반대의 투시가 들어간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최석정 초상화>의 오른쪽 단령의 트임 구조는 1728년의 분무공신도상인 <오명항 초상화>, <박문수 초상화>에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1720년대 분무공신도상이 그려지기 이전의 초상화에서 시도된 요소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특징이다. 표범 가죽을 의자에 깔았다는 점도 공신도상의 선행 형식과 공유되는 특징이다.



17. 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

가. 검토사항

‘신여량 상가교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5.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1987.6.1지정)
[주사선연도 등 신여량장군 유품]
- 명 칭: 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 수 량: 1점
- 규격(cm): 78.5×248.5
- 재 질: 저지(楮紙)
- 형 식: 낱장
- 제작연대: 1604년(선조 3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여량의 상가교서는 1604년에 그가 세운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삼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차급을 승

진시키면서 내린 상가교서(賞加敎書)이다. 이 상가교서는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평가하여 발급한 교서라는 점과, 공신교서의 경우 18세기에 발급한 건까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충분히 국가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소장의 신여량 교서는 1604년에 국왕인 선조(宣祖)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교서는 시기와 내용으로 보아 국가문화재(보물)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만 교서에 공신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칭을 부여해왔던 관행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서의 내용이 상가(賞加)에 관한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상가서에 알려져 왔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여량상가교서』가 좋을 것 같다.

○ (지정 가치 있음)

‘상가교서(賞加敎書)’는 공이 있는 관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품계를 올려줄 때 발급하는 문서로서 관련 문헌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실물 자료도 적은 편이다. 신여량의 상가교서는 1604년에 선조가 그의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삼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차급을 승진시키면서 내린 문서이다. 기지정된 ‘교서’와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자료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교서의 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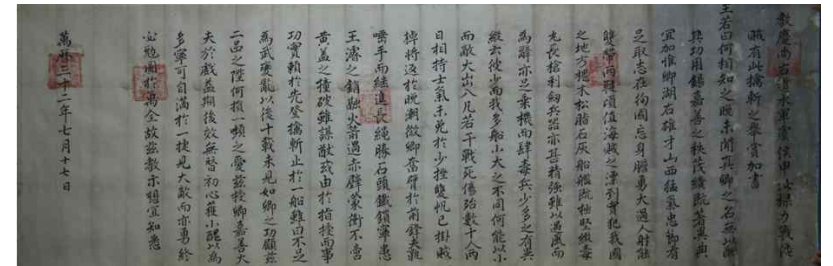
- 01 敎慶尙右道水軍虞侯申汝樑力戰倭賊有此擒斬之舉賞加書
- 02 王若曰 何相知之晚 未聞眞卿之名 無以酬
- 03 其功 用錫嘉善之秩 茂績既著 異典
- 04 宜加 惟卿湖右雄才 山西猛氣 忠節有

05 足取 志在殉國忘身 膽勇大過人 射能
 06 雙帶兩韃 頃值海賊之漂到 實犯我國
 07 之地方 槐木松脂 石灰船艦 既極堅緻 毒
 08 丸長槍 利劒兵器 亦甚精強 雖以遇風而
 09 爲辭 亦足乘機而肆毒 兵少多之有異
 10 縱云彼少而我多 船小大之不同 何能以小
 11 而敵大 出入凡若干戰 死傷殆數十人 兩
 12 日相持 士氣未免於少挫 雙帆已掛 賊
 13 棹將返於晚潮 微卿奮臂於前鋒 夫孰
 14 唾手而繼進 長繩勝石頭 鐵鎖寧患
 15 王濬之銷融 火箭過赤壁 蒙衝不啻
 16 黃蓋之撞破 雖謀猷或由於指授 而事
 17 功實賴於先登 擒斬止於一船 雖曰不足
 18 爲武 變亂以後十載 未見如卿之功 顧茲
 19 二品之陞 何損一頓之愛 茲授卿嘉善大
 20 夫 於戲 益期後效 無替初心 獲小醜以爲
 21 多 寧可自滿於一捷 見大敵而亦勇 終
 22 必勉圖於萬全 故茲教示 想宜知悉
 23 萬曆(施命之寶)三十二年七月十七日

신여량의 상가교서는 1604년에 그가 세운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삼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중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자급을 승진시키면서 내린 상가교서(賞加敎書)이다.

신여량은 만력 32년(선조 37, 1604) 7월 17일에 당포해전에서 왜적선 1척을 포획하여 공을 세웠다. 교서의 내용은 ‘경상우도 수군우후 신여량이 전투에서 왜적과 싸워 포로로 잡고 목을 베고 한 일이 있기로 상을 내린다. 그대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공을 값은 길이 없어 가선의 벼슬을 내린다.’는 것으로 신여량의 전공에 대한 포상 성격의 교서이다.

이 교서를 발급하기 한 해전인 선조 36년(1603) 3월 20일에는 “신여량 등에게 상께서 당상의 중한 자급을 재량하여 시행”해 달라는 군공청(軍功廳)의 계(啓)가 있었다. 이때 신여량의 상훈에 대한 가자, 곧 상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에는 만력삼십이년칠월십칠일(萬曆三十二年七月十七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곳에 「施命之寶」라는 어보가 찍혀 있다.



<사진1> 신여량 상가교서

신여량(申汝樑)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임(重任), 호는 봉헌(鳳軒)이다. 선조 15년(1583)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행주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과 합세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선봉인 경상우도수군우후의 직책으로 고금도와 부산 근해의 전투 등 해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웠다. 통영에서 수군을 지휘할 때는 철정(鐵釘)과 화전(火箭) 등을 사용하여 전공을 세웠다. 선조 37년(1604)에 부산첨사(釜山僉使)를 거쳐 선조 38년(1605)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교서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대부분이 공신교서이다. 그 외에는 이순신에게 내린 선유호상교서(宣諭犒賞敎書 : 보물1564-2호)와 사명훈효교서(使命訓諭敎書:보물1564-3호) 2건이 있다.

□

○ 현 상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이 교서는 선조 37년(1604)에 신여량(1564~1605)의 무공을 치하하여 정3품 절충장군에서 중2품 가선대부로 가자(加資)하면서 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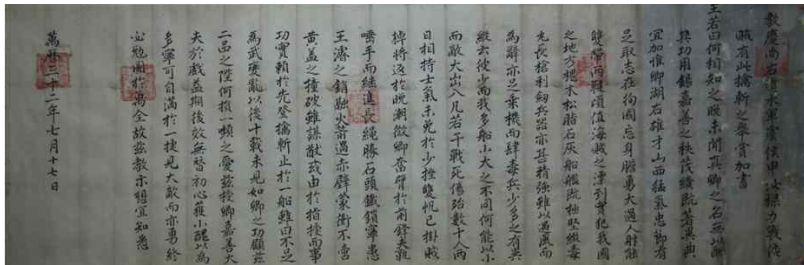
신여량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임(重任), 호는 봉헌(鳳軒)이다. 선조 15년(1583)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행주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과 합세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선봉인 경상우도수군우후의 직책으로 고금도와 부산 근해의 전투 등 해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웠다. 통영에서 수군을 지휘할 때는 철정(鐵釘)과 화전(火箭) 등을 사용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선조 37년(1604)에 부산첨사(釜山僉使)를 거쳐 선조 38년(1605)에 전라우도수군절

도사가 되었다.

신여량 관련 유물은 「주사선연도(舟師宣宴圖)」(1601년경), 「당포전양승첩지도(唐浦前洋勝捷之圖)」(1604년 작품의 후대 모사), 교서, 유서 등이 전한다. 현재 이 유물들은 『주사선연도등신여량장군유품(舟師宣宴圖등申汝樑將軍遺品)』이라는 명칭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로 지정(1987.6.1)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교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 교서(<사진1>)는 만력 32년(선조 37, 1604) 7월 17일에 당포해전에서 공을 세운 경상우도수군우후 신여량을 치하하고 정3품 절충장군에서 종2품 가선대부로 올려주고자 발급한 문서이다. 내용은 ‘경상우도 수군우후 신여량이 왜적과 힘껏 싸워 이렇게 사로잡고 베고 한 일이 있기로 상을 내린다. 그대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으나 그 공을 갚을 길이 없어 가선의 벼슬을 내린다. 많은 공적들이 이미 들어났으니 특별한 상을 준다.’는 것으로 신여량의 전공에 대한 포상 성격의 교서이다.

이 교서를 발급하기 한 해전인 선조 36년(1603) 3월 20일에는 “신여량 등에게 상께서 당상의 중한 자급을 재량하여 시행”¹³⁾해 달라는 군공청(軍功廳)의 계(啓)가 있었다. 이때 신여량의 상훈에 대한 가자, 곧 상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에는 만력삼십이년칠월십칠일(萬曆三十二年七月十七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곳에 「施命之寶」라는 어보가 찍혀 있다.



<사진1> 교서

이 교서가 국가문화재(보물)급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기 지정된 교서의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교서는 <표1>과 같이 22종이 있다. 그 중에서 발급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태조 원년(1392)에 발급된 『이제 개국공신교서』(제1294호)이고, 가장 늦은 것은 영조 3년(1727)에 발급된 『오명항 초상 및 양무공신교서』(제1177호)이다. 그런데 후자는 오명항의 초

상화에 비중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교서 자체가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과는 다르다. 이에 비해 교서를 주로 하여 지정된 것 중에서 발급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인조 3년(1625)에 발급된 『이중로 정사공신교서』(제1174-1호), 광해군 5년(1613)에 발급된 『이성운 위성공신교서』(제1508호) 등이 있다. 물론 이 교서들은 초상이나 다른 유물과 함께 지정되었으나 교서가 주 대상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신여량 교서와 같은 해인 1604년에 발급된 『이충원 호성공신교서』(제874호), 『홍진 호성공신교서』(제1308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제1564-1호) 등은 교서만으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1604년에 발급된 신여량 교서 역시 발급시기로 볼 때 국가문화재급(보물)이 된다고 하겠다.

13) 선조 36년, 1603년 3월 20일, “軍功廳啓曰: 李奇男, 申汝梁...當依元愼例論賞, 俾無前後不同之冤, 而堂上重資, 係干恩命, 上裁施行.”

<표 1> 국가문화재(보물)지정 교서 현황

구분	지정번호 (년)	문화재 명칭	발급시기	수급인	수량
1	제 604호 (1976)	장말손 적개공신교서	세조 13년(1467)	장 말 손 (張 末 孫)	1축
2	제 716호 (1981)	김길통 좌리공신교서	성종 3년(1472)	김 길 통 (金 吉 通)	1축
3	제 874호 (1986)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선조 37년(1604)	이 충 원 (李 忠 元)	1축
4	제 952호 (1988)	이광악 선무공신교서	상동	이 광 악 (李 光 岳)	1책
5	제 1133호 (1992)	원균 선무공신교서	상동	원균(元均)	1축
6	제 1174-1호 (1993)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이중로 정사 공신교서	인조 3년(1625)	이 중 로 (李 重 老)	1축 초상(1174-2호)
7	제 1175호 (1993)	심대 호성공신교서	상동	심대(沈垞)	1축
8	제 1177호 (1993)	오명항 초상 및 양무 공신교서	영조 3년(1727)	오 명 항 (吳 命 恒)	3점(영정1폭, 함1점,교서1축)
9	제 1212호 (1994)	이운룡 선무공신교서 및 관련고문서	상동	이 운 룡 (李 雲 龍)	2점(교서1축, 교지1매)
10	제 1294호 (1999)	이재 개국공신교서	태조 원년(1392)	이재(李濟)	1축
11	제 1304호 (2000)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광해군 5년(1613)	유 몽 인 (柳 夢 寅)	1축
12	제 1308호 (2001)	홍진 호성공신교서	선조 37년(1604)	홍진(洪進)	1축
13	제 1380호 (2003)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	선조 41년(1608)	신 경 행 (辛 景 行)	8종 9점
14	제 1476호 (2006)	김시민 선무공신교서	상동	김 시 민 (金 時 敏)	1점
15	제 1508호 (2006)	이성윤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	광해군 5년(1613)	이 성 윤 (李 誠 胤)	교서1점, 교지1점,호패1 6점,홀1점
16	제 1564-1호 (2008)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선조 37년(1604)	이 순 신 (李 舜 臣)	1축
17	제 1564-2호 (2011)	이순신 관련 고문서- 이순신 등 선유호상 교서(李舜臣等 宣諭 稿賞教書)	선조 29년(1596)	이 순 신 (李 舜 臣)	1점
18	제 1564-3호 (2011)	이순신 관련 고문서- 이순신 사명훈유교서	선조 30년(1597)	이 순 신 (李 舜 臣)	1점
19	제 1617호 (2009)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상동	이 헌 국 (李 憲 國)	1점
20	제 1756호 (2012)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상동	김 응 남 (金 應 南)	교서1축, 교지1점
21	제 1815호 (2014)	홍가신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상동	홍 가 신 (洪 可 臣)	8점
22	제 1835호 (2014)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세조 13년(1467)	정종(鄭種)	교서1축, 교지1매

□

○ 현 상

2003년 고령신씨 봉헌공과 문중에서 기증한 유물이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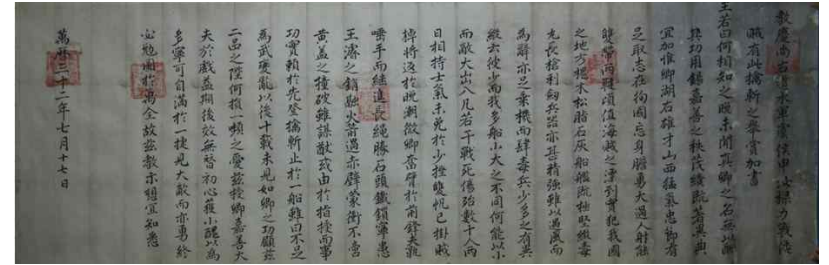
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

1604년(만력32년)

가로 248.5cm, 세로 78.5cm

시명지보(施命之寶)

고령신씨



賞加敎書

‘상가교서(賞加敎書)’는 ‘교(敎)’자와 와 ‘서(書)’자 사이에 ‘상가(賞加)’라는 용어가 기재된 교서로서 공이 있는 관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품계를 올려줄 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상가교서’는 관련 문헌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실물 자료도 적은 편이다. 다만, 현존하는 상가교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596년에 홍가신(洪可臣)에게 발급된 교서로서, 이몽학(李夢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홍가신을 통정대부로 가자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으로 남아 있다. [장서각 편, 한국고문서정선3(敎書·승書)]

조사 대상 문서는 1604년(선조 37, 만력 32) 7월 17일에 당포해전에서 공을 세운 경상우도수군우후 신여량을 치하하고 정3품 절충장군에서 종2품 가선대부로 가자(加資)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신여량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임(重任), 호는 봉헌(鳳軒)이다. 선조 15년(1583)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행주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과 합세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선봉인 경상우도수군우후의 직책으로 고금도와 부산 근해의 전투 등 해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웠다. 통영에서 수

18.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樸密符諭書)

가. 검토사항

‘신여량 밀부유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5.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1.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1987.6.1지정)
[주사선연도 등 신여량장군 유품]
- 명 칭: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樸密符諭書)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 수 량: 1점
- 규격(cm): 50.3×157.0
- 재 질: 저지(楮紙)
- 형 식: 낱장
- 제작연대: 1605년(선조 38)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여량유서는,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1605년에 선조(宣祖)가 발급한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교서의

군을 지휘할 때는 철정(鐵釘)과 화전(火箭) 등을 사용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선조 37년(1604)에 부산첨사(釜山僉使)를 거쳐 선조 38년(1605)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교서의 기두(起頭) 부분은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였고, 결사(結辭)를 ‘고자교시상의지실(故茲敎示想宜知悉)’로 마무리하고 있다. 끝에는 만력삼십이년칠월십칠일(萬曆三十二年七月十七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곳에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교서의 앞부분에 “경상우도 수군우후 신여량이 왜적과 힘껏 싸워 이렇게 사로잡고 베고 한 일이 있기로 상을 더한다.”는 내용을 적어 신여량의 전공에 대한 포상 성격의 교서임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20일 병자조의 기사에는 신여량의 상훈에 대한 가자(加資)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군공청(軍功廳)이 아뢰기를, 이기남(李奇男)·신여량(申汝梁)·구덕령(具德齡)·나덕신(羅德愼)·이극신(李克新)·송전(宋荃)·이섬(李暹)·위대기(魏大器)·조효남(趙孝南)·선여경(宣餘慶)·이언량(李彦良)은 마땅히 원신(元愼)의 예에 의하여 논상(論賞)하여 전후가 다르다는 원망을 없게 해야 하는데, 당상(堂上)의 중한 자급은 은명(恩命)에 관계되니 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김득광(金得光)·정공청(鄭公淸)·송상보(宋商甫) 등은 모두 수급(首級)이 5급에 차지 않았으니 논상하지 마소서.”

현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교서 가운데 개인에게 발급된 ‘상가교서(賞加敎書)’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1596년 9월에 발급된 「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李舜臣 等 宣諭犒賞敎書)」(보물 제1564-2호, 2011.04.27 지정)는 선조가 경상도한산도(慶尙道閑山島) 겸 삼도통제사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 이하 제진(諸陣)에 선유(宣諭)하고 호상(犒賞)하는 교서(敎書)라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 지정사례 :

- 「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李舜臣 等 宣諭犒賞敎書)」(보물 제1564-2호, 2011.04.27 지정)

경우 공신교서를 대상으로 18세기 발급분까지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교서와 같은국왕발급문서로 17세기 초에 발급된 신여량의 밀부유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신여량유서』는 1605년에 국왕인 선조(宣祖)로부터 받은 밀부유서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밀부유서는 희귀한데다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명령 방식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여량 유서(申汝樑 諭書)는 1605년 선조가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에게 제 17부(符)와 함께 발급한 문서이다. 본 문서는 ‘신여량 상가교서’와 함께 17세기초의 역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기지정된 ‘유서’의 발급 연대를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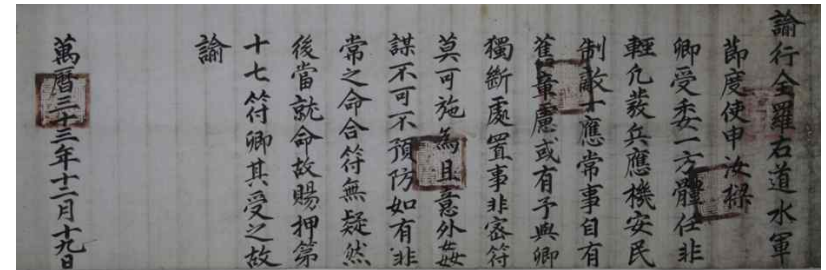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만력 33년(선조 38, 1605) 12월 19일에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申汝樑: 1564~1605)에게 제17부(符)와 함께 내린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발급되는 명령서이다. 밀부는 국왕이 좌(左)부와 유서를 함께 발급하면 장수가 소지한 우(右)부와 맞추어 보고 일치되면 명령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일종의 증빙(證憑)이다. 유서의 말미에 만력삼십삼년십이월십구일(萬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용된 어보는 “諭書之寶”이다.

신여량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임(重任), 호는 봉헌(鳳軒)이다. 선조 15년

(1583)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해주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과 합세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선봉인 경상우도수군우후의 직책으로 고금도와 부산 근해의 전투 등 해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웠다. 통영에서 수군을 지휘할 때는 철정(鐵釘)과 화전(火箭) 등을 사용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선조 37년(1604)에 부산첨사(釜山僉使)를 거쳐 선조 38년(1605)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신여량 밀부유서

유서본문 :

- 01 諭行全羅右道水軍
- 02 節度使申汝樑
- 03 卿受委一方 體任非
- 04 輕 凡發兵應機 安民
- 05 制敵 一應常事 自有
- 06 舊章 慮或有予與卿
- 07 獨斷處置事 非密符
- 08 莫可施爲 且意外姦
- 09 謀 不可不預防 如有非
- 10 常之命 合符無疑然
- 11 後 當就命 故賜押第
- 12 十七符 卿其受之 故
- 13 諭

- 14 萬(諭書之寶)曆三十三年 十二月十九日

諭書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모두 육군과 수군의 군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지방관의 부임시에 밀부와 함께 내린 밀부유서이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국가지정문화재 중 유서 현황

지정번호 (년)	문화재 명칭	발급시기	수급인	내용
제1289호(1998)	이윤손 유서	세조 3년(1457)	이윤손(李允孫)	밀부
제669호(1980)	정기룡 유물(6점)- 정기룡유서	광해군 9년(1617)	정기룡(鄭起龍)	밀부
제1564-4호(2011)	이순신 관련고문서 -이순신 유서	선조 24년(1591)	이순신(李舜臣)	밀부
제1564-5호(2011)	상동	선조 27년(1594)	상동	밀부
제1564-6호(2011)	상동	선조 30년(1597)	상동	밀부

□

○ 현 상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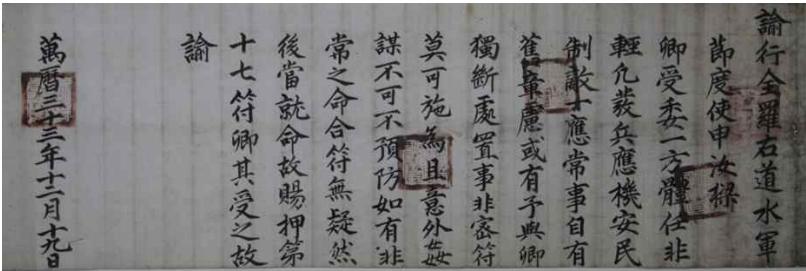
이 유서는 선조 38년(1605)에 신여량(1564~1605)에게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제수하면서 제17부(符)와 함께 내린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신여량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임(重任), 호는 봉헌(鳳軒)이다. 선조 15년(1583)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행주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후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과 합세하여 전투에 참가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선봉인 경상우도수군우후의 직책으로 고금도와 부산 근해의 전투 등 해전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웠다. 통영에서 수군을 지휘할 때는 철정(鐵釘)과 화전(火箭) 등을 사용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선조 37년(1604)에 부산첨사(釜山僉使)를 거쳐 선조 38년(1605)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신여량 관련 유물은 「주사선연도(舟師宣宴圖)」(1601년경), 「당포전양승첩지도(唐浦前洋勝捷之圖)」(1604년 작품의 후대 모사), 교서, 유서 등이 전한다. 현재 이 유물들은 『주사선연도등신여량장군유품(舟師宣宴圖등申汝樑將軍遺品)』이라는 명칭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로 지정(1987.6.1)되어 있다.

이 유서(<사진1>)는 만력 33년(선조 38, 1605) 12월 19일에 행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에게 제 17부(符)와 함께 내린 유서이다.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발급되는 명령서이다. 밀부는 국왕이 좌(左)부와 유서를 함께 발급하면 장수가 소지한 우(右)부와 맞추어 보고 일치되면 명령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일종의 증빙(證憑)이다. 끝에 만력삼십삼년십이월십구일(萬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곳에 「諭書之寶」라는 어보가 찍혀있다. 현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유서 현황은 <표1>과 같다.



<사진1> 유서

<표1> 국가문화재(보물)지정 유서 현황

지정번호 (년)	문화재 명칭	발급시기	수급인	수량
제1289호 (1998)	이윤손 유서	세조 3년(1457)	이윤손(李允孫)	1장
제669호 (1980)	정기룡 유물(6점)- 정기룡유서	광해군 9년(1617)	정기룡(鄭起龍)	1매
제1564-4호 (2011)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	선조 24년(1591)	이순신(李舜臣)	1점
제1564-5호 (2011)	상동	선조 27년(1594)	상동	1점
제1564-6호 (2011)	상동	선조 30년(1597)	상동	1점

□

○ 현 상

2003년 고령신씨 봉헌공과 문중에서 기증한 유물이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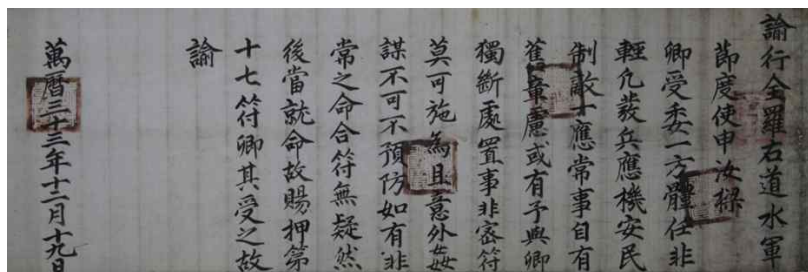
신여량 유서

1605년(만력33년)

가로 157.0cm, 세로 50.3cm

유서지보(諭書之寶)

고령신씨



諭書

유서(諭書)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 등 일방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密符)와 함께 내리는 명령서이다. 밀부는 제1부(符)에서 제45부(符)까지 있어서 비상한 명령이 있으면 부를 합해 보아 의심할 바가 없을 때에 명령 그대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문서는 1605년(선조 38, 만력 33) 12월 19일에 행 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에게 제 17부(符)와 함께 내린 유서이다.

문서의 끝에 만력삼십삼년십이월십구일(萬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이라는 발급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곳에 「유서지보(諭書之寶)」가 찍혀 있다.

○ 지정사례 :

- 「정기룡 유물(鄭起龍 遺物)-유서(諭書)」(보물 제669호, 1980.08.23)
- 「이윤손 유서(李允孫 諭書)」(보물 제1289호, 1998.12.18)
-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李舜臣 關聯 古文書-李舜臣 諭書)」(보물 제1564-4호, 2011.04.27)
-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李舜臣 關聯 古文書-李舜臣 諭書)」(보물 제1564-5호, 2011.04.27)
- 「이순신 관련 고문서-이순신 유서(李舜臣 關聯 古文書-李舜臣 諭書)」(보물 제1564-6호, 2011.04.27)

안전번호 동산 2017-01-019

19. 구급간이방 권7(救急簡易方 卷7)

가. 검토사항

‘구급간이방 권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급간이방 권7’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4.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구급간이방 권7(救急簡易方 卷7)
- 소유자(관리자): 영남대학교
- 소재지: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 수 량: 1책(84장)
- 규격(cm): 반곽 20.8×14.4(26.7×18.8)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
- 제작연대: 조선전기(임진왜란 이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미흡)

현재까지 알려진 『구급간이방』(번각본)은 전8권 8책중에서 3권(권3,4,8)은 모두 일실되고, 5권(권1,2,3,6,7)이 전한다. 그중 문화재로 지정된 책은 권6(2책) 뿐이고 나머지 권1-3과 권6(성암본), 권7은 미지정이다. 이들 전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을해자 번각본이지만 을해자본이 실전된 상태에서 그 가치는 높다고 판단

된다. 다만 보전상태에 차이가 심하고, 연구자간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권7을 포함한 나머지 미지정본에 대한 국어학적 서지학적 연구가 더 진전되기를 기다려서 지정을 결정하는 것이 적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영남대 소장의 『구급간이방』 권7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을해자 번각본이다. 비록 권7의 한권이기는 하나 이 책의 가치는 의서로서 뿐 아니라 향약의 약제명이 정음 창제이후 편찬된 의서들 가운데 가장 방대하게 정음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방점과 반치음 등이 사용되어 있는 등 15세기 국어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약초명이나 이와 관련된 고유어 표기는 한의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권7은 현재 3본의 전본이 공개되어 전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번각한 판본이다 보니 각각의 특징이 있다. 또한 대구 개인소장본에 대해서도 이판(異版), 보판이 섞여 있어 열등한 판본이라거나 또는 이와 반대의 견해도 있는 등 조사의 결과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구급간이방』 권7의 전본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하므로 향후 3본을 서지학적, 국어학적 조사를 거쳐 그 선본을 가려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구급간이방』 권7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구급방서(救急方書) 중에서 질병을 중풍, 두통 등 127종으로 나누어서 그 치료 방안을 모아 엮었고, 한글로 언해를 달아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 의서이다.

이 책의 가치는 의서로서 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이후 향약의 약제명이 표기되었고, 방점과 반치음 등이 사용되어 있는 등 15세기의 한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을해자 번각본으로 현재 권7로 전하는 것이 3본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3본에 대한 비교 조사를 통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앞과 뒤의 본문에 손상이 심하다. 특히 뒷부분은 반이상이가 손상된 경우도 있다.표지는 후기에 개장한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서지사항 :

救急簡易方. 卷7

尹壕(朝鮮)等 受命編.

[壬亂以前]

木板本(乙亥字翻刻本).

1卷1冊(全 8卷 8冊 中), 四周單邊 半郭 20.8 × 14.4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7 × 18.8 cm

版心題: 簡易方.

表題: 救急簡易方.

『구급간이방』은 권1에 수록된 서문에 의하면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인 윤호(尹壕 : 1424~1496), 임원준(任元濬 : 1423~1500), 허종(許琮 : 1434~1494) 등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 성종20년(1489) 5월에 편찬한 언해가 달린 구급 의서(醫書)이다. 처음 찬진(撰進)했을 때에 많이 인쇄하여 내외의 제읍(諸邑)에 배포하고 일반 백성들까지 적어갈 수 있게 하라는 성종의 지시가 있었고, 중앙에서 직접 지방에 두루 배포하기는 어려우니 제도(諸道)의 감사에게 각 도에서 개간(開刊)하여 계수관(界首官)이 인출하도록 하자는 윤호등의 건의에 따라 내의원에서 같은 해 9월에 인쇄하여 바친 것이 을해자본 구급간이방이다. 이 활자본은 알려진 것이 없고, 을해자본의 번각본(목판본)이 수종 전하고 있는데 조사본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을해자본 고사촬요에 의하면 원주,전주, 남원,함천,곤양의 책판조에 이 책이 보인다. 조사본은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중 한 곳에서 판각한 책판에서 인출한 것이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전본중 권1(규장각본)에는 편찬자의 한 사람인 허종이 쓴 구급간이방서(救急簡易方序)와 목록이 권두에 실려있다. 이에 의하여 책의 편찬경과와 전체의 구성을 알 수 있다. 서문의 “書成 凡爲卷八 爲門一白二十七 命曰救急簡易方”이라는 기술에 따라 총 8권에 127문으로 구성되었고, 구급간이방으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실록의 기사에서 이 책이 9권이라고 기록된 것은 오기인지 인쇄 단계에서 축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전하는 판본으로는 전 8권 중에서 권1, 2, 3, 6, 7 등 5권만 알려져 있다. 권1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사문고, 권2는 김영탁(金永倬), 권3은 동국대 도서관, 권6은 한독약품 의약박물관(보물1236-1호)와 허준박물관(보물1236-2호),성

암고서박물관, 권7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영남대학교 도서관, 대구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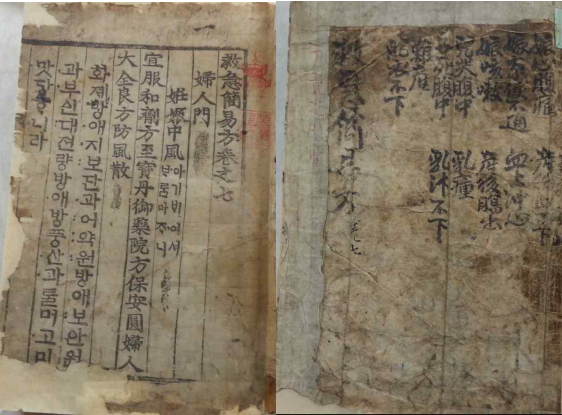
조사대상본인 영남대도서관 장본인 이 책은 번각본 중 권7이다. 내용은 「婦人門」으로 임신중풍에서 유즙불하(乳汁不下)까지 13문에 걸쳐 부인의 각종 질병과 처방을 싣고 있다. “求急簡易方卷之七”이라는 권수제와 권차가 표시되어있다. 모두 84장이 전하며, 85장 이하는 낙장이다. 후반부는 손상이 심하고 전장이 배접되어 있는 등 상태는 비교적 나쁜 편이다. 첫 장의 우측 난외에 주인(朱印)으로 「雪月堂」이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김부륜(金富倫 : 1531~1598)의 장서인으로 판단된다. 구급간이방의 권별 수록내용과 소장처를 정리하면 <表1>과 같다.

<表 1>구급간이방 권별 수록내용 및 소장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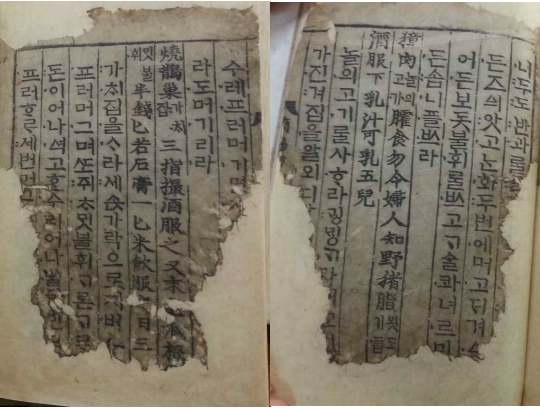
卷	門數	내용(病名)	비고(소장처)
1	15	중풍(中風) 중한(中寒) 하월열사(夏月熱死) 증기(中氣) 오절사(五絶死) 졸사(卒死) 자역사(自縊死) 익사(溺死) 목석압사(木石壓死) 야염사(夜魘死) 동월동사(冬月凍死) 백호풍(白虎風) 제풍간(諸風癱) 상한시역(傷寒時疫) 변열소수(煩熱少睡).	규장각(일사문고, 단국대영인)
2	14	두통(頭痛) 졸해수(卒咳嗽) 심복통(心腹痛) 졸요통(卒腰痛) 교장사(絞腸沙) 락란(霍亂) 인후종(咽喉腫) 전후풍(纏喉風) 일색(噎塞) 실음(失音) 설종(舌腫) 비독(鼻衄) 토혈(吐血) 구규출혈(九竅出血)	김영탁(단국대영인)
3	17	구창(口瘡) 순구긴(脣口緊) 면상생창(面上生瘡) 시종(腮腫) 실흠참차차후(失欠領車蹉候) 정창(丁瘡) 배종(背腫) 주마감(走馬疳) 단독(丹毒) 변독(便毒) 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 대변불통(大便不通) 소변불통(小便不通) 대소변혈(대소변혈) 요혈(尿血) 제임(諸淋) 야다소변(夜多小便)	동국대도서관
4	12	나산(癰疽) 음축(陰瘡) 외치(外痔) 탈항(脫肛) 설사(泄瀉) 적백리(赤白痢) 목주자돌출(目珠子突出) 물입안(物入眼) 이통(耳痛) 백충입이(白蟲入耳) 물입이(物入耳)	확인된 전본 없음.
5	14	충독(蟲毒) 육축육독(六畜肉毒) 일채어독(一切魚毒) 제약독(諸藥毒) 비상독(砒礪毒) 일채심독(一切草毒) 일채채독(一切菜毒) 금창(金瘡) 타박상손(打撲傷損) 탕화상(湯火傷) 장창(杖瘡) 동창(凍瘡) 칠창(漆瘡) 수족열(手足裂)	확인된 전본 없음.
6	22	골경(骨癰) 오탄침류(誤吞針類) 오탄금은(誤吞金銀) 오탄죽목(誤吞竹木) 침자절육중(針刺折肉中) 죽목자입육중(竹木刺入肉中) 호상(虎傷) 풍견상(風犬傷) 상견상(常犬傷) 독사상(毒蛇傷) 제악충상(諸惡蟲傷) 오공교(蜈蚣咬) 봉//독(蜂蟻毒) 지주독(蜘蛛毒) 구인교(蚯蚓咬) 마교(馬咬) 저교(猪咬) 묘교(貓咬) 서교(鼠咬) 파상풍(破傷風) 자백반풍(紫白癰風) 치반흔(治癰痕)	한독의학박물관(보물지정), 허준박물관(보물지정), 성암고서박물관
7	13	부인문(婦人門) : 임신중풍(妊娠中風) 임신심복풍(妊娠心腹痛) 임신대소변불통(妊娠大小便不通) 임신해수(妊娠咳嗽) 아채복중곡(兒在腹中哭) 자사복중(子死腹中) 난산(難產) 태의불하(胎衣不下) 산후혈부지(產後血不止) 산후혈불하(產後血不下) 산후장출(產後腸出) 유종(乳腫) 유즙불하(乳汁不下)	고려대만송문고, 대구거주개인, 영남대도서관
8	20	소아문(小兒門) : 생하기절(生下氣絶) 대소변폐(大小便閉) 편신무괴(遍身無瘳)	확인된 전본 없음.

	無皮) 제종(臍腫) 구출백말(口出白沫) 불음유(不飲乳) 토유(吐乳) 구금불개(口噤不開) 중설(重舌) 구창(口瘡) 아감(牙疳) 경간(驚癇) 야제(夜啼) 두창함입(痘瘡陷入) 두창흑함(痘瘡黑陷) 두창입안(痘瘡入眼) 두창란(痘瘡爛) 객오(客忤) 뇌후유핵(腦後有核) 음낭종(陰囊腫)	음.
8권 127문		

<表1>에서 보듯이 권7은 현재 3본이 공개되어 전한다. 이 중에서 고려대 소장본은 제1-3장과 제82장 이후는 결락되었고, 전장은 배접되어 있으나 앞의 몇 장을 제외하고는 손상이 없는 등 상태가 좋은 편이다. 영남대 소장본은 <사진1,2>와 같이 제1-84장까지 있으나 고려대 소장본보다 손상이 심한 편이다. 또 다른 판본인 대구 개인 소장본도 연구자들 간에 판본의 우열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다.



<사진1> 영남대장 구급간이방



<사진2> 영남대장 구급간이방 제84장

○ 문헌자료

김동소, 『구급간이방』 해제”, (역주구급간이방언해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김단희, 김남일, 안상우,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2010.
 김단희, 차웅석, 김남일,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II”,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2호, 2010.
 서형국, 구급간이방 권7의 서지와 언어에 대하여: 만송문고본을 중심으로, 국어사자료연구 제3호, 2002.
 안병희, “『구급간이방』 해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남경, “『구급간이방』 해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2, 2013.
 권용경, “『구급간이방』 해제”, 한글박물관.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3차 회의서류, 경상북도, 2012.12
 허준박물관 도록, 허준박물관편, 2005.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배접되어 있음. 앞뒤는 원문이 손상되었으며, 특히 뒷부분은 거의 절반이 손상된 장도 있음.

○ 내용 및 특징

救急簡易方. 卷7
 尹塚(朝鮮) 等 受命編.
 [壬亂以前]
 木板本(乙亥字翻刻本).
 1卷1冊(全 8卷8冊), 四周單邊 半郭 20.8 × 14.4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6.7 × 18.8 cm
 版心題: 簡易方.
 表題: 救急簡易方.

『구급간이방』은 성종 20년(1489)에 내의원 제조(內醫院 提調)인 윤호(尹壕, 1424~1496), 임원준(任元濬, 1423~1500), 허종(許琮, 1434~1494) 등이 편찬한 언해본 구급 의서이다. 그런데 이 책은 중앙정부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보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 5월 30일에 윤호가 이 책을 성종에게 올리면서 각도의 관찰사들이 각각 간행 보급하도록 요청하자 성종은 이를 따라 그해 9월 26일에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지금 『구급간이방』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간행하고 인출해서 널리 보급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급간이방』은 이후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판본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허종은 서문에서 ‘임금이 그 전의 『의방유취』의 번잡한 부분은 버리고, 『향약제생방(鄉藥濟生方)』, 『구급방』 등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서를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윤호, 임원준, 허종 등은 명을 받아 고방서(古方書)의 요점을 수집하고 임금이 이를 직접 고치고 언해하여 8권 127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구급간이방』은 성종의 열정이 있어서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구급간이방』은 127문(門)으로 되어 있어서 36문의 『구급방』, 76문의 『언해구급방』에 비해 자세하게 구급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마다 처방명이 있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증상을 세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후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권1은 증풍 등 풍(風), 한(寒), 서(暑), 습(濕)에 의한 질병 및 치료방 15문, 권2는 두통 이하 14문, 권3은 구창(口瘡)에서 야다소변(夜多小便)까지 17문, 권4는 퇴산(癰疽)에서 물입이(物入耳)까지 12문, 권5는 고독(蠱毒)에서 수족열(手足裂)까지 14문, 권6은 골경(骨鯁)에서 치반흔(治癰痕)까지 22문, 권7은 「부인문」으로 임신중풍(妊娠中風)에서 유즙부하(乳汁不下)까지 13문, 권8은 「소아문(小兒門)」으로 20문에 걸쳐 소아 관계 질병과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부인문」이 13문, 「소아문」이 20문이나 되는 등 부인과 소아에 대해 자세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구급간이방』은 이전의 『구급방』이나 『향약집성방』에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곧 내용상으로 완결된 보급판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간행하여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 여러 지역에 보내자 각 관찰사들은 이를 번각하여 보급하였다. 당시 을해자본을 몇 부 가량 간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전하는 판본은 을해자 번각본이고, 을해자 원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전의 책판 소장사실을 담은 『고사촬요』의 책판 조에 따르면, 이 책판은 원주, 전주, 남원, 합천, 곤양(昆陽), 해주 등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마 이 지역에서 번각하여 보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현전하는 판본으로는 전 8권 중에서 권1, 2, 3, 6, 7 등 5권만 소개되고 있다. 권1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2는 김영탁(金永倬), 권3은 동국대 도서관, 권6은 한독약품 의약박물관(보물 1236-1호)과 허준박물관(보물 1236-2호), 권7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대구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일본의 미키 사카에(三木榮, 1903~1992)는 “황의돈씨가 권3,4,6,7을 소장”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이들은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고 황의돈 선생이 자술하였다. 그렇다면 이외의 현전본이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전본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이기는 하나 동일한 판본은 아니다.

영남대도서관 소장의 이 책은 권7의 번각본이다. 내용은 「부인문」으로 임신중풍에서 유즙불하까지 13문에 걸쳐 부인의 각종 질병과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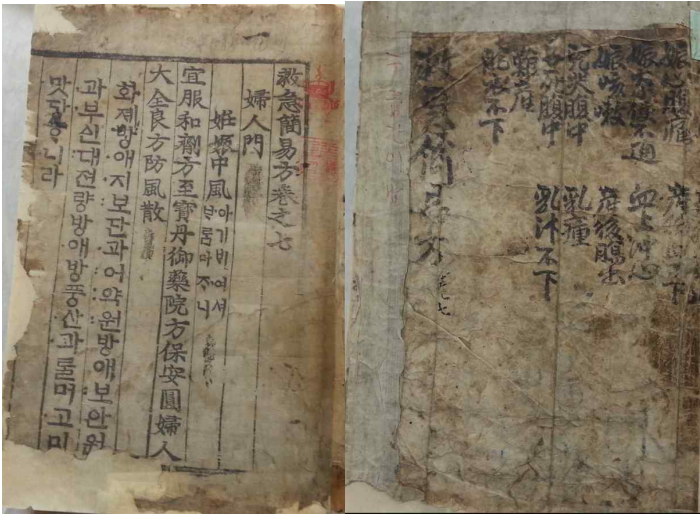
“『求急簡易方』 卷之七”이라는 권수제와 권차 표시로 시작된다. 전체는 84장이 전하며, 85장 이하는 낙장이다. 후반부에는 손상이 있을 뿐 아니라 전장이 배접되어 있는 등 상태는 좋지 못하다. 권수제 오른쪽 난외에는 「雪月堂」이라는 장서인이 주색으로 찍혀져 있다. 설월당은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의 장서인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구급간이방』 5권의 소장기관은 <표1>과 같다. 권1,2는 1982년에 『동양학총서』 9집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권7의 개인소장본은 홍문각에서 영인 발행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 전본 중에서 권6의 2종은 현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곧 한독의약박물관 소장의 권6은 제1236-1호(1996.1.19), 허준박물관 소장의 권6은 제1236-2호(2006.1.17.)이다. 그 외의 다른 전본들은 지정 신청되지 않았고, 이번에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지정 신청되었다.

<표1> 『구급간이방』 현전본 현황

구분	소장기관	비고
권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영인
권2	김영탁	상동
권3	동국대학교 도서관	
권6	한독의약박물관, 허준박물관	
권7	고려대·영남대도서관, 대구개인	대구 개인소장본은 홍문각에서 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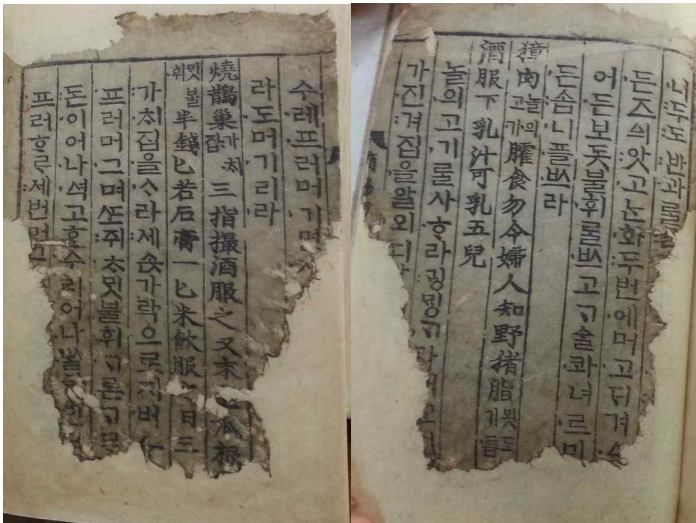
<표1>에서 보듯이 권7은 현재 3본이 공개되어 전한다. 이중에서 고려대 소장본은 <사진2>, <사진4>와 같이 제1-3장과 제82장 이후는 결락되었고, 전장은 배접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몇 장을 제외하고는 손상이 없는 등 상태가 좋은 편이다. 영남대 소장본은 <사진1>과 <사진3>과 같이 제1-84장까지 있으나 고려대 소장본보다 손상이 심한 편이다. 또 다른 판본인 대구 개인 소장본도 연구자에 따라 판본의 우월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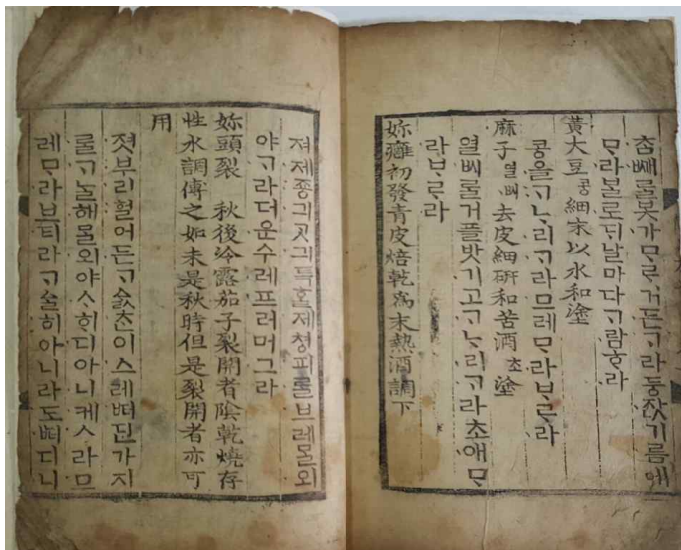
<사진1> 앞표지(오른쪽)와 제1장(첫 장) (영남대 소장본)



<사진2> 앞표지(오른쪽)와 제4장(첫 장) (고려대 소장본)



<사진3> 제84장 좌면(오른쪽)과 우면(왼쪽) (영남대 소장본)



<사진4> 제80장 좌면(오른쪽)과 제81장 우면(왼쪽, 마지막장) (고려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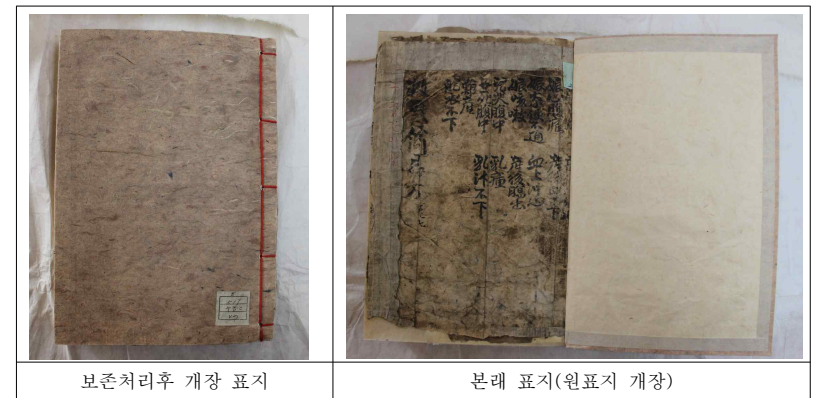
○ 문헌자료

김단희, 김남일, 안상우,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2010.
 김단희, 차웅석, 김남일,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II”,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2호, 2010.
 서형국, 구급간이방 권7의 서지와 언어에 대하여: 만송문고본을 중심으로, 국어사자료 연구 제3호, 2002.
 안병희, “『구급간이방』 해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남경, “『구급간이방』 해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2, 2013.
 권용경, “『구급간이방』 해제”, 한글박물관.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3차 회의서류, 경상북도, 2012.12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원문은 배접되어 있다. 원문은 현재 1장부터 84장까지만 남아 있고, 이후 낙장(落張)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尹壕(朝鮮) 等 受命編.

木板本(乙亥字翻刻本), 26.7×18.8 cm. 五針線裝.

[王亂以前]

1冊(零本), 四周單邊, 半葉匡郭 20.8×14.4 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版心書名：簡易方.
表紙書名：救急簡易方.

『구급간이방』은 성종 20년(1489)에 내의원(內醫院) 제조(提調)인 윤호(尹壕, 1424~1496), 임원준(任元濬, 1423~1500), 허종(許琮, 1434~1494) 등이 왕명을 받고 편찬한 언해본 구급 의서이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구급방서(救急方書) 중에서 질병을 중풍, 두통 등 127종으로 나누어서 그 치료 방문을 모아 엮었고, 한글로 언해를 붙여 많은 이들이 알기 쉽게 하였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관련 기록이 전하고 있어 간행 및 반포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 등이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 9권을 바치자, 전교하기를, “많이 인출(印出)하여 중외 모든 고을에 두루 반포함이 가하다. 또 민간의 소민(小民)들도 모두 인출한 것을 얻도록 하라.”하니, 윤호(尹壕) 등이 아뢰기를, “모든 고을에 두루 반포하기는 어려우니, 모든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본도에서 개간(開刊)하여 계수관(界首官)이 찍어내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② 내의원(內醫院)에서 새로 편찬한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을 올렸다. <임금이> 제조(提調) 윤호(尹壕)와 임원준(任元濬)·허종(許琮)에게 각각 마장(馬裝) 1부(部)와 노구(鑪口)하나, 도롱이[蓑衣] 하나를 내려 주고, 박안성(朴安性)·권건(權健)과 의원 당상(醫員堂上) 송흠(宋欽)·차득참(車得參)에게 각각 마장 1부와 도롱이 하나를 내려 주고, 낭청(郎廳) 윤사하(尹師夏) 이하에게 녹비(鹿皮) 한 장(張)씩을 내려 주었다.
(『성종실록』 232권, 성종 20년 9월 21일 병자)

③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개간(開刊)하여 인출(印出)해서 널리 퍼라.”하였다.
(『성종실록』 232권, 성종 20년 9월 26일 신사)

곧 1489년(성종 20) 5월 30일에 윤호가 9권으로 된 책을 성종에게 올리면서 각도의 관찰사들이 각각 간행 보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해 9월 21일 편찬 간행되어 9월 26일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보내며 “지금 『구급간이방』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개간하여 인출해서 널리 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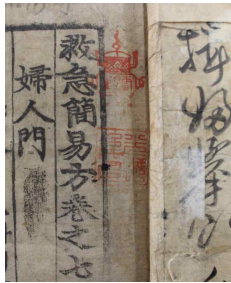
다만, 윤호가 처음 성종께 올린 것은 9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허종이 쓴 서문에 의하면, ‘上이(中略) 급한 병중에 의서의 번잡한 치료방을 뒤지다가 속수무책하는 병폐를 시정하고자 그 전에 만들어진 <의방유취>의 번잡한 부분을 버리는 한편 《鄉藥濟生方》, 《救急方》 등 취사선택의 정요(精要)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임상에 적응할 수 있는 간편한 방서를 명하였다. 이에 영돈녕부사 윤호, 서하군(西河君) 임원준, 공조판서 박안성(朴安性), 한성부좌윤 권건기(權健暨) 및 허종에게 명하여 소속 관원들을 동원하여 고방서(古方書)의 요점을 수집하고 이를 성상이 직접 고치고 언해하여 8권 127부문으로 나누어 《구급간이방》이라 이름하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8권 8책으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구급간이방』은 127문(門)으로 되어 있어서 36문의 『구급방』, 76문의 『언해구급방』에 비해 자세하게 구급방을 제시하고 있다. 각 문마다 처방명이 있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증상을 세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후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권1은 중풍 등 풍(風), 한(寒), 서(暑), 습(濕)에 의한 질병 및 치료방 15문, 권2는 두통 이하 14문, 권3은 구창(口瘡)에서 야다소변(夜多小便)까지 17문, 권4는 퇴산(癰疽)에서 물입이(物入耳)까지 12문, 권5는 고독(蠱毒)에서 수족렬(手足裂)까지 14문, 권6은 골경(骨鯁)에서 치반흔(治癍痕)까지 22문, 권7은 「부인문」으로 임신중풍(妊娠中風)에서 유즙불하(乳汁不下)까지 13문, 권8은 「소아문(小兒門)」으로 20문에 걸쳐 소아 관계 질병과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처음에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 1455년(세조1)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토대로 만든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도의 관찰사들이 이를 번각하여 보급하였다. 현재 을해자 원간본은 전해지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을해자 번각본은 전 8권 중에서 권1, 권2, 권3, 권6, 권7 등 5권만이 전하고 있다. 권1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2는 김영탁(金永倬), 권3은 동국대 도서관, 권6은 한독약품 의약품물관(보물 1236-1호)와 허준박물관(보물 1236-2호), 권7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대구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조사본 『구급간이방』은 을해자 번각본으로 권7에 해당한다. 내용은 「부인문」으로 임신중풍에서 유즙불하까지 13문에 걸쳐 부인의 각종 질병과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권수제 오른쪽 난외에는 ‘雪月堂’이라는 향로형(香爐形)의 주문(朱文)이 찍혀 있고, 그 아래로는 ‘광성후인(光城後人)’이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있다.

	
구급간이방 권7 권수	본래 표지(원표지 개장)

20.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가. 검토사항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4.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 소유자(관리자):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도서관)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 수 량: 1책
- 규격(cm): 23.8×14.8
- 재 질: 저지(楮紙)
- 형 식: 선장
- 판 종: 목판본
- 제작연대: 간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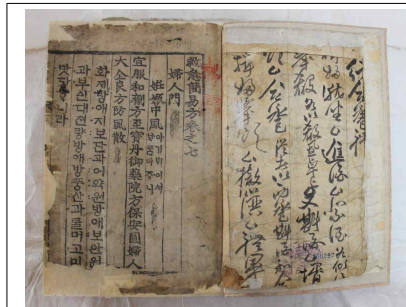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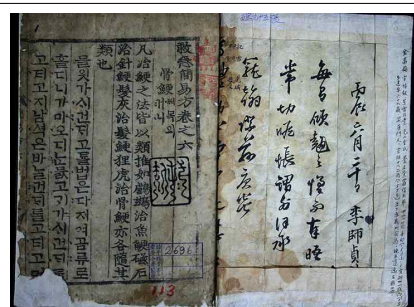
조사대상본인 영남대학교 소장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국내에서 처음 알려진 고간본 불서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간행시기를 알 수 있는 권말부분이 손상되어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13세기 중엽이라고 추정한 점은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간년의 확

‘설월당’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의 호로 판단된다. 김부륜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돈서(惇敍), 호는 설월당(雪月堂)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1555년(명종 10) 사마시에 합격, 1572년(선조 5) 유일(遺逸)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1585년에 전라도 동북현감(同福縣監)으로 부임하여 향교를 중수하고 봉급을 털어 서적 8백여 책을 구입하는 등 지방교육 진흥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또 학령(學令) 수집조를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털어 향병(鄉兵)을 도왔고, 봉화현감이 도망가자 가현감(假縣監)이 되어 선무에 힘썼다. 또한 관찰사 김수(金睟)에게 적을 막는 3책(三策)을 올렸는데, 충심이 지극한 내용이었다. 김성일(金誠一)·이발(李潑)과 도의를 강마하였으며,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뒤 향리에 설월당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던 인물이다.

그런데 기지정된 허준박물관 소장의 『구급간이방』 권6(보물 제1236-2호, 2006.01.17. 지정)에도 동일한 소장인이 적혀 있어 조사대상본인 『구급간이방』 권7과 본래 한질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급간이방 권7 권수



구급간이방 권6 권수

○ 지정사례 :

- 보물 제1236-1호 구급간이방 권6(救急簡易方 卷六) (1996.01.19. 지정)
- 보물 제1236-2호 구급간이방 권6(救急簡易方 卷六) (2006.01.17. 지정)

○ 문헌자료

김단희, 김남일, 안상우,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한국 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2010.
 김단희, 차웅석, 김남일,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II”, 한국 의사학회지 제 23권 2호, 2010.
 김남경, “『구급간이방』 해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해제집2, 2013.
 권용경, “『구급간이방』 해제”, 한글박물관.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3차 회의서록, 경상북도, 2012.12

인이 가능한 완전한 판본의 출현과 진전된 연구를 기다려서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지정 가치 미흡)

영남대학교 소장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국내에서 동일한 판본이 아직 공개된 것이 없는 등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간본 불서이다. 다만 간행시기를 살필 수 있는 뒷부분이 손상되어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간행시기에 대해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3세기 중엽이라고 추정하나 그 근거는 미흡해 보인다. 이 불서의 가치는 고려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천로 주해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확한 간기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추후 동일한 판본의 출현을 조금 더 기다리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은 국내에서 동일한 판본이 아직 공개된 것이 없는 자료이다. 다만, 간행시기를 살필 수 있는 뒷부분이 손상되어 책의 간행 연대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성과의 축적과 함께 추후 동일한 판본의 출현을 기다려 지정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앞뒤 몇 장은 배접되어 있음. 남아있는 마지막 장은 세로로 찢겨나갔고, 이후는 결락되었음.

○ 내용 및 특징

서지사항 :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名] 川老金剛經 / 鳩摩羅什(姚秦) 譯; 道川(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年未詳]

1冊: 上下單邊, 匡高 18.5cm, 無界, 8行16字 ; 23.8×14.8 cm.

序: 淳熙己亥(1179)…慧藏 無盡書

跋: 紹興辛巳(1161)八月晦日…鄭震題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중시되면서 널리 유통된 불경으로 흔히 『금강경』으로 약칭한다.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본을 토대로양(梁)의 소명태자(昭明太子)가 32품으로 분류하였는데, 그후 이본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전존하는 고려시대 간본이 많아서 현재 간기가 분명한 본만도 10여종에 달하며 국가지정문화재본도 9종(국보1, 보물8)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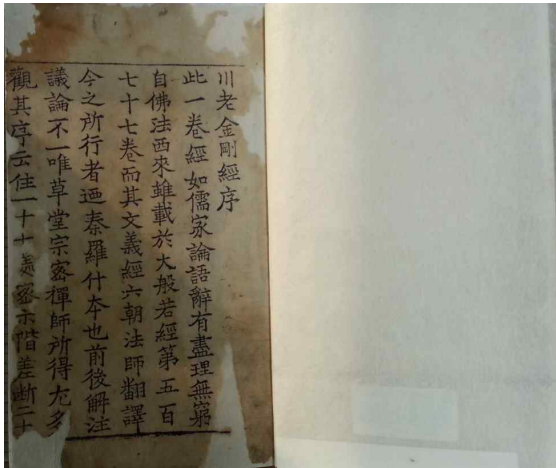
영남대학교 소장의 지정신청대상인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신청)은 구마라집이 한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송나라의 전사인 야보 도천(冶父 道川)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주해하고, 또 송(頌)까지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은 남조시대 부휴(傅翕, 497-569)의 찬(讚), 당나라 육조대사 혜능(慧能, 638-713)의 해의(解義), 당나라 종밀(宗密, 780-841)의 찬요(纂要), 송나라 종경(宗鏡)의 제강(提綱) 등과 함께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로 일컫고 있다. 『천로금강경』이라는 서명은 혜장 무진(慧藏 無盡)이 서문에서 ‘천로금강경서’라고 한데다 다른 금강경 주석서와 구분을 위해 일컫는 명칭이다.

우왕 13년(1387) 간본(보물 제919호 등)과는 달리 이 책에 천연(天演)의 발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곧 천연의 발문이 있어야 할 곳 앞에서 세로로 찢겨져 그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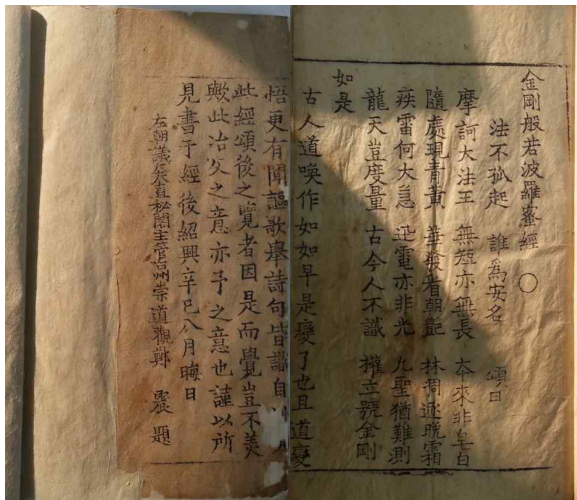
표지는 개장되었고 앞뒤 몇 장은 부분적인 손상되어 배접되어 있다. 본문은 가운데 판심이 없는 권자본 형식으로 1장은 15행16자이다. 그런데 앞면은 8행, 뒷면은 7행으로 나누어 접어 선장형식으로 장책하였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간행시기를 13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서체가 구양순체라는 점, 도침이 잘된 고려지라는 점 그리고 인쇄상태가 정교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에서 처음 전래된 형태대로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천로가 주해한 다른 판본과 동일한 내용이며, 새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거나 명가의 수택본(手澤本)은 아니다.



<사진1> 해장 무진이 쓴 川老金剛經序



<사진2> 권수제면(오른쪽)과 마지막장

○ 문헌자료

『천로금강경』: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영인집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인문화사, 2012.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앞뒤 몇 장은 배접되어 있음. 남아있는 마지막 장은 세로로 찢겨나갔고, 이후는 결락되었음.

○ 내용 및 특징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名] 川老金剛經 / 鳩摩羅什(姚秦) 譯; 道川(宋) 解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年未詳]
1冊: 上下單邊, 匡高 18.5cm, 無界, 8行16字; 23.8×14.8 cm.
序: 淳熙己亥(1179)…慧藏 無盡書
跋: 紹興辛巳(1161)八月晦日…鄭震題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널리 유통된 불경이다. 곧 제석정사(帝釋精舍)에 있던 탐과 백성寺) 묘길상탑에 『금강경』을 베껴 두었다는 기록이나 또 「금강반야바라밀경 석편」과 「금강반야바라밀경관」의 실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유통 경전으로서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보통 『금강경』으로 약칭한다.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본을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32품으로 분류하였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이것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간행한 일이 많았는데 현재 유간기 전본만도 <표1>과 같다.

<표1> 유간기 고려본 『금강반야바라밀경』

구분	간행시기	간행자	특징	지정현황
1	정종 8년(1042)	최적량(임피현령)	수진본 절첩장 마지막 4장만 남은 잔본	미지정
2	고종 1년(1214)	탐고(군생사 주지)	권자본	국보 제206-5호
3	고종 15년(1228)	이평, 문광 등	소자 권자본 5장중 4장의 전본	보물 제1095-6호
4	고종 24년(1237)	최우	대자 권자본	국보 제206-20호
5	고종 32년(1245)	정안	선장	국보 제206-6호
6	충렬왕31년 (1305)	육구·박지요	선장	보물 제1408호

구분	간행시기	간행자	특징	지정현황
7	충숙왕 복위8년 (1339)	강금강, 일참	수진본 절첩장	보물 제775호, 보물 제1095-1호
8	공민왕 6년 (1357)	김저·지선·조환	권자본	보물 제877호
9	공민왕 12년 (1363)	설사덕, 김영기	절첩장. 도해금강경	보물 제696호
10	공민왕 19년 (1370)	청익·안집	수진본 절첩장	미지정
11	우왕 4년(1378)	정추	절첩장	미지정
12	우왕 13년 (1387) ¹⁴⁾	유구, 강인부	선장	보물 제974호 보물 제1127호 보물 제721호 보물 제919호 보물 1719호

영남대학교 소장의 지정신청대상인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신청)은 구마라집이 한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송나라의 선사인 야보 도천(冶父 道川)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주해하고, 또 송(頌)까지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은 남조시대 부흥(傅翕, 497-569)의 찬(讚), 당나라 육조대사 혜능(慧能, 638-713)의 해의(解義), 당나라 종밀(宗密, 780-841)의 찬요(纂要), 송나라 종경(宗鏡)의 제강(提綱) 등과 함께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로 일컫고 있다. 『천로금강경』이라는 서명은 해장 무진(慧藏 無盡)이 서문에서 ‘천로금강경서’라고 한데다 다른 금강경 주석서와 구분을 위해 일컫는 명칭이다.

야보 도천의 속성은 적(狄)씨이고, 이름은 삼(三)이다. 제동(齊東)의 도겸선사(道謙禪師)에게 도천(道川)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건염(建炎, 1127-1130) 초년에 천봉(天峰)에 이르러 정인사(淨因寺)의 반암 계성(蹯庵 繼成)의 문하에서 법을 계승하였다고 한다. 후일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천이 답한 것이 바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의 내용이다. 도천의 주석은 간결하면서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말년에 안휘성 야보

산에 있는 선원(禪院)에서 주지를 지냈으므로 야보 천로(冶父 川老)라고도 일컫는다.

권두에는 1179년에 해장 무진이 쓴 천로금강경서(川老金剛經序), 찬탄계 그리고 개경계(開經偈)가 있다. 다음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권수제에 이어 32품의 본문을 나누어 주해를 하고 송(頌)을 덧붙였다. 본문의 주해와 송이 끝난 뒤에는 소흥(紹興) 신사년(1161) 8월에 송도관(崇道觀)의 정진(鄭震)이 쓴 발문이 있다. 정진은 발문에서 이 책에 대해 “이 『반야바라밀경』이 서역에서 전래되어 부대사(傅大士)가 처음으로 계송을 지었고, 이제 천로(川老)가 또 이 경의 모든 글자나 구(句) 그리고 분(分)에 대해 계송으로 설명하였다. … 후일 이 경송(經頌)을 읽는 사람이 이로 인해 깨우치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것이 야보의 뜻이고 또한 나의 뜻이다.”고 하였다.

한편 우왕 13년(1387) 간본(보물 제919호 등)과는 달리 이 책에 천연(天演)의 발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곧 천연의 발문이 있어야 할 곳 앞에서 세로로 찢겨져 그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의 발문이 있었으나 찢겨져 결락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발문이 없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손상이 이 책이 발견될 때부터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훼손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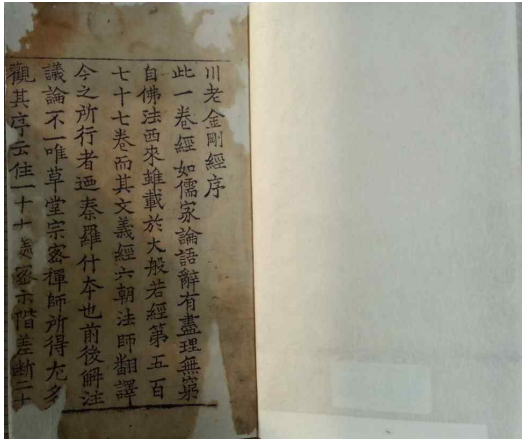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앞뒤 몇 장은 부분적인 손상으로 배접되어 있다. 본문은 가운데 판심이 없는 권자본 형식으로 1장은 15행16자이다. 그런데 앞면은 8행, 뒷면은 7행으로 나누어 접어 선장형식으로 장책해 놓았다. 그래서 뒷면의 마지막 부분의 공백은 여유가 있다.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간행시기를 13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의 해제를 쓴 남권희 교수도 서체가 구양순체라는 점, 도침이 잘된 고려지라는 점 그리고 인쇄상태가 정교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국에서 처음 전래된 형태를 바탕으로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행연대의 추정판단은 다른 판본에 남아있는 각수명을 참고한 것 같다. 곧 우왕 13년(1387) 간본에는 <사진 3>과 같이 정진의 발문 뒤에 선월암 산인(禪月庵 山人) 천연(天演)의 발문과 이홍재(李洪宰), 유천(惟遷), 정안(正安) 등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각수인 “정안”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할 때 『대반야경』 제511권 등을 새긴 각수이고, 그가 활동한 시기는 1258년에 천연이 발문을 쓴 시기와 거의 일치하므로 이 책의 간행연대를 13세기 중엽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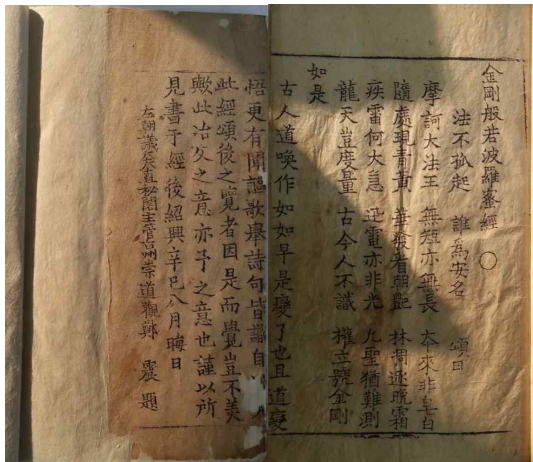
그러나 정안이라는 범명을 가진 승려가 한 사람만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또 팔만대장경을 새긴 그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새긴 동일인으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해 보인다. 더욱이 찢겨나간 부분이 정안 등 간행기록이 있었는지 또는 독자적인 간행기록이 있었는지는 알 수도 없다.

14) 우왕 13년(1387)에 근비의 지원으로 강인부가 주도하여 간행하고, 이책이 발문을 붙여 간행한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은 현재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권두에 淳熙 己亥(1179)에 慧藏 無盡이 쓴 川老金剛經序와 권미에 鄭震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본 중에서 보물 제974호와 보물 제1127호는 각각 『금강반야바라밀경』, 『천노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물 제721호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뒤에 진언과 靈驗讚이 덧붙여져 있고, 보물 제919호는 『범망경』과 합철되어 지정명칭은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그러나 이 4종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모두 우왕 13년(1387)에 간행된 동일한 판본이다. 아울러 보물 1719호로 지정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중의 『금강반야바라밀경』도 동일한 판본이다. 이 판본은 동치 8년(1869)에 경기도 평주의 수도산 봉은사에서 번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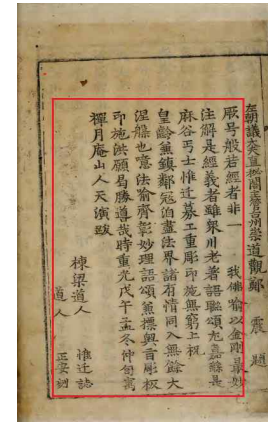
또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천로가 주해한 다른 판본과 동일한 내용이며, 새로운 내용이 수록되어 있거나 명가의 수택본(手澤本)은 아니다. 이 책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다면, 고려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천로 주해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확한 추정 간기를 지정여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보다는 추후 동일한 판본의 출현을 조금 더 기다리는 방안도 좋은 방편이라고 하겠다.



<사진1> 해장 무진이 쓴 川老金剛經序(첫째 장)



<사진2> 권수제면(오른쪽)과 마지막장(왼쪽, 세로로 찢겨져 있음)



<사진3> 우왕 13년(1387) 간본의 천연의 발문 등

○ 문헌자료

<참고문헌>

『천로금강경』: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영인집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인문화사, 2012.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앞뒤 몇 장은 배접되어 있음. 남아있는 마지막 장은 세로로 찢겨나갔고, 이후는 결락되었음.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송나라의 선사인 야보 도천(治父 道川)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이해하기 쉽게 주해하고, 또 송(頌)까지 덧붙여 놓은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보통 『금강경』으로 약칭하는데, 고려시대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널리 유통된 불경이다. 남조시대 부희(傅翕, 497-569)의 찬(讚), 당나라 육조대사 혜능(慧能, 638-713)의 해의(解義), 당나라 종밀(宗密, 780-841)의 찬요(纂要), 송나라 종경(宗鏡)의 제강(提綱) 등과 함께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로 일컫고 있다.

야보 도천의 속성은 적(狄)씨이고, 이름은 삼(三)이다. 제동(齊東)의 도겸선사(道謙禪師)에게 도천(道川)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건염(建炎, 1127-1130) 초년에 천봉(天峰)에 이르러 정인사(淨因寺)의 반암 계성(蹯庵 繼成)의 문하에서 법을 계승하였다고 한다. 후일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천이 답한

것이 바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천로금강경』)의 내용이다. 도천의 주석은 간결하면서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말년에 안희성 야보산에 있는 선원(禪院)에서 주지를 지냈으므로 야보 천로(冶父 川老)라고도 일컫는다.

조사본은 권두에 1179년(淳熙 己亥, 고려 명종 9) 결제일(結制日)에 혜장(慧藏) 무진(無盡)이 쓴 「천로금강경서(川老金剛經序)」를 시작으로 「찬탄게(讚歎偈)」 및 「개경계(開經偈)」를 두고, 이어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권수제에 이어 32품의 본문을 나누어 주해를 하고 송(頌)을 덧붙였다. 본문의 주해와 송이 끝난 뒤에는 소흥(紹興) 신사년(1161) 8월에 승도관(崇道觀)의 정진(鄭震)이 쓴 발문이 있다. 정진은 발문에서 이 책에 대해 “이 『반야바라밀경』이 서역에서 전래되어 부대사(傅大士)가 처음으로 계송을 지었고, 이제 천로(川老)가 또 이 경의 모든 글자나 구(句) 그리고 분(分)에 대해 계송으로 설명하였다. … 후일 이 경송(經頌)을 읽는 사람이 이로 인해 깨우치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것이 야보의 뜻이고 또한 나의 뜻이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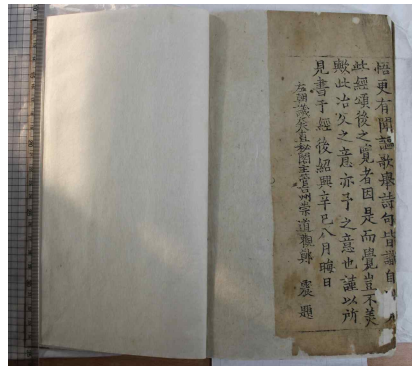
그런데 조사본은 기지정된 우왕 13년(1387) 간본(보물 제919호 등)과는 달리 천연(天演)의 발문이 없다. 천연의 발문이 있어야 할 곳 앞에서 세로로 찢겨져 그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는데, 본래 발문이 있었으나 찢겨져 결락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앞뒤 몇 장은 부분적인 손상으로 배접되어 있다.

조사본은 가운데 판심이 없는 권자본 형식으로 1장은 15행 16자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 앞면은 8행, 뒷면은 7행으로 나누어 접어 선장형식으로 장책해 놓았다.



天演 跋文



川老金剛經 鄭震 跋文

○ 지정사례

-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梵網經—金剛般若波羅蜜經)」 (보물 제919호, 1987.07.16.)
- 「금강반야바라밀경(川老解金剛般若波羅蜜經)」 (보물 제974호, 1988.12.28)
- 「천노해 금강반야바라밀경(川老解金剛般若波羅蜜經)」 (보물 제1127호, 1992.04.20)

○ 문헌자료

『천로금강경』: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도서 영인집1, 영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편, 경인문화사, 2012.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21.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가. 검토사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4.4.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소유자(관리자): 영남대학교
- 소재지: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 수 량: 10권 3책
- 규격(cm): 半葉匡郭 21.6×14.4 (31.5×20.0)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61~1471년(세조7~성종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에 간행하여 유통된 능엄경은 대부분이 송(宋)의 계환(戒環)의 주석본이다. 이에 비하여 조사대상본은 원(元)나라 승려 유척(惟則)이 주해를 모아 편집한 회해본(會解本)으로 전본이 별로 없는 희귀본이다. 을해자로 인출한 인본으로 보자가 보이지 않고, 책의 권수에는 ‘校正’ 印이 날인되어 있어서 조선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낙질이 없는 완본인데다 보존상태가 좋아서 조선초의 불교사연구와 인쇄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책은 유척이 회해한 『능엄경』 주석서의 하나이다. 세조 1년(1455)에 주조한 을해자로 찍은 점과 「校正」 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능엄경』 주석본은 대개 송나라의 계환(戒環)의 주석본이다. 이에 비해 을해자로 찍은 『회해본』 전본은 아주 희귀한데, 이 책은 보존 상태까지 좋은 10권 3책의 완질본이다. 아울러 조선초기의 불교문헌 연구와 출판인쇄사의 소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은 원나라의 유척(惟則)이 1342년에 『능엄경』에 관한 이전까지의 주석을 모으고, 본인의 주석을 합쳐 만든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회해』이다.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을해자를 사용하여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송나라 계환(戒環)의 주석본과 비교하여 을해자로 찍은 『회해본』 전본은 중요한 자료이다. 더욱 10권 3책의 완질본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불교사 연구는 물론 서지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대체로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서지사항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蜜帝(唐) 譯 ; 惟則(元) 會解.

金屬活字本(乙亥字)

[世祖7~成宗2年(1461~1471)]

10卷3冊 : 四周單邊, 半葉匡郭 21.6×14.4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5×20.0 cm.

敘: 時至正二年壬午(1342)佛成道日…沙門惟則述于姑蘇城中之師子林. 克立題.

[跋]: 刊始於至正壬辰(1352)之暮春至十有一月工畢 … 克立謹再題.

版心題: 會解

表題: 楞嚴經 會解

印: 「校正」, 「정음문고」, 「正音文庫」

이 책의 서명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지만 권수제에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會解』이다. 『능엄경』의 주석본으로는 『의소본(義疏本)』(1167년 이전), 『요해본(要解本)』(1129년), 『의해본(義海本)』(1167년), 『집주본(集註本)』(1276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본은 원(元)나라의 유척(惟則: 1298~1368)이 1342년에 이전의 주석을 모아 엮은 주석서이어서 서명의 끝에 회해(會解) 2자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처음 천축의 사문인 반랄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오장국의 사문인 미가석가(彌伽釋迦)가 역어(譯語), 보살계제자 전정의대부동중서문하평장사(前正議大夫同中書門下平章事) 방용(房融)이 필수(筆受), 사자림(師子林) 사문인 유척이 회해(會解)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회해를 한 유척은 원나라 대의 선승으로 속성은 담(譚)씨고, 호는 천여(天如)이다. 순제(順帝) 지정 원년(1341)에 소주(蘇州) 사자림의 정종선사(正宗禪寺)에게서 불법을 전수받고, 『능엄경』 주해본 9종을 모으고, 자신의 주를 보충하여 『楞嚴經會解』를 편찬하였다.

조사대상본은 세조 1년(1455)에 주조한 을해자로 찍은 책이다. 책면의 인출 상태를 보면 보자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조 초기에 간행한 책임을 알 수 있다. 각 책의 첫째 장의 권수제면 상란에는 「校正」 인(印)이 찍혀 있어서, 을해자로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임을 알 수 있다.

전 10권을 상(제1~3권), 중(제4~7권), 하(제8~10권) 3책에 나누어 장책하였다. 지

질은 저지와 고정지가 섞여 있다.

□

○ 현 상 : 대체로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蜜帝(唐) 譯 ; 惟則(元) 會解.

金屬活字本(乙亥字)

[世祖7~成宗2年(1461~1471)]

10卷3冊 : 四周單邊, 半葉匡郭 21.6×14.4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5×20.0 cm.

敘: 時至正二年壬午(1342)佛成道日…沙門惟則述于姑蘇城中之師子林. 克立題.

[跋]: 刊始於至正壬辰(1352)之暮春至十有一月工畢 … 克立謹再題.

版心題: 會解

表題: 楞嚴經 會解

印: 「校正」, 「정음문고」, 「正音文庫」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전문 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의 하나이다.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수능엄경』, 『능엄경』이라고도 한다. 『능엄경』 주석본은 『의소본(義疏本)』(1167년 이전), 『요해본(要解本)』(1129년), 『의해본(義海本)』(1167년), 『집주본(集註本)』(1276년)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원나라의 유척(惟則, 1298~1368)이 1342년에 이전의 주석을 모아 엮어 만든 주석서의 하나이다. 유척은 자신이 참고한 당송(唐宋) 대의 주석자 9명을 이 책의 권10이 끝난 뒤에 「회해소인교선제사명목(會解所引敎禪諸師名目)」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흥복법사 회유각(興福法師 諱惟慤), 자중법사 회홍연(資中法師 諱弘沆), 진제법사 회승절(眞際法師 諱崇節), 취리법사 회홍민(樁李法師 諱洪敏), 장수법사 회자선(長水法師 諱子璿), 고산법사 회지원(孤山法師 諱智圓), 오흥법사 회인악(吳興法師 諱仁岳), 늑담선사 회효월(渤潭禪師 諱曉月), 온능선사 회계환(溫陵禪師 諱戒環) 등이다.

이 책의 서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회해』이다. 이 책은 처음 천축의 사문인 반랄밀제(般刺密帝)가 번역, 오장국의 사문인 미가석가(彌伽釋迦)가 역어(譯語), 보살계제자 전정의대부(前正議大夫)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방용(房融)이 필수(筆受) 그리고 사자림(師子林) 사문인 유척이 회해(會解)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회해를 한 유척은 원나라 대의 선승으로 속성은 담(譚)씨고, 호는 천여(天如)이다. 무극원(無極源) 선사에게서 배움을 받았고, 중봉명본(中峰明本) 선사를 사사하였다. 순제(順帝) 지정 원년(1341)에 소주(蘇州) 사자림

의 정종선사(正宗禪寺)에서 불법을 전하였고, 이때 이전의 9가지 『능엄경』 주해본을 모으고, 자신의 주를 보충하여 『능엄경회해』를 완성한 것이다.

목차는 없이 처음 유척이 지정 2년(1342) 불성도일(佛成道日)에 쓴 대불정수능엄경회해서(大佛頂首楞嚴經會解敘)와 임천사문 극립(臨川沙門 克立)의 제(題)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권10이 끝난 뒤에도 유척이 쓴 권지서(勸持敘)와 극립의 제(題)로 끝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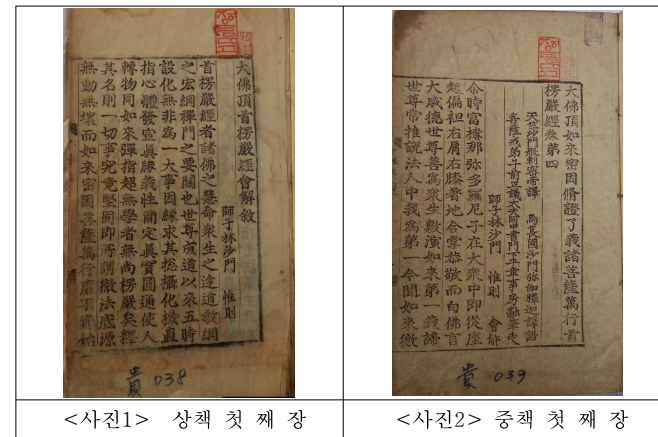
전 10권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에서는 석가모니가 제자 아난과의 문답을 통하여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밝히고, 제2권에서는 깨달음의 본성과 나아가는 과정을 설한다. 제3권에서는 마음의 영원불멸성을 깨우쳐주고, 제4권에서는 여래장(如來藏)이 무엇인지 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한다. 제5권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힌다. 제7권에서는 능엄 다라니와 그 공덕을 밝히고, 제8권에서는 보살의 수행하는 단계로 57위(位)를 설한다. 제9권에서는 수행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50가지 마(魔)에 관해 밝히고, 제10권에서는 이 경의 공덕과 유통에 관하여 부연한다.

이 책은 세조 1년(1455)에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만든 동활자인 을해자로 찍은 책이다. 을해자는 성종 때에 보주(補鑄), 선조 때는 목활자를 보각(補刻)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으나 이 책의 인출 상태로 보면 주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진 1-4>에서 보듯이 각 책의 첫째 장(권1, 권4, 권8)의 권수제면 1행의 상란에는 「校正」인(印)이 찍혀 있다. 이 「校正」인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다른 불서에도 찍혀져 있는데 교정을 끝낸 뒤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세조 때 만든 을해자로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세조 7년(1461)년에 간행된 『능엄경언해』의 음석(音釋)에는 『능엄경회해』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해를 할 때 『요해(要解)』, 『의해(義海)』, 『집주(集註)』 등과 함께 『회해』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용한 『회해』가 이 판본이라면 1461년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늦어도 1471년 이전에는 간행되었을 것이다.

<사진 5>에서 보듯이 전 10권을 제1-3권, 제4-7권, 제8-10권으로 나누어 상중하 3책으로 장책해 놓았다. 능화문양이 선명한 누런색의 밀랍표지는 원래의 것으로 보인다. 표제는 『楞嚴經會解』, 그 아래에는 각 책마다 상중하로 구분하여 묵서해 놓았다. 『능엄경』은 큰 자, 『회해』는 작은 자이다. 각 책의 첫째 장에 찍혀 있는 「校正」인의 왼쪽에는 「정음문고」인이 있고, 각 책의 끝부분에는 「正音文庫」인이 찍혀 있다. 이 책이 정음문고의 옛 소장본임을 보여준다. 지질은 저지와 고정지가 섞여 있으나 저지가 대부분이다. 상책의 뒤쪽 몇 장은 윗부분을 서툴게 보수한 흔적이 있고, 세 책 모두 부분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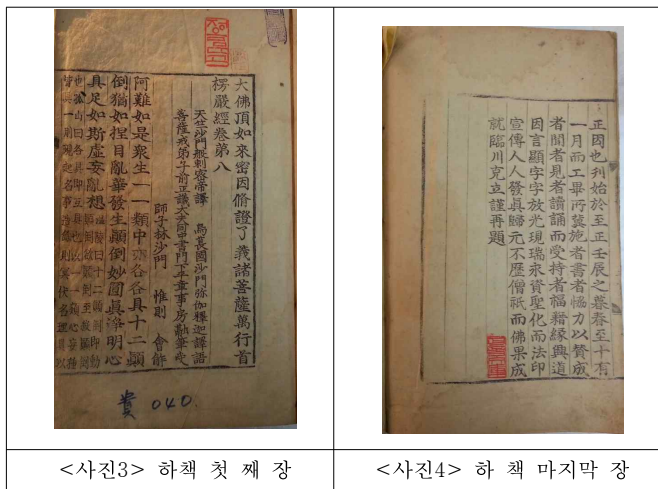
나 대체로 온전한 편이다.

상책의 표지 내면에는 “頌曰：藏六如龜，防意如城，慧與魔戰，勝則無患.”라는 1행의 목서가 있다. 곧 “여섯 가지(눈, 귀, 코, 입, 몸, 마음)를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곽처럼 굳게 지켜라. 그 지혜로 마귀와 맞서 싸우면 승리하여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라는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 심의품(心意品) 제11에 있는 글이다. 언제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도를 위한 마음가짐을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또 상책(권1-3)의 뒤표지 내면에는 “『회해합부』 세 권(3책)중에서 중하 양권(2책)을 베끼기 위해 묘향산 극락전 회중에 보내었으니 후일 받아라. 기묘 3월 일(『會解合部』三卷，中下兩卷注解，謄錄次移送，于妙香山極樂殿會中，後日推尋也。己卯 三月 日)”이라는 목서가 있다. 곧 상중하 세 책 중에서 중하 두 책을 빌려준 사실을 소장하고 있던 상책에다 적어서 향후 잊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기묘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이 묘향산에 있던 사찰의 전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1> 상책 첫 째 장

<사진2> 중책 첫 째 장



<사진3> 하책 첫 째 장

<사진4> 하 책 마지막 장



<사진5> 상중하 3책(능화문양의 밀랍 표지와 表題)

○ 문헌자료

이승재, “異體字로 본 高麗本 楞嚴經의 系統口訣研究”, 『구결연구』 제11집, 2003.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1.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3차 회의서류, 경상북도, 2012.12

□

○ 현 상

본문 전체에 누습의 흔적이 있고, 일부 배접된 상태이다. 각 책의 첫째 장과

끝부분에 찍혀 있는 「正音文庫」 인으로 보아, 정음문고의 옛 소장본임을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좋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會解本) 상중하 3책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蜜帝(唐) 譯 ; 惟則(元) 會解.

金屬活字本(乙亥字) [世祖7-成宗2年(1461-1471)]

10卷3冊 : 四周單邊, 半葉匡郭 21.6×14.4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1.5×20.0 cm.

敘: 時至正二年壬午(1342)佛成道日…沙門惟則述于姑蘇城中之師子林. 克立題.

[跋]: 刊始於至正壬辰(1352)之暮春至十有一月工畢 … 克立謹再題.

版心題: 會解

表題: 楞嚴經 會解

印: 「校正」, 「정음문고」, 「正音文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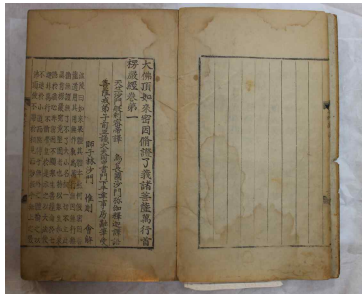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당나라 중종 신룡(神龍) 1년(705)에 반랄밀제(般刺密帝, ?~?)가 한 역한 경전으로 밀교사상(密敎思想)과 선종사상(禪宗思想)을 절한 대승경전으로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수능엄경(首楞嚴經)』·『능엄경(楞嚴經)』이라고도 한다.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의 하나로 중요시되고 있다.

조사본은 원나라의 유척(惟則)이 1342년에 『능엄경』에 관한 이전까지의 주석을 모으고, 본인의 주석을 합쳐 만든 책으로, 표제에서 확인되듯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회해』라고 부른다. 유척이 참고한 당송(唐宋)대의 주석자 9명에 대해서는 조사본 권10의 「회해소인교선제사명목(會解所引敎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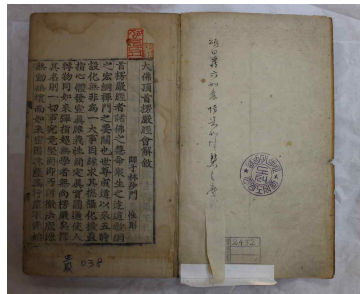
諸師名目)」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흥복법사 휘유각(興福法師 諱惟慤), 자중법사 휘홍연(資中法師 諱弘沔), 진제법사 휘승절(眞際法師 諱崇節), 취리법사 휘홍민(樁李法師 諱洪敏), 장수법사 휘자선(長水法師 諱子璿), 고산법사 휘지원(孤山法師 諱智圓), 오흥법사 휘인악(吳興法師 諱仁岳), 늑담선사 휘효월(沔潭禪師 諱曉月), 온능선사 휘계환(溫陵禪師 諱戒環) 등 9명이다.

유척은 원나라 때의 임제종(臨濟宗) 선승(禪僧)으로 유척(維則)으로도 불리고 있다. 속성은 담(譚)씨고, 호는 천여(天如)이다. 어릴 때 화산(禾山)에서 채발(剃髮)했고, 나중에 중봉명본(中峰明本) 선사에게 법을 얻었다. 순제(順帝) 지정 원년(1341)에 소주(蘇州) 사자림(師子林)의 정종선사(正宗禪寺)에서 불법을 전하면서 불심보계문혜대변선사(佛心普濟文慧大辯禪師)란 호와 금란의(金欄衣)를 하사받았다고 한다. 저술로는 『능엄경』에 이전의 9가지 『능엄경』 주해본을 모으고, 자신의 주를 보충하여 만든 『능엄경회해』 그리고 『능엄경원통소(楞嚴經圓通疏)』(10권)이 있고, 그밖에 정토교(淨土敎)의 교리를 담은 『정토혹문(淨土或問)』, 『선종어요(禪宗語錄)』, 『시방계도설(十方界圖說)』 등이 있다.

조사본은 목차는 없고, 지정(至正) 2년(1342) 임오(壬午) 불성도일(佛成道日)에 유척이 쓴 「대불정수능엄경회해서(大佛頂首楞嚴經會解敍)」와 임천사문 극립(臨川沙門 克立)의 「제(題)」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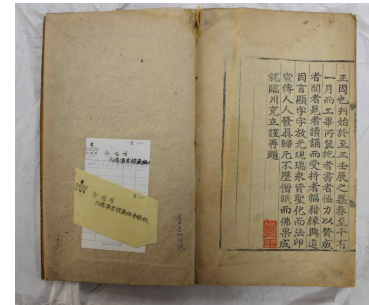
대불정수능엄경 회해 권1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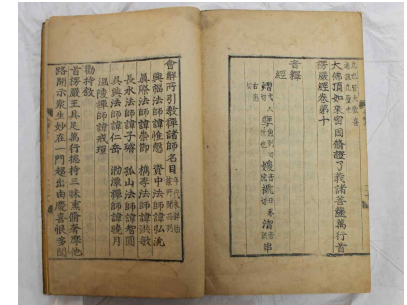
대불정수능엄경 회해 서

제1권에서는 석가모니가 제자 아난과의 문답을 통하여 마음을 얻는 방법을 밝히고, 제2권에서는 깨달음의 본성과 나아가는 과정을 설한다. 제3권에서는 마음의 영원불멸성을 깨우쳐주고, 제4권에서는 여래장(如來藏)이 무엇인지 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설한다. 제5권에서는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힌다. 제7권에서는 능엄 다라니와 그 공덕을 밝히고, 제8권에서는 보살의 수행하는 단계로 57위(位)를 설한다. 제9권에서는 수행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50가지 마(魔)에 관해 밝히고, 제10권에서는 이 경의 공덕과 유통에 관하여 부연한다.

권10의 뒤에는 「회해소인교선제사명목(會解所引敎禪諸師名目)」과 함께 유척이 쓴 「권지서(勸持敍)」와 극립의 「제제(再題)」가 있다.



대불정수능엄경 극립 再題



대불정수능엄경 勸持 敍

조사본은 1455년(세조 1)에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만든 동활자인 을해자로 찍었는데, 각 책의 권수에 보이는 「校正」인(印)으로 보아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된 책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세조 7년(1461)년에 간행된 『능엄경언해』의 음석(音釋)에는 『능엄경회해』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해를 할 때 『요해(要解)』, 『의해(義海)』, 『집주(集註)』 등과 함께 『회해』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용한 『회해』가 이 판본이라면 1461년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늦어도 1471년 이전에는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책의 표지 내면에는 “여섯 가지(눈, 귀, 코, 입, 몸, 마음)를 거북이처럼 감추고, 뜻을 성곽처럼 굳게 지켜라. 그 지혜로 마귀와 맞서 싸우면 승리하여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頌曰：藏六如龜，防意如城，慧與魔戰，勝則無患)”라는 1행의 목서가 있다. 이는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 「심의품(心意品)」 제11에 있는 글이다. 또 상책(권1-3)의 뒤표지 내면에는 “『회해합부』 세 권(3책)중에서 중하양권(2책)을 베끼기 위해 묘향산 극락전 회중에 보내었으니 후일 받아라. 기묘 3월 일(『會解合部』三卷，中下兩卷注解，謄錄次移送，于妙香山極樂殿會中，後日推尋也。己卯 三月 日)”이라는 목서가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조사본이 묘향산에 있던 사찰의 전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문헌자료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3차 회의서류, 경상북도, 2012.12

22.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41)

가. 검토사항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4.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2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41)
- 소유자(관리자): 영남대학교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 수 량: 1축
- 규격(cm): 28.8×826.0 匡高 22.0.(第1張: 22.0 × 45.6)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
- 형 식: 권자본(卷子本)
- 제작연대: 고려시대(11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인 영남대 소장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은 실차난타가

신역한 80권본의 제41권의 1권이다. 이 경전은 소실된 초조본과 재조본의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본이다. 특히 이 권은 유일전본이라는 점에서 특히 가치를 갖는다.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영남대 소장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은 실차난타가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의 1권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의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 경전은 소실된 초조본의 저본계통과 재조본과의 차별성을 밝힐 수 있는 경전이자 해당 권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희귀한 경전이다.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은 실차난타가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의 1권이다. 해당 권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경전으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전해지는 자료가 많지 않은 초조대장경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앞장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대체로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서지사항:

大方廣佛華嚴經. 卷41 / 實叉難陀(唐) 譯
木板本

[11世紀]

1軸：上下單邊， 匡高 22.0cm.(第1張：22.0 × 45.6 cm)，無界，23行 14字；28.8 × 826.0 cm. 卷子本.

卷軸：33.4(길이) × 0.8(직경)cm.

『묘법연화경』과 함께 한국에 큰 영향을 준 경전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으로 약칭된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영남대 소장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은 실차난타가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의 1권이다. 천자문 함차는 “愛”함이다. 수록된 내용은 “「十定品」第二十七之二”이다. 이 부분은 『주본 대방광불화엄경화엄경』에만 있는 것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려면 열 가지 명상으로 불도를 닦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초조본 대장경과 재조본 대장경(팔만대장경)의 차이점은 간행기록 표시, 피휘(避諱)의 다소, 장수표시 글자의 차이(초조본은 “丈”이나 “幅”, 재조본은 “張”)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대상본인 영남대 소장본은 간행연도가 없고, 장수 표시에 “丈”자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敬”자의 결획(제 9장)이 보이며, 행자수는 23행 14자이다. 이러한 점은 이 경전이 초조대장경 인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은 여러 전본들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국보 6종, 보물 2종 등 모두 8종이 지정되어 있다. 조사대상본의 동권은 지정된 바 없다.

○ 문헌자료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

○ 현 상

앞부분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 卷41 / 實叉難陀(唐) 譯
木板本
[11世紀]
1軸：上下單邊， 匡高 22.0cm.(第1張：22.0 × 45.6 cm)，無界，23行 14字；28.8 × 826.0 cm. 卷子本.
卷軸：33.4(길이) × 0.8(직경)cm.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넓고 큰 부처가 일체의 중생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어, 마치 향기가 짙은 꽃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다는 의미를 가진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며,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

으로 하고 있다. 『묘법연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한역본(漢譯本) 『대방광불화엄경』은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권본, 7세기 말 우진국(于闐國)의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번역한 80권본 그리고 당나라의 반야(般若)가 번역한 40권본 등 3종이 있다. 이 중에서 60권본과 80권본은 품수(品數)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60권본이 먼저 번역되었으므로 구역 또는 그 시기를 따라 정원본(貞元本)이라 하고, 이에 상대하여 80권본은 신역 또는 주본(周本)이라고 한다. 신역(80권)은 구역(60권)의 「입법계품」을 보완하여 세분화하였고, 또 60권에는 없는 「십정품(十定品)」을 권40~43에 새로 편입시켰다.

영남대 소장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은 실차난타가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의 1권이다. 이 경전의 경명 아래에는 “新譯”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신역인 주본임을 의미한다. 천자문 함호는 “愛”함이다. 수록된 내용은 “「十定品」第二十七之二”이다. 이 부분은 『주본 대방광불화엄경화엄경』에만 있는 것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려면 열 가지 명상으로 불도를 닦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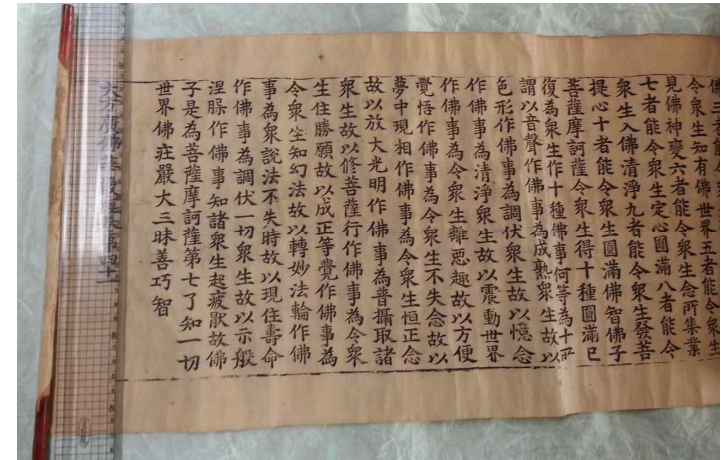
한편 초조본 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재조본 대장경(팔만대장경)과는 다른 점이 있다. 곧 두 판본 간에는 간행기록 표시의 유무, 피휘(避諱)의 다소, 장수표시의 차이(초조본은 “丈”이나 “幅”, 재조본은 “張”)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행자수가 다른 경전들이 있는데 바로 이 경전이 이에 해당한다. 곧 이 경전은 각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 해당 경전의 24행 17자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초조본과 재조본의 저본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남대 소장의 이 경전도 간행연도가 없고, 장수 표시에서 “丈”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敬”자의 결획(제 9장)이 보이며, 행자수는 23행 14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경전이 초조대장경 인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경전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전은 모두 1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8.8cm, 가로 826.0 cm이다. 역자와 품 표시가 있는 제1장의 2-3행, 제6-7행 아래의 2-3자, 제10행의 아래 2자, 제13-14행의 아래 2자, 제20행의 아래 2자 등 <사진1>과 같이 권두에는 원문을 잃은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다. 지질은 우수하며, 인쇄상태도 좋은 편이다. 인쇄 시기는 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곧 11세기로 추정된다. <사진2>와 같이 권미에는 상하에 주색 칠이 된 권축이 있는데 내면의 보존상태로 보아 원래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은 재조본과 다른 형식으로 간행된 경전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전본들이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표1>에서 보듯이 국보 6종, 보물 2종 등 모두 8종이 지정되어 있다.

<표1>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의 국가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현황

구분	종목 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관리자
1	국보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1990.9.20	경기도박물관
2	국보 제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1990.9.20	관문사
3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1991.7.12	김중규
4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 75	1991.7.12	호림박물관
5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1993.4.27	한솔제지
6	국보 제279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4	1993.6.15	관문사
7	보물 제1191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0	1994.1.05	한솔제지
8	보물 제120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7, 77	1994.7.29	가천박물관



<사진2> 권41의 와 권미부분과 권축

○ 문헌자료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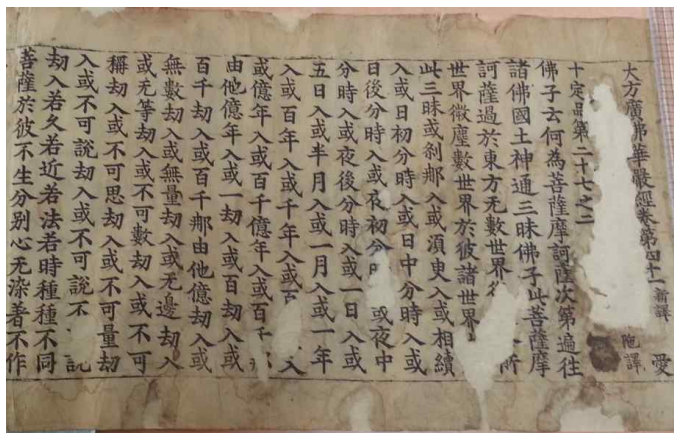
○ 현 상

앞부분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좋다.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화엄종(華嚴宗)의 근본 경전으로 불교전 문강원의 대교과(大敎科) 과정에서 학습되는 경전이다. ‘대방광(大方廣)’이란 대승(大乘) 곧 진리를 의미하고 ‘불화엄(佛華嚴)’이란 아름다운 연꽃으로 옥대(玉臺)를 장식하듯 보살이 여러 가지 꽃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한역본(漢譯本) 『대방광불화엄경』은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418년에서 429년 사이에 번역한 60권본(34품), 7세기 말 우진국(于闐國)의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번역한 80권본(39품) 그리고 당나라의 반야(般若)가 번역한 40권본(入法界品)등 3종이 있다. 60권본과 80권본은 품수(品數)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60권본이 먼저 번역되었으므로 구역 또는 그 시기를 따라 정원본(貞元本)이라 하고, 이에 상대하여 80권본은 신역 또는 주본(周本)이



<사진1> 권41의 권수부분(부분적인 손상)

라고 한다. 신역(80권)은 구역(60권)의 「입법계품」을 보완하여 세분화하였고, 또 60권에는 없는 「십정품(十定品)」을 권40~43에 새로 편입시켰다. 한편 40권본은 당나라 정원(貞元;785~805)연간에 번역하였다고 하여 ‘정원본(貞元本)’이라고도 부른다. 경전의 본래 명칭은 「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다.

조사본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으로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41의 1권이다. 이 경전의 경명 아래에는 ‘신역(新譯)’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신역인 주본임을 의미한다. 함가순(函架順)은 ‘애(愛)’함이다. 수록된 내용은 “「十定品」第二十七之二”이다. 이 부분은 『주본 대방광불화엄경화엄경』에만 있는 것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려면 열 가지 명상으로 불도를 닦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경전의 끝에는 간행연도가 없고, 장수 표시에서 “丈”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敬”자의 결획(제 9장)이 보이며, 행자수는 23행 14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경전이 초조대장경 인본임을 보여준다.

초조본 대장경을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과 비교하면 1) 본문의 피휘결획(避諱缺劃)에서 초조판에서는 ‘경(竟;宋太祖의 祖名兼避字)’ 자등이 결획되어 있으나, 재조판은 그것이 모두 바로 잡혀지고 있다. 2) 권말의 음의(音義)가 초조판에 없으나, 재조판에는 수록되어 있다. 3) 판식(版式)에서 초조판은 매 장 23行(但, 첫장22行) 14字이나, 재조판은 24行 17字로서 글자가 작고 가늘어서 뻥뻥하다. 이것은 국내진본(國內博本)에 의했기 때문이다, 4) 장차(張次)의 표현에서 초조판은 주로 「丈」 또는 「幅」자를 쓰고 있으나, 재조판은 「張」의 글자가 쓰여지고 있다. 5) 간기가 초조판에는 생략되고 있으나 재조판에는 권미제 다음에 ‘갑진제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표시된 차이가 있다. 등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조사본은 모두 1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8.8cm, 가로 826.0 cm이다. 역자와 품 표시가 있는 제1장의 2-3행, 제6-7행 아래의 2-3자, 제10행의 아래 2자, 제13-14행의 아래 2자, 제20행의 아래 2자 등 원문을 잃은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다. 지질은 우수하며, 인쇄상태도 좋은 편이다. 인출 시기는 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곧 11세기로 추정된다.

○ 지정사례

구분	종목 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관리자
1	국보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1990.9.20	경기도박물관
2	국보 제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1990.9.20	구인사
3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1991.7.12	김종규

구분	종목 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관리자
4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 75	1991.7.12	호림박물관
5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1993.4.27	한솔제지
6	국보 제279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4	1993.6.15	구인사
7	보물 제1191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0	1994.1.05	한솔제지
8	보물 제120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7, 77	1994.7.29	가천박물관

○ 문헌자료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2012.

보 고 사 항

24.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기지정실록(제151-1호 정족산사고본 실록 및 제151-4호 기타 산업본)의 수량 오류 및 비지정 실록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고, 최선의 지정·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경과보고

- 연합뉴스('16.12.20.) 보도 「조선왕조실록 중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60여책」
- 비지정 조선왕조실록 현황 조사 실시('16.12.28.)
-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정밀상태조사 완료, 조사 결과 정리 중

라. 지정현황

- 제151-1호 : 정족산사고본 1,181책
- 제151-2호 : 태백산사고본 848책
- 제151-3호 : 오대산사고본 74책
- 제151-4호 : 기타 산업본 21책

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리 조선왕조실록 현황

- 기지정문화재 지정수량 정정
 - ① 제151-1호 : 정족산 사고본 지정수량 오류 +6책 (1,187책)
 - ② 제151-4호 : 기타 산업본 추가 확인 +1책(22책)

○ 비지정실록 추가 확인

③ 비지정실록 : 75책

- 정족산 사고본 중 태조~명종실록 밀랍본(전주사고본)
- 춘추관사고본 잔질본
- 기타

- * 사유 : 1664~5년 실록에 대한 수리복원이 끝나고 1666년 1월 정족산사고에 다시 봉안할 때 실록케 봉안 실록과 별도케 봉안 실록으로 나뉘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도서번호를 매길 때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1970년대 국보 지정시 실록케에 담긴 실록만 국보로 지정한 것으로 추정

바. 비지정실록 추가 지정 관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건의사항

○ 지정번호 재편

- 추가 확인된 실록은 제151-1호 중의 태조~명종실록과 동일한 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으로 추정, 151-1호에 추가 지정
- 기타산업본(제151-4호)은 제151-1호 중의 태조~명종 실록에서 떨어져 나온 낱장이므로 제151-1호에 추가 지정

○ 지정수량 명기

- 현재 책수 표기에서 사고별 실록의 정확한 현황 비교를 위한 권책 병기 표기
- 태조~명종실록의 경우 원래의 분책은 805권 576책이었는데 1606년 재간행 당시 805권 259책으로 변화
- 1592년 성주, 충주, 춘추관 사고 등 세 곳의 사고가 소실되고 전주사고본 실록만 남았음. 전주사고본 실록은 1637년 재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수는 늘어남.

※ 권수 병기를 위한 정밀상태조사 필요

○ 지정범위

- 현재 실록케를 포함하여 총 36점의 케를 보관 관리 중이며, 그 중 21점은 실록케로 판단되며, 대부분 봉안 당시의 케로 추정됨.

○ 원형복원

- 비지정실록 중 춘추관사고본 잔질본의 경우, 1660년대 수리복원시 분책상태가 교란된 것으로 추정.
- 태백산사고본 실록을 참고하여 당시의 분책 상태로 복원 뒤 지정

- 지정수량 역시 이를 근거로 산출

사. 의결사항

- 원안접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조사완료 이후 지정추진

안전번호 동산 2017-01-025

25.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관련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2016~17년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관련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관련 국고보조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다. 주요내용

1) 2016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개요

①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보존처리

- 사업기간 : 2017. 2. ~ 2017. 12.
- 사업비 : 총 285,714천원
- 사업내용
 - 중복경판 정밀상태조사 및 손상도 평가, 3D촬영 등 기록화, 목판 정밀세척(건식 100%, 습식 50%), 훈증, 복원처리(매직 및 건출지 제거 등) 등

②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사업기간 : 2016. 12. ~ 2017. 06.
- 사업비 : 총 71,429천원
- 수행업체 : (사) 불교문화재연구소
- 사업내용
 - 보존 관리를 위한 필요항목 구성, 선행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정밀 재원사항 및 형태 서지학적 조사, 원형 디지털 기록화(2D, 3D), 비파괴 안전진단 기록화

③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연차사업 추진 예정)

- 사업기간 : 2016. 10. ~ 2017. 08.
- 사 업 비 : 총 285,714천원
- 수행업체 : (주)비겐, 해성문화재보존
- 사업내용
 - 통합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보전 내·외부 윈드스테이션 설치, 해인사 권역 환개미 모니터링, 장경판전 담장 주변 군체제거 설치 및 모니터링(82개소), 해인사 경내 군체제거 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29개소), 장경판전 내부 해충 및 미생물 모니터링(분기 1회)

2)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개요

①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및 고려목판 정밀·과학적 조사 중장기 사업계획 용역

- 사업목적 :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및 고려목판 정밀·과학적 조사 중장기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내역에 대한 타당성 연구
- 사업대상
 -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 : 국간판 81,352판(중복판 및 내전수함음소 포함)
 -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보물 제734호) : 사간판 6,025판(중복판 및 미분류판 포함)
- 사업기간 : 2017. 5. ~ 12. (예정)
- 사 업 비 : 총 200,000천원
- 과업범위(안)
 - 사업 대상(87,377판) 경판의 합리적·효율적인 조사 설계 방안 마련
 - 기간, 소요인력, 사업방식, 소요예산, 조사 시 유의사항 등 조사매뉴얼 제출
 - 효율적인 조사 설계 방안 마련을 위한 시험 기록화(3D스캔, 방사선 촬영 등)
 - 제작기법·판각기법 확인조사 및 보존처리 필요 경판 목록 작성
 - 최종 성과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및 기록 DB구축·통합 관리방법 제시
 - 자문위원 구성·운영 및 사업방향 설정 세미나 개최 후 추가 과업범위 반영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7. 2017년도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 보고

가. 제안사항

2017년도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대상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도 국보·보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문화재보수정비(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대하여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동산문화재 주변정비) 대상
 - 국보 제181호 장양수 홍패 보호각 건립 등 63건 19,968백만원(국비 12,463백만원)
 - ※ 보호구역이 있는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사업 4건은 심의사항이므로 제외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2)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집행

(3) 행정사항

- 사업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1. 2017년도 문화재보수정비(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현황 1부

연번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강남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종각정비	245,000	105,000	350,000
2	대구 동구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유물전시관 소방설비 구축	58,500	136,500	195,000
3	광주 동구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적묵당 해체보수 설계	52,500	22,500	75,000
4	대전 유성구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문화재 안내판 정비	2,800	1,200	4,000
5	경기 양평군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종무소(원웅당) 해체보수	308,000	132,000	440,000
6	강원 동해시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적광전 해체보수	560,000	240,000	800,000
7	강원 인제군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만복전 보수	486,500	208,500	695,000
8	강원 인제군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나한전 기단 보수	31,360	13,440	44,800
9	강원 철원군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적광전 단청공사(93㎡)	140,000	60,000	200,000
10	충북 단양군	묘법연화경 권7	대웅전개축공사 (200.0㎡약60.5평)	700,000	300,000	1,000,000
11	충남 당진시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유리광전 및 산신각 앞 계단과 석축보수, 경내 진입로 기반공사(L=120m)내 법면조정, 석축쌓기, 배수로 설치 등	280,000	120,000	400,000
12	충남 당진시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법당 내 닻집 모로단청(25㎡)	56,000	24,000	80,000
13	충남 서산시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적사자도	보호각건립(추가사업비) (당초 32.4㎡→추가 58.5㎡)	245,000	105,000	350,000
14	충남 서천시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종무소 단청	84,000	36,000	120,000

연번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5	충남 천안시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42,000	18,000	60,000
16	충남 홍성군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공양간 신축(105㎡)	280,000	120,000	400,000
17	전북 고창군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만세루해체보수(이진)	300,000	128,571	428,571
18	전북 고창군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응신료 개축공사	280,000	120,000	400,000
19	전북 김제시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관음전 개축	490,000	210,000	700,000
20	전북 남원시	황진가 고문서	전시관 담장 및 마당정비	15,420	35,980	51,400
21	전북 부안군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조감장 설치(1.5mx1mx1.04m) 2개소	4,200	9,800	14,000
22	전북 부안군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배수로정비75m	15,750	6,750	22,500
23	전북 완주군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35,000	15,000	50,000
24	전북 진안군	성석린 고신왕지	관리사 개축(45㎡)	204,400	87,600	292,000
25	전남 강진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천불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63,000	27,000	90,000
26	전남 강진군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보은산방 배면 석축 정비	61,600	26,400	88,000
27	전남 고흥군	금탑사괘불탱	종각이건 (A=36㎡) 사천왕문 보수 (A=60㎡)	357,000	153,000	510,000
28	전남 구례군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설선당 해체보수	315,000	135,000	450,000
29	전남 구례군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천은사 수각 보수정비	81,900	35,100	117,000

연번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계
30	전남 구례군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설선당 해체보수 감리비	18,200	7,800	26,000
31	전남 나주시	다보사괘불탱	하선당 보수(272.6㎡ * 3층)	280,000	120,000	400,000
32	전남 담양군	담양 용흥사 동종	삼성각 주변 석축 정비	140,000	60,000	200,000
33	전남 담양군	담양 용흥사 동종	회승당, 화중당, 화장실 단청	91,000	39,000	130,000
34	전남 보성군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명부전 복원(50㎡)	280,000	120,000	400,000
35	전남 순천시	순천 선암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전시설 내부 시설개선(144㎡) 배수로 정비(100m) 기존 진입로 보수(72㎡) 진입로 회랑설치	204,000	476,000	680,000
36	전남 영광군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성보박물관 시설보수	78,000	182,000	260,000
37	전남 영암군	최덕지초상 및 유지초본	관리사 증축(관리사 내 화장실 개축)	105,000	45,000	150,000
38	전남 장흥군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적광전(172㎡) 연목이상 해체보수	271,600	116,400	388,000
39	전남 해남군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수장고 증축 (200㎡)	165,000	385,000	550,000
40	전남 화순군	만연사괘불탱	화우천 배면 계단보수(12㎡) 1식	33,600	14,400	48,000
41	전남 화순군	만연사괘불탱	지하 공양간 목조 회랑 및 지상층 요사채(94.5㎡) 건립 (지하 공양간 RC조 제외)	700,000	300,000	1,000,000
42	경북 경산시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대웅전 기단 및 계단 정비	35,000	15,000	50,000
43	경북 구미시	구미 대운사 건철아미타여래좌상	대웅전 기단 및 계단 보존처리(세척)	46,200	19,800	66,000
44	경북 문경시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공루 변화 보수 및 드잡이	91,000	39,000	130,000
45	경북 문경시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단청 기록화 사업	105,000	45,000	150,000
46	경북 봉화군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지장전 단청(31.5㎡, 2층)	35,000	15,000	50,000

연번	소재지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천원)		
				국비	지방비	계
47	경북 상주시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음선원 변화보수	70,000	30,000	100,000
48	경북 안동시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 살좌상 및 복장유물	공양간 개축(100㎡)	280,000	120,000	400,000
49	경북 영덕군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공양간 건립 설계	42,000	18,000	60,000
50	경북 영주시	장계 흥패 및 장말손 백패· 흥패	유물 쇼케이스 교체	25,710	59,990	85,700
51	경북 영천시	영천 은해사 백홍암 수미단	보화루 보수(152.2㎡)	210,000	90,000	300,000
52	경북 예천군	예천 용문사 대장전	성보박물관 전시실 공조시스템 보수	20,550	47,950	68,500
53	경북 예천군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차장 및 주차장 옆 석축 정비 (150㎡)	70,000	30,000	100,000
54	경북 울진군	장양수 흥패	장양수 흥패 보호각 건립	150,000	64,286	214,286
55	경북 칠곡군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수장고 건립(288㎡)	357,600	834,400	1,192,000
56	경북 포항시	포항 오어사 동종	시민선방개축(A=150㎡)	420,000	180,000	600,000
57	경북 포항시	포항 오어사 동종	종합정비계획 수립	59,500	25,500	85,000
58	경남 거창군	거창 고건사 동종	석축담장정비(1구간, 높이1.0m) 석축정비(3구간, 평균높이1.07m)	182,000	78,000	260,000
59	경남 고성군	운흥사괘불탱 및 괘	공양간 건립 실시설계	47,600	20,400	68,000
60	경남 고성군	고성 옥천사 청동북	공양간 및 요사채 건립(402㎡) 및 주변정비	910,000	390,000	1,300,000
61	경남 양산시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	통도사 성보박물관 회화전시실 진열장A,B형설치,회화전시실 출입문개보수,향온향습기설치	207,000	483,000	690,000
62	경남 창원시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범종루 건립(1층 48.6㎡, 2층 48.6㎡, 3칸*2칸)	455,000	195,000	650,000
63	경남 함양군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보수(116.64㎡)	483,000	207,000	690,000
합 계				12,463,490	7,505,267	19,968,757